



The Music Animation Machine

2015년 4월 22일~25일 |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

음악의 내비게이션  
〈뮤직 애니메이션 머신〉과 함께  
떠나는 음악여행.  
내비게이션을 따라 낯선 길을 찾아가듯,  
음악을 감상하는 동시에  
연주되는 음들이 다채로운  
그래픽 패턴으로 움직이며  
색다른 감동을 선사한다.

COVER STORY  
프랑스 국립안무센터 - 발레 뒤 노르  
〈비극Tragédie〉



PREVIEW  
〈비극〉미리보기  
INTERVIEW  
안무가 올리비에 뒤부아  
ZOOM IN  
전라의 춤을 둘러싼 담론



## FESTIVAL OVERVIEW

### 행사개요

기간 : 2015년 8월 1일~14일 (2주)

: 오라엔테이션 및 오프닝콘서트 : 2015년 8월 1일(토)

: 오케스트라 리하설 및 무대행사 : 2015년 8월 2일(일)~14(일)

: 오케스트라 콘서트 : 2015년 8월 8일(토), 14일(금) / 총 3회

장소 : 성남아트센터

협력 : 스위스 취리히 톨랄레 오케스트라, 취리히 음악원

주최 : 성남문화재단

## CONDUCTOR & FACULTY

크리스티안 바스케즈, 수석 지휘자

베네주엘라 테레사 카레노 청소년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찰스부르크 페스티벌" 열 시스템아 지휘

노르웨이 스타빙게르 심모니 오케스트라 상임 지휘자

### 교수진

디렉터 : 허승연, 취리히 음악원 부총장

지휘 : Yi-Chen Lin, 취리히 톨랄레 오케스트라 지휘

바이올린/지휘 : Fränzi Frick, 취리히 음악원 교수

바이올린/지휘 : Philip Draganov, 취리히 음악원 교수

바이올린 : Andreas Janke, 취리히 톨랄레 오케스트라 악장

첼로 : Rebecca Firth, 취리히 음악원 교수

첼로 : Alexander Neustroev, 취리히 톨랄레 오케스트라 부수석

호른 : Mischa Greull, 취리히 톨랄레 오케스트라 수석

오보에 : Isaac Duarte, 취리히 톨랄레 오케스트라 부수석

트럼펫 : Philippe Litzler, 취리히 톨랄레 오케스트라 수석

## FESTIVAL PROGRAM

### 페스티벌 프로그램

#### ORCHESTRA

수준별 3개의 오케스트라가 구성될 예정이며, 각 오케스트라는 2주 동안의 리하설을 거쳐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2회의 공연을 하게 됩니다.

#### MASTERCLASS

오케스트라 단원 중 선발하여 취리히 교수진과의 마스터 클래스 참여 기회를 제공합니다.

#### HOME STAY

프로젝트 기간(8. 1~14)동안 취리히 음악원 학생 6인이 성남을 방문하여 페스티벌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합니다. 홈스테이를 희망하는 성남시 학생과 취리히 학생의 1:1 매칭으로 집중적인 교류의 장을 마련해 드립니다.

#### ETC

교수진 및 지휘자와의 대화의 시간, 오케스트라 리하설을 일반인에게 공개하여 참가자들이 음악을 매개로 교류하는 과정을 공유할 수 있는 오픈 리하설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구성됩니다.

## INFORMATION

### 공모안내

#### 신청자격

성남시 거주 초·중·고생 및 대학생 등 만 25세 미만

\* 프로젝트 전체 기간 참여 가능한 자 (8.1~14)

\* 대학생 이상의 경우, 타지역 거주자 신청 가능

#### 모집분야

Kids Strings

현악기 약 30명 / 초등학교

String Orchestra

현악기 약 30명 (하프 포함) / 중·고등학교

Youth Symphony Orchestra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등 오케스트라 전파트 약 60명 / 대학생 이상

#### 신청기간

2015. 2.24 ~ 4.24

#### 재출서류 및 자료

응시원서 및 음원-동영상

\* 응시원서 : 성남아트센터 홈페이지 (www.snart.or.kr > 고객센터 >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접수방법

우편 접수

463-83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08

성남아트센터 공연기획부

#### 공모심의

심사방식 : 서류 및 음원-동영상 심사

심사기준

- 신청자의 사업 참가 목적 및 충실성

- 신청자의 연주 역량

- 신청자의 연주 활동 실적

#### 결과발표

2015. 5. 21 (홈페이지 및 개별 공지)

#### 참가혜택

뮤직 알프스 오케스트라 단원 활동 (연주 2회)

마스터 클래스 및 오케스트라 합연 (신청자 중 심사를 통해 선정)

기타 교육 프로그램 참가

수료증 수여 (전일 참가자에 한함)

2016년 스위스 방문 교환 프로그램 참가 신청자격 부여 (수료자에 한함)

#### 문의

성남문화재단 공연기획부 (문의 가능 시간 : 10:00~18:00)

T : 031 783 8055

E : audition@snart.or.kr



# 뮤직 히트 리오 와 에티엔애벌린이 함께하는

# 애니메이션

# 머신

## The Music Animation Machine

2015.4.22.WED - 4.25.SAT

평일 AM 11:00 / 토 PM 14:00 - 17:00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

티켓가격 전석 20,000원 주최 성남문화재단

## 음악의 미래, 청소년을 위한 프로젝트

### 뮤직 알프스 in 성남

성남문화재단은 지난 6년간 계획해온 <엡솔루트 클래식>에 이어 한층 업그레이드된 청소년 오케스트라 프로젝트 <뮤직 알프스 in 성남>을 개최합니다. 스위스 취리히를 교루도 시로 삼아 오는 8월 성남아트센터에서 진행되는 본 프로젝트는 궁극적으로 성남시와 취리히 두 도시의 청소년 문화예술 교류를 지원합니다.

스위스의 취리히 톨랄레 오케스트라, 취리히 음악원의 세계적인 음악가들과 함께 성남의 어린이, 청소년들이 오케스트라 연주를 통해 소통할 수 있는 음악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세계적 명성의 교수진과 더불어 수석 지휘자로 합류할 크리스티안 바스케즈 Christian Vásquez는 현재 노르웨이 스타빙게르 심모니 오케스트라 상임 지휘자로 활동 중이며, 그 자신이 청소년 음악 교육의 선 모범인 베네수엘라 "열 시스템아" 출신의 지휘자입니다.

2주간 오케스트라 워크숍, 공연, 마스터클래스 등 다채로운 오케스트라 프로그램을 소화하게 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2016년에는 스위스 취리히를 교차 방문, 다양한 현지 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 MUSIC ALPS SEONGNAM

2015<뮤직 알프스in성남>오케스트라 페스티벌

청소년 오케스트라 단원 모집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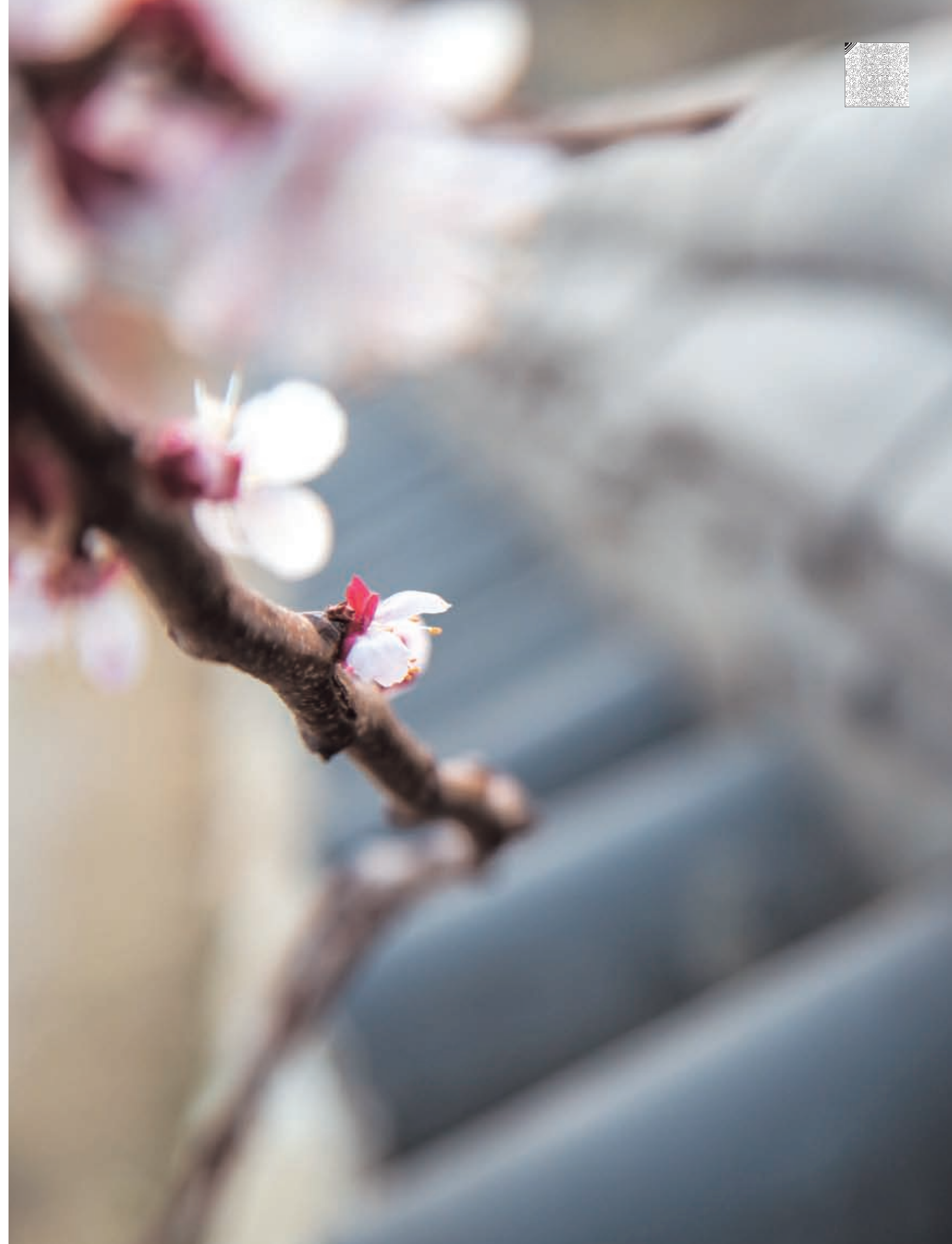


## 기적

어느 별에서 일순, 번개가숨을 멈췄던가  
지난해 간다 한마디 말도 없이 떠난 자리에  
다시 돌아와 뜨거운 입김을 내뿜는 꽃  
피라미가 물길에 몸을 부리듯  
온 신경을 우주의 파동에 맡기는 꽃

1억 광년 전 햇살이 곧 당도하리라

시 허형만 + 사진 박정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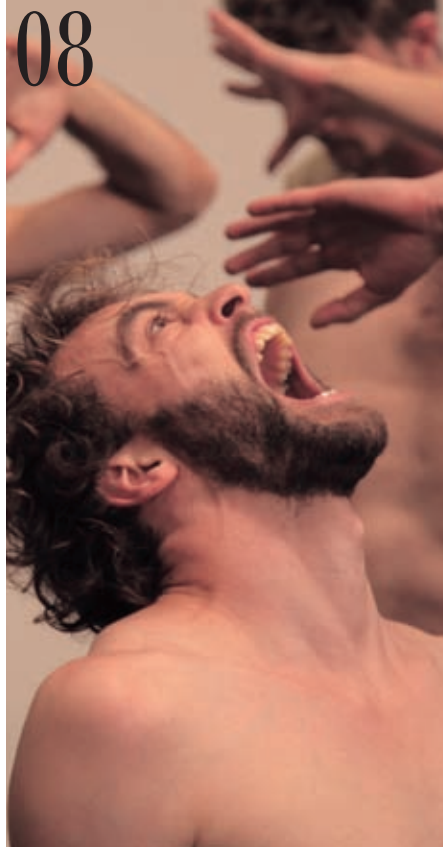


# Contents

Mar 2015 / Vol.114  
Monthly Art & Culture Magazine

월간 <아트뷰> 3월호

월간 <아트뷰>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 존중과 인쇄출판물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을 2차원 바코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 페이지마다 삽입된 음성 변환 바코드 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이스아이 인스기를 대면 본문의 텍스트가 음성으로 변환되어 읽힙니다.



08

24

02

Letter from SNART  
기적  
시 허형만 + 사진 박정훈

**COVER STORY**

프랑스 국립안무센터 - 발레 뒤 노트 <비극 Tragédie>

08

Preview  
<비극> 미리보기  
저항할 줄 아는  
창작의 정면 승부  
심정민

12

Interview  
안무가 올리비에 뒤부아  
육체는 세상의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다  
노승림

18

Zoom In  
전라의 춤을 둘러싼 담론  
벗은 몸의 태생적 비극:  
그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황보유미

**VIEW**

24

Preview  
뮤지컬 <그날들>  
故 김광석의 노래로 위로받는  
그날의 이야기  
정세원

26

Interview  
성남문화재단  
이상균 예술국장·김보성 문화진흥국장  
문화예술의 성남시대,  
함께 만들어갑니다  
남소연

**FEATURE**

32

World Report  
프랑스, 필하모니 드 파리  
음악과 건축, 그리고 사람의 공간  
황정원

38

Art & Archi  
독일, 훔브로이히 박물관 섬  
휴식과 명상을 누리는  
예술의 섬  
이은화

44

Art & Comment  
우리는 왜 컬러링북에 열광하는가  
트렌드가 된 예술,  
그리고 힐링  
류동현

46

이 한 장의 오페라  
베르디 <나부코>  
가라, 마음이어,  
황금빛 날개를 타고  
황지원

50

Book  
이달의 책  
음악과 학문, 문화를 읽다  
황희경

**INSIDE SEONGNAM**

54

Club+Sarangbang  
성남시 공무원 밴드 '사우스캐슬'  
눈빛을 맞추고 사운드가 울릴 때면  
기다리던 봄이 온다네  
김나리

58

Inside  
한국지역난방공사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동행  
조아라

62

Sketch  
2015 사랑방문화클럽 워크숍  
사랑방문화클럽, 2015년 새로운 길을 찾다  
박지훈

66

SNART News  
성남문화재단 안팎 소식

68

Academy  
성남아트센터 아카데미

70

SNART Calendar  
성남아트센터 공연 및 전시 일정

72

Beyond SNART  
성남아트센터 밖 주요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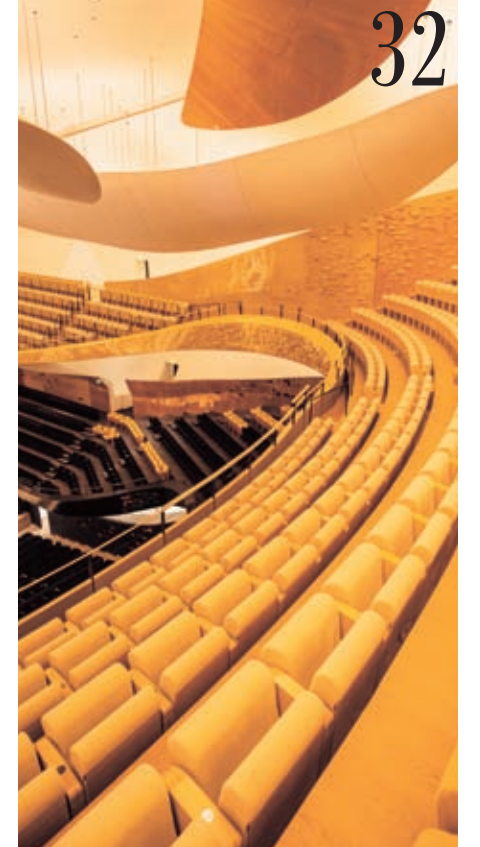
75

유료회원 제휴업체

76

성남아트센터 후원회에 참여하신 분

32



54



월간 <아트뷰> 2015년 3월호 통권 114호(비매출) 2015년 2월 27일 발행  
등록번호 경기라 00455 등록년월일 2005. 9. 12 간별 월간 발행인 정은숙  
기획 남소연 nam@snart.or.kr 교열 이지수 발행처 성남문화재단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08 성남아트센터 홍보미디어실 전화 031-783-8024  
홈페이지 www.snart.or.kr 편집·디자인 오너트(주) 02-337-3690

<아트뷰>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게재된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성남문화재단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아트뷰>의 일부 기사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원 파일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성남문화재단 직원의 목소리 기록과 성남미디어센터의 편집으로 제작되는 음원은 성남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무료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cover story

프랑스 국립안무센터 - 발레 뒤 노르

# 〈비극<sup>Tragédie</sup>〉

무용은 순간적인 동작으로 이루어진 찰나의 예술입니다. 인류의 역사와 기원을 함께하는 가장 원초적인 예술이며, 아름다운 움직임으로 관념을 표현하는 '몸의 언어'이기도 합니다.

성남아트센터는 그간 모나코 왕립 몬테카를로 발레단의 〈신데렐라〉,

마츠에크의 〈지젤〉, 윌리엄 포사이스 컴퍼니의 〈헤테로토피아〉 등

센세이션얼한 해외의 무용 작품들을 선보여왔습니다.

그리고 2015년 4월, 프랑스 국립안무센터 발레 뒤 노르 컴퍼니의 〈비극〉으로

또 한 번의 파격과 울림을 전하고자 합니다.

안무가이자 무용가, 연출가인 올리비에 뒤부아의 〈비극〉은 2012년 아비뇽 페스티벌

공식 초청작으로, 세계 각국의 관객과 만나며 술한 화제를 낳은 작품입니다.

〈비극〉에 등장하는 18명의 무용수는 각기 다양한 인간상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전라로 춤을 추며 사회적 속박과 사라져간 사람들,

그리고 성별, 연령, 인종의 구분에서 벗어나

공통의 휴머니티를 찾아가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이번 호 〈아트뷰〉 'Cover Story'에서는 아시아 최초로 선보이는 무용 〈비극〉 미리보기,

안무가 올리비에 뒤부아의 춤에 대한 열망과 철학, 예술과 외설의 경계를 둘러싼 담론 등

풍성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마음을 열고, 온몸으로 전하는

강렬한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보세요.

## PREVIEW

〈비극〉 미리보기

## INTERVIEW

안무가 올리비에 뒤부아

## ZOOM IN

전라의 춤을 둘러싼 담론





〈비극〉미리보기  
저항할 줄 아는  
창작의 정면 승부



# Tragédie

그동안 센세이션이나 반향을 일으키는 해외 무용 작품을 다수 소개해온 성남아트센터가 이번에도 범상치 않은 작품을 내놓는다. 2005년 장 크리스토프 마이요의 〈신데렐라〉를 시작으로 마츠 에크의 〈지젤〉, 윌리엄 포사이스의 〈헤테로토피아〉, 그리고 올봄 올리비에 뒤부아의 〈비극〉에 이르는 목록은 묵직하다. 이쯤 되면 해외 무용 공연에 관한 한 성남아트센터의 색깔은 확고히 다져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남아트센터가 해외 무용 공연을 자주 올리지 않으면서도 자기 색깔을 확립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술적으로 파장을 일으키는 작품을 잘 선별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형의 작품들은 무용계나 관객층의 찬반양론을 일으키기 마련인데, 현대의 무용 예술이 보기 좋은 예쁜 춤보다는 관객의 사유를 자극하고 마음을 동요시키는 작품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올해 4월 10일과 11일, 양일간 성남을 찾아오는 올리비에 뒤부아의 〈비극〉은 그 정점을 찍을 만하다. 90분간 열여덟 명의 남녀 무용수가 전라로 무대를 중횡무진 누빈다는 자체가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

### 전라<sup>全裸</sup>라는 정면 승부

공연예술에서 전라는 일종의 정면 승부다. 사회적으로 금기시되어온 전라라는 카드를 꺼내 들면 중간은 없다. 찬사 아니면 비난이 쏟아지기 마련이다. 여기서 찬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금기를 깨는 예술

글 심정민 무용평론가·비평가·비평가 + 사진 프랑스 국립안무센터 - 발레 뒤 노르







적인 설득력을 갖춰야 한다. 충동적인 시도가 아닌 관념적으로 탄탄한 무언가를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비극〉에서 전라는 소수에 의해 행해지거나 절정부에 잠깐 나오는 것이 아니다. 조명을 어둡게 해서 살짝 감춰두지도 않는다. 첫 장면부터 마지막까지 열여덟 명의 전라는 환한 불빛 속에서 선명하게 드러나 있다. 가장 대범한 전라가 제시되는 것이다. 올리비에 뒤부아가 그 도발적인 정면 승부를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본연의 인간성으로의 회귀다. 다름(차이)을 이야기하는 성별, 연령, 인종 등의 구분에서 벗어나 결국 인간은 인간일 뿐이라는 본연의 성질을 찾아가는 과정이 펼쳐진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전형적으로 아름다운 무용수를 찾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예술 춤의 허위와 허식마저 벗어던지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상당히 현명한데, 90분간의 적나라한 전라가 아름다운 육체로 이루어진다면 외설적으로 느껴질 만큼 선정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열여덟 명의 개성 있는 무용수들에 의해 담담하고 진지하게 그려진 전라는 관념적으로 다가온다.

### 올리비에 뒤부아의 저항할 줄 아는 창작

프랑스 안무가인 올리비에 뒤부아는 언제나 범상치 않은 작품으로 우리를 놀라게 해왔다. 2007년 〈지상의 모든 금을 위하여〉에서는 자신의 작고 뚱뚱한 체형을 드러내면서 스트립쇼, 폴라 댄스, 자위를 연상시키는 행위로, 공연 예술을 지배해온 예술적으로 정제된 성적 묘사에 조소를 보낸다. 2008년 〈목신들의 오후〉에서는 20세기 초 '춤의 신'으로 불렸던 바츨라프 니진스키의 천재성, 광기, 동성애와 함께 당시 격변하는 시대상을 음울하고 기이하게 그려내어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이런 식으로 기존의 형식과 표현, 그리고 고정 관념을 거부하는 저항은 뒤부아의 모든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두려움 없이 덤벼들어 방법을 찾아내는 예술가'라는 평가를 받는 것도 당연해 보인다. 〈비극〉 역시 성별, 연령, 인종 등의 다름(차이)을 의식하는 데서 출발하여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을 전라에서 찾아냈다.

### 전라의 향연이 자연스러워질 때 관념적인 감흥이 몰려온다

〈비극〉은 고대 그리스 비극의 원칙에 따라, 더 구체적으로는 코러스(합창단)의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 퍼레이드, 에피소드, 카타르시스라는 세 단계로 진행되는 것이다. 다음 단계로 이행되기 전에 하나의 사건이 계기가 되도록 하고, 12음절 운율법을 12스텝으로 바꾸어 반복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그냥 무심한 듯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춤에서 우리가 탄탄함을 느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탄탄



〈비극〉의 무용수들은 각기 다양한 인간상을 상징한다

한 구조 위에 춤을 췌는 방식은 그의 전작들에서도 나타나는 바다. 막이 오르면, 무용수들은 모델 워킹을 연상시키는 '걷기'를 한다. 앞으로 쪽 걸어 나와서는 방향을 틀어 되돌아 들어가는 것이다. 이러한 걷기는 반복을 거듭하다가 '뛰기'로 발전해간다. 전라의 몸뚱이들은 무리 지어 옮겨 다니거나, 흩어졌다 모인다. 서로 부딪치고 한데 엉켜 너부러지기도 한다. 점진적으로 속도와 역동성이 고조될수록 개인의 정체성, 이를테면 성별, 연령, 인종 등의 다름(차이)은 희미해지고 무의미해진다. 이젠 열여덟 개의 전라가 하나의 추상화를 이루는 듯 보인다. 이는 각기 뚜렷한 개성을 지녔으면서도 하나의 주제를 위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룬 무용수들에 의해 더할 나위 없이 실현된다. 감추려는 것이 의식하기 때문이라면, 벗어던지는 것은 그 의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짐을 의미한다. 균열과 동요로부터 인간마다의 정체성이 확립되며 차별이나 분쟁 따위의 비극이 일어난다. 이는 함께 살아가는 우리 사이에 관계를 돈독히 함으로써만 해소할 수 있다. 즉 우리 모두가 같은 인간이라는 본연의 의미를 깨달을 때 다름(차이)은 사라져갈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전라가 이야기하는 호기심이나 관음, 혹은 혐오는 90분간의 향연을 통해 서서히 무더져간다. 전라의 향연이 태초의 것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질 무렵 관념적인 감흥이 몰려온다. **박남우**



안무가 올리비에 뒤부아

# 육체는 세상의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다



# Olivier Dubois

댄서이자 안무가인 올리비에 뒤부아를 언급할 때, 작품보다 먼저 회자되는 것은 그의 지나치게 건장한 체격이다. 170cm가 채 안 되는 작은 키에 80kg이 넘는 몸무게의 소유자인 그는 외국의 한 언론이 언급했듯 무용수라기보다는 “레슬링 선수에 가까운” 포동포동한 몸매에, 심지어 뱃살도 있다. 실제로 무대에서 그의 존재감은 댄서와는 거리가 멀다. 몇 년 전 그와 함께 작품을 만들었던 안무가 얀 파브르는 바로 앞에 앉아 있던 그를 못 알아보고 “댄서는 아직 안 왔냐”고 한참을 찾았다고 한다.

1972년생이니 마흔을 넘어선 그의 나이를 고려하면 이런 몸매를 세월의 흔적이라며 관대히 봐줄 수도 있을 것 같다. 한데 여기서 반전은, 젊은 시절 그의 몸매 또한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점이다. 인터뷰에서도 대답했듯, 그가 춤을 추기로 결심한 것은 매우 늦은, 대학을 졸업할 무렵의 일이었다. 학창 시절에만 해도 그는 외교에 관심이 많은 중국학 전공 대학생이었다. 졸업 후 콜마르에 살던 그가 갑자기 춤을 배우겠다고 파리로 상경하자 그의 부모는 1년간 레슨비와 생계를 지원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어머니는 한 마디 토를 다는 것을 잊지 않았다. “내가 예전부터 얘기했잖니. 너는 무용을 할 수 있는 몸매가 아니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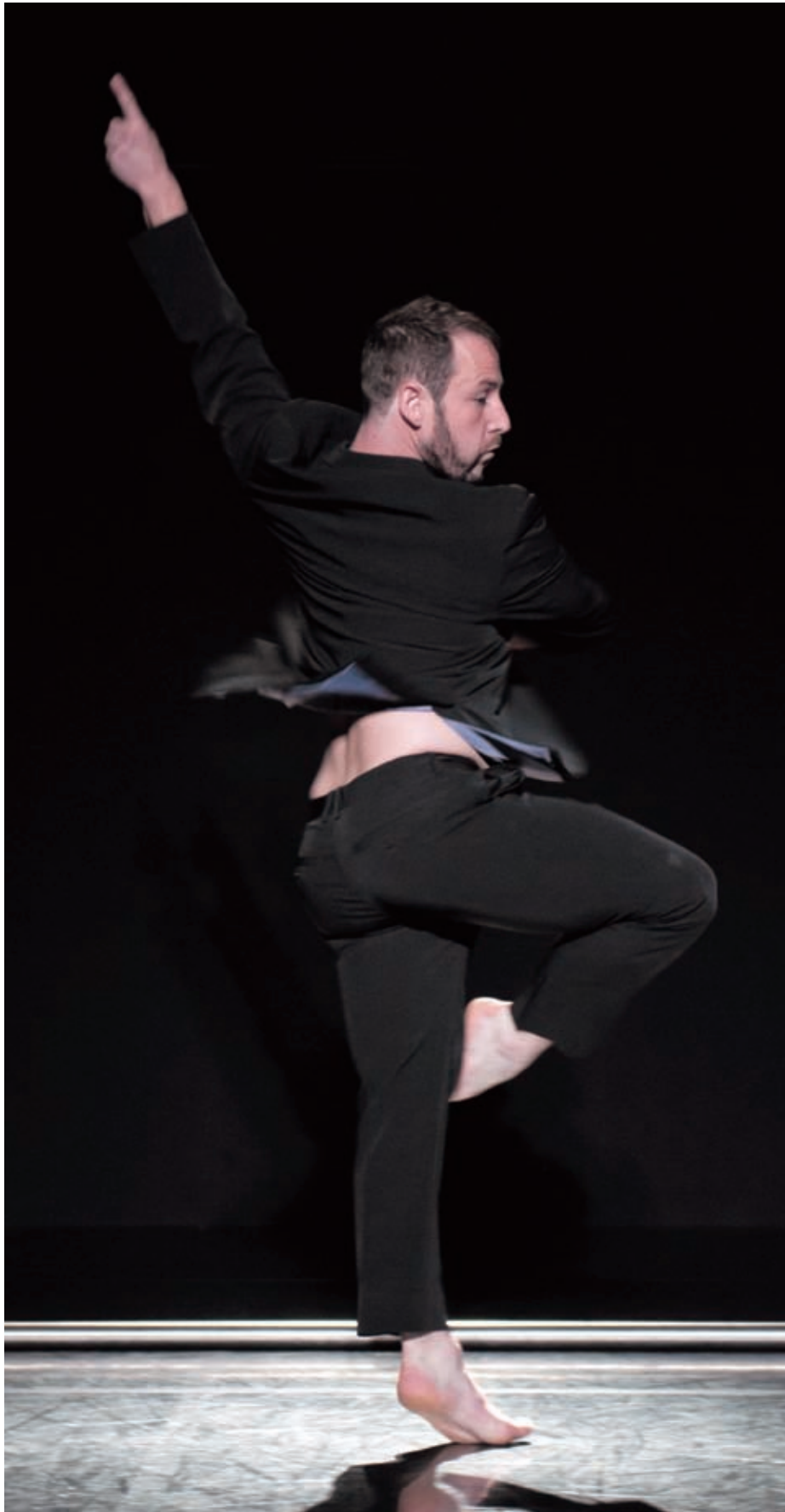
## 자유와 일탈을 꿈꾸다

자식의 미래에 대해 비판적이면서도 아낌없이 지원해준 부모의 심정은 어떤 것이었을까. 다행히 뒤부아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 몸매

인터뷰 + 글 노승림 칼럼니스트, 영국 워릭대 문화정책 박사과정







2008년  
서울국제공연예술제에서 선보인  
〈목신들의 오후〉

야 어떻게 스물세 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도 불구하고 그는 발레를 비롯한 각종 테크닉을 무리 없이 소화해내며 선생들의 인정을 받았다. 그로부터 반년 뒤, 그는 한 무용단에 오디션을 통해 입단했으며 10년이 넘게 프로 무용수로 활동했다. 실제로 2007년 첫 내한공연 당시 그는 무용수로 처음 한국 관객들에게 소개되었다. 그의 첫 안무작이기도 한 〈지상의 모든 금을 위하여 Pour tout l'or du monde〉가 안무가 스스로의 춤으로 서울국제공연예술제 무대에 올랐다. 이후 2008년 서울국제공연예술제는 다시 〈목신들의 오후〉를 초청했으며, 3년 뒤인 2011년 부산국제연극제는 그의 또 다른 안무작 〈프랑크 시나트라와 음악과 사랑〉을 선보였다. 매년 그의 작품이 무대에 오를 때마다 한국 공연계는 “대단히 충격적이고 창의적인 발상”이라는 호평에서부터 “그것도 춤이나”는 호평에 이르기까지 반응이 극단을 오갔다. 이번 내한공연 〈비극〉은 18명의 무용수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나체로 작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소화한다는 측면에서, 다시 한 번 뒤부아 센세이션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 네 번째 방한을 앞둔 그와 교환한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이 문제적 안무가가 지닌 자유롭고 일탈적인 사상을 일부나마 엿볼 수 있었다.

❓ 무용수이자 안무가가 된 동기는?

▲ 답변하기 굉장히 힘든 질문이다. 솔직히 말해서 나의 어린 시절은 예술계와 거리가 멀었다. 춤을 추기 시작한 것도 굉장히 늦은 나이인 스물세 살 때 일이었다. 왜 예술가로서 인생을 살기로 결정했냐고 묻는다면, 신비로운 이유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지금에 와서는 진짜 설명이 불가능하다. 다만 춤을 추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안무가가 된 것 또한 기적에 가깝다. 국제 아비뇽 페스티벌에서 솔로 댄스를 위한 작품을 하나 만들어보라고 제안을 받았고(2007년 한국에서도 공연한 〈지상의 모든 금을 위하여〉가 바로 그 작품이다), 이후

로는 모든 커리어가 매우 신속하고 순조롭게 풀렸다. 첫 작품이 이후 더 많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든든한 계기가 되어준 것이다.

❓ 당신의 무용단은 어떤 과정을 거쳐 창단된 것인가? 동기라든가, 단원 선발의 측면이 궁금하다. 또 본래 무용단의 이름은 〈올리비에 뒤부아 컴퍼니〉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레 뒤 노르〉로 바꾼 이유는 무엇인가?

▲ 2007년 〈목신들의 오후〉(이 작품도 2008년 서울에서 선보였다) 작품을 위해 만든 단체가 내 무용단 〈올리비에 뒤부아 컴퍼니〉이다. 내 작품의 공식적인 형태를 선보이기 위해서 나만의 무용단은 불가피하게 필요한 것이라 생각했다. 〈발레 뒤 노르〉(루베 국립 안무 센터)는 〈올리비에 뒤부아 컴퍼니〉와 전혀 다른 단체로, 2013년 내가 예술감독으로 임명된 국립 단체다. 이 무용단은 내가 지명되기 전까지 미국 안무가 캐럴린 칼슨이 이끌고 있었다. 현재 나는 80여 명의 무용수로 구성된 이 어마어마한 단체를 위해서 작품을 만들고 있다. 내 작품을 위한 댄서들을 선택할 때, 그들의 몸매는 내게 고려 사항이 아니다. 특별히 선호하는 체형은 없으며 그저 춤을 추는 남성, 여성 무용수라면 족하다. 다만 내 작품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놀라운 기술과 기교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내가 그 밖에 중요하게 여기는 점이 있다면 내 작품을 위해서 비전과 두뇌, 그리고 독특한 개인사를 가진 아티스트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 예전에 무용수였던 경력을 되살려보면, 무용수와 안무가의 가장 이상적인 관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무용수들과 소통하는 당신만의 독특한 방식이 있다면?

▲ 이상적인 방식은 없고 나만의 방식은 있다. 나는 모두에게 현재 작업 중인 작품에 집중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한다. 그들이 나로부터 어떤 해답이나 신뢰를 얻고자 기대하지 않기를 바라며, 다만 우리 모두가 하나의 작품을 함께 만들고 있다는 데에 그 가치를 두기를 바란다.



©Tommy Pascal

뒤부아의 안무작  
(목신들의 오후)(왼쪽)와 <지상의 모든 금을 위하여>.  
뒤부아는 작품 속에서 자신의 작고 뚱뚱한 체형을 드러내면서 스트립쇼, 폴댄스, 자위를 연상시키는 행위로, 공연 예술을 지배해온 예술적으로 정제된 성적 묘사에 조소를 보낸다

라벨의 <볼레로>를 사용한 <Revolution>.  
이 작품에서 뒤부아는 명백하고 강박적이다 못해  
취면적인 무대를 선사한다. 파도처럼 밀려왔다 밀려오는  
동작 속에 얼어붙은 명의 남녀는 녹아들고 사라지며,  
이들 사이에 발생하는 마찰은  
마치 소동 같은 균열을 빚어낸다

내 작품은 무용수들이 버거워할 정도로 극단적인 육체적 능력을 요한다. 때문에 그들 모두가 전력을 다해 작품에 몰입할 수 있도록, 무용수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

Q 댄서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A 변형metamorphosis이다. 전혀 다른 육신으로 변하는 것, 신성하고도 무시무시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Q 당신의 안무는 정통 클래식에서부터 테크노, 팝송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음악을 아우른다. 음악을 어떤 방식으로 선택하는가? 동작과 소리를 어떤 식으로 결합시키는지 궁금하다.

A 나는 음악을 위해 작품을 만들지는 않는다. 음악은 다만 나의 작품을, 내가 관객들과 공유하고 싶은 문제적인 요소들을 부각시켜주는 보조 역할을 담당할 뿐이다. 가령 내가 안무한 <혁명Revolution>에 라벨의 '볼레로'를 사용했지만, 나는 작품 제목을 '볼레로'가 아닌 '혁명'으로 명시했다. 내게 음악은 작품의 일부일 뿐 그 이상이 아니다. 특별

하면서도 익숙한 이유들로 인해, 내 작품 속 이야기들은 반드시 언급해야 할 무엇이 아니라 그저 사용하거나 질문을 던지기 위한 도구로서 존재한다.

Q 당신의 3부작을 함께 작업한 작곡가 프랑수아 카펜에 대해 얘기해달라. 어떻게 만나게 되었으며, 어떤 방식으로 아이디어와 작품을 공유하는가?

A 프랑수아 카펜과 나는 무용단을 처음 창단할 때부터 쪽 함께 일해왔다. 그는 나의 예술적 동반자로, 안무를 음악적으로 공명시키는 것은 물론 그 반대도 가능한 인물이다. 작품을 만들 때, 보통은 댄서들과 스튜디오에서 함께 작업하기 전에 그와 함께 음악 작업을 먼저 시작한다. 우선 그와 함께 음악을 구성한 뒤, 안무를 짜는 동안 프랑수아가 안무에 맞춰 이미 만들어진 기본 음악적 구성을 변형시키고, 소리를 죽이고, 적용하는 방식으로 작업이 진행된다.

Q 이번 내한 작품인 <비극>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가? 니체의 『비극의 탄생』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들었는데,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한다.

A <비극>은 인류에 의해 인간성humanity이 거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바로 그 점에 인간의 비극이 존재한다는 단순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인간성은 노력과 양심, 호기심, 그리고 지성을 통해 완성된다. 또한 나는 육체로부터 세상을 읽을 수 있고, 그로부터 세상의 수수께끼와 인간성을 이해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다. 이 작품과 관련해 니체, 그리스와 프랑스의 비극 작품들, 시몬 드 보부아르, 성씨에 대한 연구 등등이 나의 머릿속을 일부 차지하고 있지만, 절대적으로 비극적이지만은 않다. 비극은 그 자신만의 질문과 사상, 딜레마, 전쟁과 평화, 어둠과 빛을 수반한다.

Q <비극> 공연을 위해 왜 '나체'의 무용수들이 필요한 것인가? 누드를 통해 당신이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

A <비극>은 나체 무용수들에 의해 공연되지만, 작품 중 '나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언급되지 않는다. 그 증거로, 그들은 작품 처음부터 끝까지 옷을 입지 않는 누드로 무대에 서지만 아무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는다. 다만 나체를 통해 육체의 정치적 개념을 불러들인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다. 나는 저마다의 육체가 세상의 수수께끼를 품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

Q 성남아트센터에서 상연되는 <비극>은 아시아 초연이다. 아시아는 서양과 정서가 많이 다르고, 특히 나체 공연에 대해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 이런 정서 속에서 <비극>은 상당히 극단적이면서도 급진적인 작품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한국에서 어떤 반응을 예상하고 있는가?

A 아무것도 예상하지 않는다. 단지 <비극>이 관객들에게 어떻게 보이고 느껴질지 몹시 궁금할 따름이다. 한국 입장에서 <비극>을 초청하는 데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라 보며, 덕분에 개인적으로는 이 작품을 가지고 한국에서 네 번째 공연을 갖는 영광을 얻었다. 물론 한국 관객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배울 기회가 될 거라 생각한다.

Q 당신의 작품을 고대하는 한국 팬들에게 남기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A 늘 호기심을 가지길 바란다. 즉,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남과 다른 것에 흥미를 가지고, 자신의 생각대로 세상을 살아가길 바란다. **하도**



전라의 춤을 둘러싼 담론

## 벗은 몸의 태생적 비극: 그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 Art or Obscenity

프랑스 파리의 대표적 현대미술관인 오르세 미술관에서 지난해 5월 작은 소동이 일어났다. 그 소동은 프랑스 사실주의 화가 귀스타브 쿠르베의 작품 중 하나인 <세상의 기원> 앞에서 그 그림을 재현한 어느 행위예술가 때문이었다. 제목을 보고 그림을 바로 떠올린 독자라면 이 그림을 실제로 재현한다는 것이 단순 재현에 그치지 않는 것임을 바로 짐작했을 것이다.

쿠르베의 <세상의 기원(L'Origine du monde)>은 여성의 음부를 적나라하게 극사실적으로 묘사한 그림으로 발표 당시에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작품이다. 그런데 바로 그 작품 앞에서 룩셈부르크 예술가 데보라 드 로베르티스(Deborah de Robertis)가 작품이 묘사한 것을 실제로 재현한 것이다. 짧은 금빛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그림 앞으로 다가와 그 앞에 앉아서 바로 그림과 같은 포즈를 취한다. 그 장면을 본 미술관 관계자는 바로 그녀에게 다가가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듯 보이더니 그녀의 중요 부위를 가리고 서서 행위자와 관객 간의 차단을 시도한다. 주변에 몰려든 관객들은 박수를 치기도, 그리고 촬영을 하기도 한다. 이 짧은, 그러나 충분히 충격적인 행위에서는 '차단하려는 자'와 '환호하는 자'의 두 가지 사회적 해석이 생겨난다. 과연 그녀는 대중 앞에서 외설적 행동을 서슴지 않은 노출증 환자인가? 아니면 대작가의 작품에 대한 오마주 예술을 펼친 예술가인가?

글 황보유미 공연칼럼니스트 + 그림 조성현

### 왜 벗는가?

참으로 예술의 세계에선 일반인인 우리가 이해하기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 극도로 터부시되는 '몸', 더군다나 '벗은 몸'과 관련된 것이라면 이 이야기는 한층 더 복잡해진다. 공연장에서 유난히 정신이 또렷해지고, 평소에는 소리가 나는 줄도 몰랐던 내 침 삼키는 소리와 심장 박동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때가 있다. 당신은 언제 그러시는지?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필자에게는 무대에 '벗은 몸'이 등장할 때다. 그때 내 의식은 옆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한다. 소리가 날까 봐 침도 못 삼키고 최대한 숨을 죽인 채 무대를 응시한다.

물론 '벗은 몸'에 대한 호들갑이 덜한 유럽에서 같은 성격의 무대를 접할 때에는 필자도 좀 더 여유로워진다. 무대에 다 벗은 무용수가 등장했다고 해서 누구도 긴장하지 않으니까. 문화권역마다 그 문화가

지니는 고유 성격에 따라 '나신裸身'에 대한 다른 층위의 사회적 해석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 각기 다른 문화 사이를 오가는 이 중 아니면 다중 잣대의 교육을 받은 나와 같은 '끼인 세대' 중, 이 땅에서 침 삼키는 소리가 날까 옆 사람을 의식하는 것은 과연 나뿐일까.

한국에 들어온 외국 작품들 중에서 '벗었다'는 사실만으로 화제가 된 공연들이 많았다. 하지만 작품의 완성도를 알리고, 관객과 공유하는 등의 예술을 감상하는 본래의 목적과 상관없이, 속된 말로 '장사를 잘하기 위해' 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 기획사들이 홍보를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영화가 특히 '벗었다'는 소문만 나면 관객의 이목을 끄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물론 티켓이야 잘 팔리겠지만 작품 자체에 대한 예술적 성취를 인정받기엔 요원한 일이 된다.

그러나 그것도 한계치가 존재한다. 피나 바우슈의 <봄의 제전>이 1979년 우리나라 첫 내한 공연을 할 당시와 국립무용단의 신작 <단







壇)〈안성수 안무〉이 발표된 2013년을 비교할 때 우리 관객들의 정신적 성숙도의 간극은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壇〉에서 상의 탈의를 한 여자 무용수들의 몸에 화제가 집중되고, 다른 무용단도 아니고 국립무용단이 옷을 벗는 작품을 공연하는 것은 무용단 품위에 문제가 있다고 일부에서 지적을 했던 것은 아직도 ‘예술 작품’에 대한 본연의 해석과 상관없이 타인, 즉 사회적 이목을 중시하는 ‘품위’에 우리 예술 표현이 갇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애매와 모호 사이, ‘예술’과 ‘외설’

그렇다면 ‘벗은 몸’을 두고 ‘예술’과 ‘외설’ 간의 경계를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 ‘외설’의 목표는 단 하나다. 인간의 말초적 신경의 자극에만 관심이 있다. 본질이 아닌 부차적인 것에 목표를 두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술’은 하나의 답을 내기 위해 움직이지 않는다. 다양한 인간 존재의 정의할 수 없는 다양한 감정과 관계 등을 재현한다. 그것이 극한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거나, 사회적 문제 제기를 하거나, 혹은 극단의 혐오감을 재현하기도 한다.

‘예술’의 창조에 대한 본질적 논의로 들어가자. 예술의 각 장르는 다양한 질료를 가지고 창조하는 인간의 미적美的 활동이다. 그중 ‘무용’이란 장르는 인간의 몸을 그 재료로 한다. 무용에서 인간의 몸은 예술의 가장 주요한 재료이다. 그 주재료로 다양한 움직임을 만들어내면서 창작을 할 때 함께 고민하는 중요한 것이 무용수들의 의상이다.

무용수들의 의상은 작품 전체의 주제를 형상화하는 요소로서 큰 작용을 한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그 사람의 사회적 배경을 알려주는 정보로서 기능한다. 그가 누구이고, 어떤 문화적 배경을 가졌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단서인 것이다. 무용 작품에서 무용수들이 입은 의상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안무가나 의상 디자이너는 창작하고자 하는 작품의 주제를 형상화하기 위해 무용수들의 의상을 잘라내기도, 덧붙이기도, 기괴한 탈을 뒤집어씌우기도, 또는 아예 벗겨내기도 한다. 그래서 마지막의 경우 단순히 ‘벗었다’가 아니라 ‘왜 벗었는가’가 작품의 전체적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이때 벗었다고 무조건 ‘외설’이 아니듯, 역으로 무용 작품에서 무용수들이 나신으로 등장한다고 거대한 철학을 뒤에 얹고 있다고만 해석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벗음’은 작품의 전체적 맥락 안에서 정치精緻하게 작용되고 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무용 작품을 예로 살펴보면 지리 킬리안Jiri Kylián의 〈벨라 피구라 Bella Figura〉에서 인간의 벗은 몸은 극한의 아름다움을 재현한다. 반면, 2012년 아비뇽 페스티벌에서 초연된 올리비에 뒤부아의 〈비극 Tragédie〉은 18명의 무용수가 등장해 성별, 인종, 연령에 따라 다양한 신체적 특징을 드러내는데 여기에서 무용수들의 벗은 몸은 안무가가 얘기하듯 ‘비물질적 인간성의 가시화’를 위한 하나의 텍스트로서 작



용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벗은 몸’을 통한 ‘미적 체험’보다는 ‘인간성’ 자체의 진실을 직시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반면 이탈리아 영화감독 피에르 파올로 파올리니Pier Paolo Pasolini의 〈살로 소돔의 120일〉<sup>976</sup>에서는 벗은 육체는 ‘미감美感’의 대척점에서 그 작용을 한다. 똑같이 벗은 육체가 등장하지만 여기에서 ‘벗은 몸’은 인간의 극한의 혐오감을 자극하는 재료로 사용된다. 적나라한 성 묘사를 통해 감독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아름다움’보다는 프롤레타리아와 특권 계급의 파시스트적 형태에 대한 ‘혐오감’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몸은 어디에 있는가? 사라지고 없다. 더군다나 ‘외설’적 해

석이 끼어들 여지는 어느 틈에도 없다.

앞의 이야기로 돌아가자. 퍼포먼스를 중단할 생각이 없어 보였는지 미술관 관계자들은 급기야 관객들을 내보냈고 그 행위예술가는 경찰에게 인도됐다. 경찰에게 밝힌 그녀의 변辨은 “이 행위는 ‘노출증’과는 상관이 없다. 8년간 숙고해온 퍼포먼스이다”라는 것이었다. 경찰은 결국 이 행위예술가의 행위를 무혐의 처리하고 훈방했다. 미술관 관계자의 퍼포머와 관객 사이의 차단 시도는, 어떤 예술적 해석을 위한 시간적 여유 없이 단순히 반사적으로 미술 작품 앞에서 벌어질 수 있는 돌발적 행위를 막거나 대중 앞에서의 벗은 몸은 가려야 한다는 본

능적 판단에서였을 것이다. 후에 이 깜짝쇼를 촬영해 퍼트린 관객으로 인해 우리에게는 숙제가 남는다. 적나라하게 자신의 주요 부위를 노출한 이 행위예술가의 행위는 ‘예술’인가, ‘외설’인가. 영원히 ‘애매’와 ‘모호’ 사이에서 헤매는 것이 ‘벗은 몸’의 태생적 비극tragédie일지도 모르겠다. **한지우**

글을 쓴 한지우는 국립발레단 기획홍보팀 차장을 거쳐 현재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국제교류사업본부 지식정보팀장,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무국 운영팀장을 겸직하고 있다. 주요 매체에 무용을 비롯한 여러 공연의 글을 기고하며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기도 하다.





# Tragédie

안무  
올리비에 뒤부아  
Olivier Dubois

# 비극

금 20:00 / 토 15:00

2015. 4.10<sup>Fri</sup> - 4.11<sup>Sat</sup>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관람료 | VIP 70,000원 R 5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관람연령 | 만 19세 이상 (1996.4.10 이전 출생자 / 고등학교 재학생 관람불가 / 신분증 지참)

문의 | (재)성남문화재단 031-783-8000 예매 | 인터파크 1544-8117 www.interpark.com

주최·주관 | 성남문화재단 제작 | Ballet du Nord 프랑스 국립안무센터-발레 뒤 노르 후원 | PRAXTEIXIS



## VIEW

성남아트센터에서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무대와 프로그램, 그리고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다채로운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 PREVIEW

뮤지컬 <그날들>

### INTERVIEW

성남문화재단 이상균 예술국장·김보성 문화진흥국장

뮤지컬 <그날들>  
故 김광석의  
노래로  
위로받는  
그날의 이야기

1996년 1월 6일 '영원한 가객' 김광석은 우리 곁을 떠났다. 그 후 19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의 음악을 듣고 부르며 추억을 곱씹고 헛헛한 마음을 위로받는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기억 속에서 더 진해지고 뚜렷해지는 故 김광석의 음악. 그 음악이 주는 여운으로 가득한 주크박스 뮤지컬 <그날들>이 오는 3월 21일과 22일 성남아트센터에서 공연된다.

글 정세원 공연칼럼니스트



01  
<그날들>의 한 장면.  
청와대 경호실을 배경으로  
이야기는 펼쳐진다



뮤지컬 <그날들>(극본·연출 장유정)은 지난해 4월 김광석 탄생 50주년을 기념해 세상에 태어났다. '이등병의 편지' '서른 즈음에' '사랑했지만' '먼지가 되어'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부치지 않은 편지' '나의 노래' 등 극의 곳곳을 그의 음악으로 채운 이 작품은 독특한 배경 설정과 캐릭터, 미스터리가 섞인 스토리가 정교하게 어우러져 평단과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덕분에 <그날들>은 객석 점유율 96%를 달성하며 총 관객 14만 명을 돌파하는 성과를 남겼고, 창작 초연 뮤지컬로는 이례적으로 초연 공연에서 손익분기점을 넘겼다. 또한 제19회 한국 뮤지컬 대상 '베스트 창작 뮤지컬상' '연출상', 제7회 더 뮤지컬 어워즈 '올해의 창작 뮤지컬상' '극본상' '남우 신인상', 제7회 차범석 희곡상 '뮤지컬 극본상' 등을 거머쥐며 흥행성과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그날들>을 쓰고 연출한 장유정 연출가는 "인생의 어려운 시기마다 김광석의 노래가 우리를 위로해줬다. 하지만 우리는 일찍 생을 떠난 그를 지켜주지 못했다.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미안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을 위로해주는 이야기를 만들고 싶었다"고 작품의 의도를 밝힌 바 있다. 이 작품이 청와대 경호원들을 주인공으로 삼고 있는 것 역시 지켜주고 싶은 마음을 담은 섹이다.

공연은 한중수교 20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삼엄한 경계 태세를 갖추던 경호부장 정학이 대통령의 딸 하나와 수행 경호원 대식이 함께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시작된다. 두 사람을 찾던 정학은 1992년에 있었던 어느 실종 사건을 떠올리게 된다. 라이벌이자 친구였던 동기 무영과 그들이 처음으로 경호하던 '그녀'가 함께 실종되었던 그날을. 이후 이야기는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전개되고, 무대 위에서는 하나와 대식을 둘러싼 2012년의 사건, 20년 전 무영과 그녀에게 일어난 일들의 정황이 차례로 드러난다. 기억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 회전하는 무대와 영상, 인물을 흐릿하게 만드는 실 커튼 등이 아련하면서도 미스터리가 가미된 사건을 전개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여기에 인생의 회한을 느낀 정학의 '서른 즈음에', 어쩔 수 없이 그녀를 떠나보내는 무영의 '사랑했지만' 등 스토리와 어우러져 무대를 채우는 故 김광석의 주옥같은 노래 26곡이 애뜻한 울림을 더해준다. 초연 당시 12인조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과감하게 편곡돼 호불호가 갈렸던 음악은 재공연을 앞두고 한층 다이내믹하게 업그레이드돼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다. 곳곳에서 원곡의 서정성이 강조된 부분도 관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힘을 더해준다.

성남 공연에서는 유준상, 이진명, 강태율이 냉철하고 철두철미한 원추직위자 차정학 역으로, 드라마 <힐러>로 인기몰이 중인 지창욱과 오종혁, 강승대가 워트 넘치고 자유로운 영혼을 지닌 강무영 역으로, 배우 신다은이 신원을 알 수 없는 피경호인 그녀 역으로 출연한다. **하트**



일시 3월 21일(토)~22일(일)  
장소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문의 1544-1555





## 성남문화재단 이상균 예술국장·김보성 문화진흥국장 문화예술의 성남시대, 함께 만들어갑니다

지난 1월 4일, 성남문화재단 시무식에서는 새롭게 부임한 이상균 예술국장과 김보성 문화진흥국장이 직원들과 첫 만남을 가졌다. 성남아트센터 개관 10주년을 맞이하는 2015년, 문화예술계에서 폭넓은 이력을 쌓아온 두 전문가의 합류로 성남문화재단은 제2의 도약을 위한 든든한 기반을 구축하게 됐다.

성남문화재단 정은숙 대표이사와 함께 성남문화재단의 새로운 비전인 '품격 있는 예술, 참여하는 생활문화'를 만들어나갈 두 주역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글 남소연 성남문화재단 홍보미디어실 과장 + 사진 최재우

### 모두를 위한 품격의 예술

☞ 올해는 성남문화재단 설립 11주년과 성남아트센터 개관 10주년을 맞이하는 의미 깊은 해인데요, 이렇게 두 국장님께서 직원들과 함께해주시게 되어 참 든든한 기분이입니다. 그동안 문화예술계의 곳곳에서 두 분의 활약을 익히 지켜보았습지만, 오늘은 <아트뷰> 독자들을 위해 그동안의 이력과 성남문화재단에서 만들어가실 포부를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두 분께서 어떤 계기로 문화예술의 길로 향하게 되셨는지 궁금한데요.

**이상균** 저는 대학에서 독어독문학을 공부하던 시절 우연히 연극의 매력에 푹 빠졌어요. 결국 대학원을 마친 뒤 베를린으로 독일 문학과 연극을 공부하러 떠났는데요, 십여 년간 유럽의 문화수도에서 여러 장르의 예술과 문화를 풍요롭게 접할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유학 시절에는 클래식과 오페라를 주로 접해오다 귀국한 뒤 국립극장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전통 장르에 대한 눈을 떴죠. 국립창극단, 국립무용단 등을 담당하는 동안 우리 전통예술의 맛과 멋, 깊이를 제대로 깨닫고 애정을 지니게 됐어요.

☞ 국립극장에 이어 국립오페라단 공연기획팀장과 사무국장,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사업본부장까지 다양한 예술 분야를 두루 거치셨는데요.

**이상균** 국내 대형 공연장과 예술 단체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는 점, 또 클래식부터 전통예술까지 다양한 장르를 접하고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는 점에서 무척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공예 역시 생소한 분야였지만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 몸담으면서 전시 분야에 대한 폭을 넓히는 기회가 됐죠. 국내외 아트페어와 공예촌을 다니면서 안목도 키우고, 자연스럽게 공공 디자인에 대한 관심을 키울 수 있었던 시기였어요.

☞ 현재 성남문화재단의 조직은 크게 경영국과 예술국, 문화진흥국의 3국 체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중 예술국의 역할에 대해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상균** 예술국은 성남아트센터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남아트센터의 공연장과 미술관이라는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재단의 비전처럼 다양하고 품격 있는 예술을 선보여드리는 거죠. 이 '품격'이란 단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요, 수십 년 세월의 기량을 담아낸 예술, 그 속에 담긴 고상함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미래지향적이고 파격적인 예술을 뜻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예술' 자체가 항상 그런 길을 걸어온 존재이기도 하고요. 오페라나 발레처럼 테크닉이나 완성도에서 완벽함을 지향해야 하는 예술은 그 특성을 살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새로운 지향점을 바라봐야 하는 예술은 그런 예술성을 다듬어 관객에게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균  
예술국장

셈인데, 우리가 자력으로 공연장을 채워나가야 재단의 재정 자립도 상승에 도움이 되거든요. 이를 위해서 마케팅을 적극 강화할 생각입니다. 직원들을 위한 마케팅 소양 교육도 진행하고 전담 인력도 충원하는 식으로 순차적으로 실현시키려 해요. 적당한 템포로 가되 일정한 방향을 꾸준히 지향해야겠죠. 지나치게 빠른 변화는 오히려 구성원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❶ 올해 예술국의 비전으로 '역동적인 기획'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셨는데,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균** 사업 기획, 그리고 조직까지 모두 생동감을 불어넣어서, 적극성과 자주성을 가지고 진취적으로 기획하는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성남아트센터는 전속 단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제작 극장을 지향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제작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예산은 물론이고 구성원의 능력이 필수적이거든요. 극장 스스로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자질입니다.

오페라나 연극, 무용 같은 기존 사업들의 장르적 배치에 대한 균형은 물론이고, 사업 규모를 넓혀서 같은 장르라도 공연의 편수나 횟수를 증가시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화제성 면에서는 새로운 사업이 물론 큰 도움이 되지만, 기존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 역시 중요한 부분이기도요.

❷ 2015년에는 프랑스로립안무센터 - 발레 뒤 노르의 파격적인 무용 <비극>, 제작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쾰른 서독일방송교향악단의 내한 공연 등 굵직한 화제작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특별히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이슈가 있을까요?

**이상균** 아직 확정된 사업은 아니지만, 성남이 지닌 관광자원과 랜드마크를 활용한 프로그램은 어떨까 해요. 예를 들어 남한산성과 율동공원 같은 곳에서 많은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양질의 축제를 진행한다면 멋진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요. 율동공원의 호수를 배경으로 한다면 오스트리아의 브레겐츠 페스티벌 못지않은 공연과 연주, 축제가 얼마든지 가능하리라는 생각입니다. 호수 주변에 수상 갤러리를 꾸며보는 것도 이색적이겠죠. 페스티벌은 행사가 진행되는 일정 기간만 관객을 만날 수 있지만 갤러리는 호수를 산책하는 시민들이 1년 내내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이니까요. 물론 시와 시민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고, 아직은 여러 아이디어 중 하나죠.

❸ 율동공원은 시민들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많이들 찾아오시는 명소인 만큼, 수상 갤러리와 같은 아이디어가 실현된다면 자연 속에서 예술을 친밀하게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되리라는 기대가 됩니다. 최근 수년간 여름마다 중앙공원에서 진행되는 파크 콘서트가 시민들의 큰 사랑을 받아왔는데,

❹ 예술국장으로서 공연과 전시 사업을 이끌어 나가실 책임을 지고 계신데요, 예술국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일까요?

**이상균** 가장 우선시해야 할 점은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 잡힌 추구겠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배분하고 지향할 것인가는 어느 공연장이든 중요한 고민거리일 거라고 생각해요. 대표이사님과 제 의견만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재단 직원들과 충분한 공유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재정 자립도의 적정한 수준이라면 직원들이 체감하며 찾아낸 적정치가 있어야겠죠. 너무 높거나 낮지 않게, 실제로 실현 가능한 지점을 찾는 것이 1차 과제라고 봐요. 성남아트센터의 사업에 국한시켜서 얘기한다면, 현재 자체 사업 규모는 공연장의 하드웨어에 비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살펴보니 아직 자력으로 공연장을 채울 수 있는 횟수가 1년에 40일 남짓인

혹시 겨울에도 시민들과 함께하는 이벤트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상균** 겨울철 놀 거리는 대개 스키를 비롯한 동계 스포츠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문화예술이 중심을 이룬 페스티벌이 딱히 없다는 점을 떠올리면 윈터 페스티벌도 나름대로 잠재력이 있다고 봐요. 온 가족과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문화와 예술로 빚어낸 볼거리와 놀거리, 즐길 거리를 마련하는 거죠. 예를 들면 분당구청 앞 넓은 잔디밭과 같은 장소에 말이죠. 성남을 찾는 누구나 수준 있는 겨울 축제를 즐길 수 있다면 참 멋진 일 아닐까요?

❶ 성남아트센터 개관 10주년을 맞이한 올해,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상균** 성남아트센터는 당시 많은 화제를 모으면서 화려하게 탄생한 공간이었습니다. 그 활동이 10년 동안 꾸준히 이어져왔고, 많은 부분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공연장으로 잘 자리 잡았다고 봐요. 이제 다가올 10년 동안 새롭게 융성과 반등의 기회를 가져야겠죠. 저는 성남문화재단의 발전이 곧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발전이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직원 모두의 노력으로 재단이 발전한다면, 이것이 곧 문화예술의 발전에도 기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마을 속으로, 시민 속으로

❶ 김보성 문화진흥국장님께서 그동안 현장에서 끊임없는 활약을 이어오신 문화정책 전문가로 명성이 높으신데요, 경기문화재단 기전문화대학 학장, 마포문화재단 대표이사과 같은 화려한 경력의 바탕에는 1980년대를 풍미한 '노래운동가'로서의 이색적인 이력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故 김광석 씨의 '끝나지 않은 노래'를 비롯해 많은 음악을 작곡하기도 하셨죠?

**김보성** 서울대 시절 노래패 '메아리' 활동이 인연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노래패를 거치면서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창단 멤버로 1집 음반을 함께 제작하며 노래하고 기타를 연주했죠. 노동 현장에서 용접공 생활도 8년 가까이 겪으면서 박노해 시인의 시에 곡을 붙인 '시대의 꿈' '대결'과 같은 민중가요를 작곡하기도 했고요. 1992년도에 다시 문화관에 복귀하면서 노찾사 대표를 맡았어요. 노찾사 사무국을 주식회사 다음기획으로 바꾸면서 초대 대표를 맡았고, (주)다음기획은 권진원이나 이정열 등 민중가요 출신 솔로 가수를 비롯해 김광석, 안치환, 윤도현, 김제동, 강산에 등등 많은 예술인들과 교류하고 직접 매니지먼트를 하기도 했죠.

❷ 예술인에서 그 예술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한 정책가로 변신을 거듭하신 셈이네요.

**김보성** 원혜영 부천시장 시절에 <문화도시 부천 만들기> 프로젝트에 문화정책 전문위원으로 합류했는데,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자리



김보성  
문화진흥국장

매김하면서 조금씩 영역이 넓어졌죠. 경기문화재단 기전문화대학 학장 시절에는 교과 내 수업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군부대 문화예술교육을 비롯해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데 관심이 많았어요. 중앙정부보다 2년 먼저 문화예술 정책을 통해 많은 사례를 만들었던 셈이죠. 이렇게 문화예술 진흥 영역의 활동에 집중하다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 초대원장으로 부임해 문화콘텐츠를 산업화하는 정책과 업무를 경험하기도 했고요.

또 정지용 선생의 생가가 있는 충북 옥천에서 진행한 향수 30리 프로젝트도 기억에 남아요. 일종의 커뮤니티 아트 작업이었는데요, <모단스쿨>이라는 문화학교를 통해 마을 주민들을 지역 활동가로 성장시키는 작업이었어요. 요즘 유행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전신이라 볼 수 있는 사업이었죠.





❶ 성남문화재단에 부임하신 지 2개월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문화예술진흥의 영역과 문화산업의 영역을 폭넓게 오가신 전문가의 입장에서 살펴본 성남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김보성** 성남문화재단에 직접 와서 보니, 이제명 성남시장님의 시정 방침과 서로 협조하는 분위기의 시의회, 지역의 각 분야 문화 NGO 역량들, 사랑방문화클럽 등 생활예술의 기반이 충분히 잘 닦여 있다는 느낌입니다. 21세기는 커뮤니티 아트와 생활예술의 시대라고들 하는데요, 예술향유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한편으로는 예술창작자로 예술을 경험하며 완성하는 것이 커뮤니티 아트의 핵심입니다. 생활예술의 시대를 맞아 시민들의 지역예술활동을 돕는 성남문화재단의 역할이 중요한 까닭이 여기에 있죠. 제가 그동안 경험한 모든 부분들을 다채롭게 아우르며 발전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막중합니다.

❷ 성남의 특성이 돋보이는 축제 개발에 대한 논의도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데요,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축제의 방향이 있으신지요?

**김보성** 성남의 고유성을 지닌 축제를 만드는 작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는 힘들어요. 브라질의 삼바 축제, 일본 우타고에 축제를 비롯해 세계 축제의 성공사례를 살펴보면, 주민들의 자발적인 동력으로 일어난 축제가 결국 상권도 발전시키고 주민 스스로도 즐거워하며 성장하는 경우가 절대적이지요. 성남은 우선 사랑방문화클럽축제로 확보한 생활문화 브랜드 선점 효과를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를 기본으로 한 생활예술축제, 혹은 성남 대표적 브랜드인 모란시장을 활용한 전국 유명 장터축제를 만들 수도 있겠죠. 장터축제의 경우 물산축제와 예술축제의 특성을 함께 담아낸 일종의 융합형 축제의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을 테고요. 현재성을 담은 축제로서는 판교ICT밸리를 활용해 게임 축제 <지스타>, 혹은 미디어아트 등 새로운 하이테크놀러지 개념의 축제를 만들 수도 있어요. 성남의 브랜드와 장소성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현대적 개념의 지역 축제를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❸ 문화진흥국에서 꼭 진행하고 싶으신 사업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부임 후 강조하고 계신 기초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 관한 부분도 궁금합니다.

**김보성** 지역 문화예술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가 이제 11년 남짓인데요,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근거한 지원센터는 아직 광역 단위에만 존재해요. 하지만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중앙에서 광역으로, 다시 기초로 연결되는 전달 체계가 완성되어야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거든요. 문화예술 교육정책을 폭넓게 개발하고, 아래로부터 중앙 정부의 정책을 이끌어내는 일종의 도화선 역할이 되는 거죠. 저는 전

국 최초로 성남에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문화재단 문화사업부의 올해 미션도 ‘전국 최초 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설립’이에요. 이 지원센터를 통해 영유아·아동·청소년·성인·어르신 등 전 세대에 걸친 예술교육을 시행하고 확산시키는 모델을 만들어가는 거죠. 성남시의 성남형 교육지원사업, 경기도교육청의 꿈의 학교와 같은 정책과도 연계되어 폭넓은 활용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문화예술 교육을 포함한 새로운 대안교육의 메카로 성남이 성장하는 일에 힘을 보태고 싶은 것이 제 바람입니다. ‘생활예술 수도’ 성남이 먼저 준비하고 천명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선도하고 싶은 거죠.

❹ 올해 문화진흥국의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특별히 강조하시는 점이 있을까요?

**김보성** 올해 문화기획부 슬로건은 ‘마을 속으로, 주민 속으로’예요. 비단 성남뿐 아니라 지역 문화재단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모든 사업을 진행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 속으로 들어가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개는 재단에서 일방적으로 수립하고 진행하는 부분이 많은데, 끊임없이 현장의 소리를 듣고 현장 속에서 소통해야 해요. 우리가 노력했다고 느끼는 부분이 주민들의 관점과는 다를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친절하게 대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분들께는 그저 군림하는 것처럼 비칠 수도 있죠. 이 부분은 아주 지속적이고 끈질긴 노력이 필요해요. 과정은 어렵지만 일단 신뢰가 형성되고 나면 사업 성과나 발전 속도는 굉장히 높아지죠. 이를 위한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모든 사업과 정책의 시행 단계 이전에 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이 완전히 시스템으로 자리 잡아야 해요. 명실상부 시민의 삶으로 들어간 ‘버전 3.0’ 성남문화재단이 되는 것이 문화진흥국의 최우선 목표입니다.

❺ 예술국과 문화진흥국이 함께 협업할 수 있는 지점도 있을까요?

**김보성**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일단 알아야 해요. 그래서 예술감상 교육이 필요하죠. 정부의 현재 핵심 사업인 문화예술교육 정책에 예술감상 교육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어서 아쉽더라고요. 성남문화재단의 예술국과 문화진흥국이 각자 장점과 힘을 합쳐 시민들을 위한 예술교육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참 멋진 것 같아요. 예술가들과 예술국이 커리큘럼을 짜고, 문화진흥국에서 시민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을 맡고... 이외에도 재단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문화예술펀드 조성을 비롯해서 함께 구상하고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이 생활문화 수도이자 문화예술의 성남시대를 열어갈 기반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ART**

# FEATURE

세계 각국의 문화예술 공간에 깃든 특별한 이야기,  
트렌디한 문화예술 이슈와  
흥미로운 읽을거리를 준비했습니다.



## WORLD REPORT

프랑스, 필하모니 드 파리

## ART & ARCHI

독일, 훔브로이히 박물관 섬

## ART & COMMENT

우리는 왜 컬러링북에 열광하는가

## 이 한 장의 오페라

베르디 <나부코>

## BOOK

이달의 책





프랑스, 필하모니 드 파리  
음악과 건축,  
그리고  
사람의 공간

지난 1월 파리의 클래식 음악계는 오랜 숙원을 풀었다. 문화예술의 도시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딱히 내세울 만한 콘서트홀이 없던 이곳에 드디어 필하모니 드 파리 Philharmonie de Paris 라는 새로운 공간이 탄생한 것이다.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 테러 열흘 후 진행된 개관 콘서트는 테러 희생자들에게 헌정되었다.

글 황정원 바이로이트대 음악학 박사과정





개관 콘서트는 위트 있게 에드가 바레즈의 작품 〈Tuning up조율하기〉으로 시작, 포레부터 티에리 에스케슈Thierry Escaich까지 온전히 프랑스 음악으로 짜였다. 프로그램은 새 홀의 역량을 최대한 드러낼 수 있도록 세심히 구성되었다. 파리 오케스트라Orchestre de Paris는 파보 예르비의 지휘로 합창, 협주곡, 관현악곡 등 다양한 장르와 음향의 곡들을 선보였다.

### 음악과 건축이 만나는 곳

필하모니의 외관은 기이하다. 여러 개의 널빤지를 엮기설기 엮어놓은 듯한 모양새는 마치 곧 날아오르려는 우주선 같다가도 공사판 한 구석에 쌓아놓은 목판더미 같기도 하다. 지붕 위로 난 길을 따라가면 꼭대기에는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장착된 거대한 구조물이 인근 도로까지 돌출돼 있고, 그 위로 필하모니 홀에서 진행되는 공연에 대한 정보가 흐른다. 건물은 비상하는 새의 모티프를 딴 25만여 개의 은회색 알루미늄 타일로 온통 뒤덮여 있다. 모양과 색이 미묘하게 다른 타일들이 빛을 받아 반짝이며 술렁거릴 때는 곧 한 무리의 새들로 변해 금방이라도 홀을 물고 날아오를 것만 같다. 이 독창적인 건물을 디자인한 프랑스 건축가 장 누벨Jean Nouvel은 건축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프리츠커상The Pritzker Architecture Prize 수상자로, 리움 미술관 건물을 통해 우리에게도 친숙하다. 누벨은 리움 오페라 하우스, 루체른의 문화 컨벤션센터KKL, 덴마크 국립교향악단 홀 등을 디자인했고 여기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쏟아 부어 “음악과 건축이 만나는” 새 공간을 창출해냈다.

홀의 내부는 외부만큼이나 인상적이다. 좌우대칭 직선으로 줄지어 늘어선 객석에 익숙한 관객이 무심코 홀에 들어섰다면, 눈앞에 펼쳐지는 부드러운 곡선의 향연에 어리둥절할 것이다. 허공에 떠 있는 크림색 테라스와 객석이 홀 가운데 위치한 무대를 감싸고 있는 모습은 마치 음악이라는 꽃술을 중심으로 활짝 핀 꽃과 같다. 포도밭vineyard 양식의 변형이다. 이런 형태의 콘서트홀은 1963년 처음 베를린 필하모니를 위한 콘서트홀에 등장한다. 제2차 세계대전 중 폭격으로 파괴된 콘서트홀의 재건을 위한 디자인 응모에서 건축가 한스 샤룬은 전통적인 콘서트홀과 전혀 다른 획기적인 형태를 제안했다. 그는 빈의 무지크페라인 홀의 딱딱한 신발 상자shoobox 형태나 부채fan 형태 같은 위계적인 구조보다, 유기적이고 음악이 중심에 있는 공간을 꿈꿨다. 그런 그의 신념이 당시 베를린 필의 수장이던 카라얀의 강력한 지지를 받아 현실화된 것이 베를린 필하모니 홀이다. 이 혁신적인 디자인은 음향적으로도 우수하여 베를린 필하모니 홀 이후 건축된 세계의 저명한 콘서트홀들이 이 양식을 받아들였다. LA의 디즈니 홀, 도쿄의 산토리 홀, 라이프치히의 게반트하우스, 그리고 6년째 건축 중인 함부르크의 엘베 필하모니 홀 등이 대표적이다.



음향 외에도 포도밭 양식의 홀이 갖는 장점은 음악을 만드는 사람과 듣는 사람 간의 물리적 거리를 좁혀 이들 사이에 보다 친밀한 느낌을 만들어준다는 데 있다. 파리 필하모니의 경우 모든 관객이 지휘자로부터 32m 거리 내에 있게 된다. 상주 오케스트라가 될 파리 오케스트라가 사용하던 기존의 살 플레엘Salle Pleyel이 필하모니 홀보다 500석이나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관객과 무대 간의 최대 거리가 47m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놀라운 일이다. 여기에 더해 필하모니 홀은 그 모양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객석뿐 아니라 주 무대 역시 벽 뒤와 바닥 밑으로 숨기는 것이 가능하고, 합창석은 새로운 무대로 대체할 수 있으며 객석 바닥의 경사 역시 조절할 수 있다. 이는 이 홀이 클래식 음악 외에도 다른 종류의 음악을 염두에 두고 건축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홀이 앰프 역할을 하는 클래식 음악과는 달리, 팝이나 재즈처럼 앰프를 사용해야 하는 음악에도 적절한 음향 환경을 제공해 이들을 수용하려는 필하모니의 정책을 건축과 기술이 뒷받침해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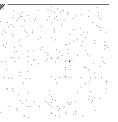
### 오케스트라의 집과 소리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부터다. 프랑스 문화, 정치, 경제의 정점을 찍을 기념비적인 건축물들을 세우고자 했던 미테랑 정부의 ‘그랑 프로젝트Grand Projets’ 정책과 새로운 콘서트홀을 확보하려 노력한 프랑스 음악계의 대부 피에르 블레즈의 집념이 맞물린 결과였다. 그러나 그랑 프로젝트의 일부였던 바스티유 오페라 극장에 우선순위가 밀린 콘서트홀은 결국 2010년이 되어야 첫 삽을 뜨게 된다. 프랑스 정부와 파리 시가 공사비의 대부분을 지원하는 필하모니 홀 건축은 이후 공사가 중지되기도 하고 전면 백지화까지 논의되는 등의 수모를 겪는다. 결국 공사 기간은 예상보다 2년이 길어지고, 건축 비용은 기존 예상치의 두 배를 훌쩍 넘는 3억 9천만 유로(약 4천 9백억 원)에 달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콘서트홀이라는 그리 달갑지 않은 칭호를 얻으며 오픈했지만, 이마저 공사가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된 개관이었다. 장 누벨은 이러한 필하모니 측의 결정에 항의하며, 개관 당일 공연에 참석하는 대신 〈르몽

**01+02**  
건축가 장 누벨이 디자인한 홀의 외관은 비상하는 새의 모티프를 딴 25만여 개의 은회색 알루미늄 타일로 온통 뒤덮여 있다. 지붕 위로 난 길을 따라가면 꼭대기에는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장착된 거대한 구조물이 인근 도로까지 돌출돼 있고, 그 위로 필하모니 홀에서 진행되는 공연에 대한 정보가 흐른다

드)지에 성급한 개관을 비난하는 칼럼을 쓰는 한편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성명서를 발표한다. 음향 테스트조차 허락하지 않을 정도의 급한 일정으로 건축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많은 부족함이 있는 상태에서 개관은 시기상조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우여곡절과 잡음에도 불구하고, 개관 이후 콘서트홀에서 음악을 경험한 세계의 많은 전문가들은 홀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소위 ‘고전’이라 불리는 곡을 반복해서 연주하는 클래식 음악가들에





게 고유의 소리와 해석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오케스트라도 다르지 않다. 그런데 오케스트라가 고유의 소리를 만들어내고 유지하는 과정에는 오케스트라의 역사와 전통, 지역색, 언어 외에도 오랜 관계를 맺었던 지휘자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요소가 복잡하게 영향을 끼친다. 특히 오케스트라 고유의 소리를 빚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오케스트라가 자리 잡고 있는 상주홀, 즉 소리를 담는 그릇의 성격이다. 베를린 필하모니, 로열 콘서트허바우,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등의 훌륭한 오케스트라에게는 자신의 집이라 부를 수 있는 공간이 있다.

1930년대 하버드 대학에서 음향학을 공부하던 학생들은 재미있는 연구를 진행했다. 각기 다른 성격의 홀에 상주하는 두 오케스트라와 지휘자가 자신들의 홀에 최적화된 소리를 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으며 그 노력이 오케스트라 고유의 소리를 만드는 데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본 것이다. '필라델피아 사운드'를 자랑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가 그 연구의 한 대상이었다.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가 100여 년 동안 상주한 아카데미 오브 뮤직 극장은 매우 건조해서 무

대 위의 소리가 잔향 없이 뚝뚝 끊기는 문제를 갖고 있었다. 필라델피아 사운드의 초석을 깔았던 지휘자 레오폴트 스토코프스키는 이 홀에서 풍성한 소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24년에 걸쳐 현악기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주 방법을 시도했다. 음표의 끝을 길게 늘여 연주하거나, 현악 연주자들이 일제히 같은 방향으로 활을 긋는 것이 아니라 각기 원하는 방식으로 활을 긋는 프리 보잉(free bowing) 등이 그것이다. 홈그라운드에서 가능한 한 최고의 소리를 뽑아내기 위한 이런 노력의 결과로 탄생한 것이 바로 그들만의 소리, 벨벳같이 유려하고 풍만한 필라델피아 사운드이다.

### 경계에서 내민 손

그러나 음악의 논리만으로 콘서트홀의 존재 가치를 세상에 설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100% 공공 예산으로 지어진 필하모니 홀의 경우에도 건축을 둘러싼 수많은 논의가 있었다. 건물의 위치 또한 논쟁의 중심에 있었다. 살 플레엘, 라디오 프랑스 홀, 샹젤리제 극장 등 기존 클래식 공연장들이 주로 도심 중앙이나 부유층이 많은 서쪽에 자리

잡고 있는 데 비해, 필하모니 홀은 파리의 낙후 지역인 북동쪽 19구에 위치한다. 이 지역은 북아프리카 출신의 이민자들이 주를 이루며 범죄율 또한 상당히 높은 편으로 샤를리 에브도의 테러범들이 가입한 테러 조직, '파리 제 19구 네트워크'의 모임이 주로 이루어지던 곳도 바로 이 구역이다. 필하모니는 19구 안에서도 파리 시내와 외곽을 나누는 자연스러운 경계인 외곽순환도로와 맞붙어 있는데, 도로 건너편은 경제적인 이유로 도심에서 밀려난 젊은 세대와 저소득층이 주를 이룬다. 필하모니는 경제적, 사회적 이유로 문화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이들이나 클래식 음악을 엘리트 문화라 외면하던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려 한다.

오늘날 클래식 음악 공연의 전형적인 관객은 경제적인 여유와 학식을 갖춘 지긋한 나이의 백인이다. 따라서 새로운 관객층의 개발은 클래식 음악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요한 과제다. 얼마 전 발표된 프랑스 리모주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프랑스 클래식 콘서트 관객의 평균 연령은 지난 30년간 무려 25세가 증가해 61세가 되었다. 이는 프랑스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독일 클래식 청중의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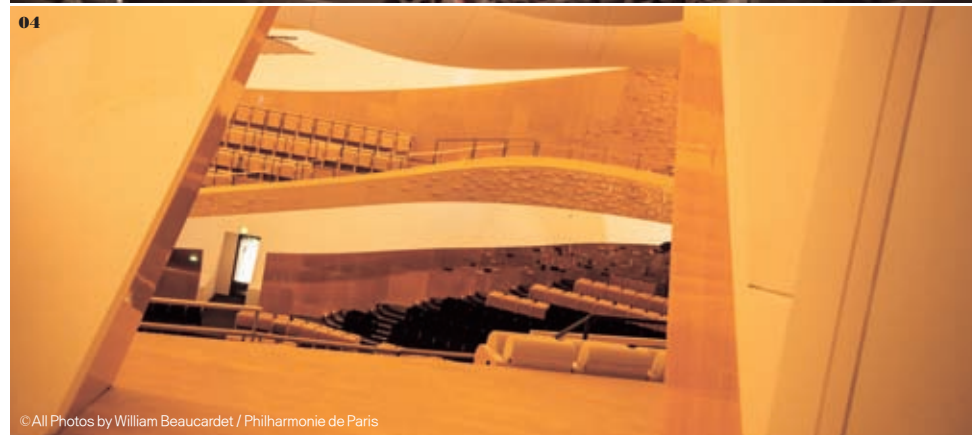
**03-04-05**  
홀의 내부, 포도밭 양식의 변형으로, 파리 필하모니에서는 모든 관객이 지휘자로부터 32m 거리 내에 있게 된다

**06-07**  
콘서트홀을 짓는다는 것은 단지 건물을 짓는 일이 아니라 예술을 통해 서로 다른 배경을 갖는 사람들이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사회적 행위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파리 필하모니는 시민들이 참여하고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워크숍과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연령 역시 근 20년 사이에 11세가 증가한 평균 55~60세이고(동일 기간 국민 평균 연령은 3.4세가 증가했을 뿐이다), 이 같은 속도라면 30년 이내에 독일 관객이 1/3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영국의 경우, 예술위원회는 예산 보조를 받는 기관들이 직원 구성, 프로그램 기획, 관객 구성의 측면에서 현재 영국 사회의 인종적 다양성을 반영하지 않으면 지원을 축소할 수도 있다는 정책을 지난 12월 발표했다(정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 영국 문화 산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93%가 백인이다). 공적 지원금을 받는 예술이라면 그 혜택과 기회가 세대와 인종, 문화적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영원한 소외'의 끝

필하모니란 단어는 '음악에 대한 사랑'이라는 뜻이다. '어떤' 음악에 대한 '누구의' 사랑이냐는 질문에 필하모니 드 파리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답하고 있다. 먼저 문화적 불모지인 파리 외곽에 자리 잡아 주변부에 손을 내밀기 시작했다.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들이 이곳에서 음악을 만들 예정이지만, 클래식 외에도 다른 음악을 수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실제로 개관 후 6개월 동안 계획된 270여 개의 콘서트 중 클래식 콘서트는 150여 개에 불과하다(70여 개는 팝, 재즈, 월드뮤직 장르이고 50여 개는 패밀리 콘서트이다). 장 누벨은 필하모니 홀의 건축을 통해 주변부의 '영원한 소외'의 끝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고 한다. 훌륭한 무대를 기반으로, 음악이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굳은 믿음 하에 필하모니는 새로운 모험을 시작했다. 콘서트홀을 짓는다는 것은 이같이 단지 건물을 짓는 일이 아니라 예술을 통해 서로 다른 배경을 갖는 사람들이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사회적 행위이기도 하다. 그런 맥락에서 서울시향의 전용 홀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 요즘, 필하모니의 도전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트**



© All Photos by William Beaucardet / Philharmonie de Paris



독일, 훔브로이히 박물관 섬

## 휴식과 명상을 누리는 예술의 섬

훔브로이히 박물관 섬은 없는 것이 많아 더욱 풍성한 미술관이다. 전시 설명서나 작품 명제표는 물론 전시장을 지키는 안내 요원이나 CCTV도 없다. 대신 드넓은 초록의 생태 공원 위에 한적하게 자리 잡은 15개의 조각 같은 갤러리들, 그리고 유기농 음식을 무료로 제공하는 카페테리아가 있다. 대도시의 대형 미술관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미술 감상과 더불어 휴식과 명상, 거기에 웰빙 식사까지 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미술관으로 주목받고 있다.

글 + 사진 이은화 작가, 미술평론가, 융합미술연구소 크로싱 대표

### 유럽의 숨은 진주

독일의 작은 시골 마을에 위치한 훔브로이히 박물관 섬 Museum Insel Hombroich은 내가 지금까지 다녀왔던 유럽의 여러 미술관들 중 '베스트 오브 베스트'에 속한다. 누군가가 유럽을 간다고 하면, 특히 독일 쪽으로 여행을 간다고 하면 난 서슴지 않고 훔브로이히 박물관 섬을 꼭 가보라고 권한다. 이유는 이 미술관이 벨바오 구겐하임처럼 건축이 멋들어져서도 아니고 루브르 박물관처럼 엄청나고 대단한 컬렉션을 가지고 있어서도 아니다. 단지 이곳에서는 다른 미술관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의 서쪽 뒤셀도르프에서 기차로 십여 분쯤 가면 노이스 Neuss라는 작은 도시가 나온다. 이곳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자리 잡은 훔브로이히 박물관 섬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미술관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다. 미술과 자연, 그리고 건축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곳이라고 해야 할까? 특히 대도시의 대형 미술관이나 블록버스터 전시에 싫증을 느낀 사람이라면 꼭 한번은 가보라고 권하고 싶은 곳인데 한번 다녀온 사람은 그곳의 매력에 중독되어 또 찾게 된다. 섬처럼 강으로 둘러싸인 넓고 푸른 초원 위에 띄엄띄엄 들어선 조각 같은 미술관 건물들을 산책하면서 둘러볼 수 있게 지어진 이 미술관은 독일 인들에게조차 별로 알려지지 않은 비밀의 예술 섬이다. 2004년 미국 미술 전문지 <아트뉴스>가 '세계의 숨겨진 미술관 톱 10'을 발표하면



안도 타다오가 설계한 아름다운  
랑엔 제단 건물



미술관 가는 길 곳곳에 설치된 야외 조각.  
아나톨 헤르츠펠트, 국회, 1991



서 훔브로이히 박물관 섬을 '유럽의 숨은 진주'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2년 전 독일 지역 미술관 취재 길에 마지막 일정을 무조건 훔브로이히로 잡았다. 이미 세 번째 방문인데도 미술관을 찾아가는 길은 웬지 긴장되고 설렜다. 뒤셀도르프 시내를 관통하던 차는 10여 분 만에 도시를 벗어나 한적한 시골길로 접어들었고 '노이스'라는 이정표를 보자마자 반가운 마음에 나도 모르게 콧노래가 흘러나왔다. 하루빨리 훔브로이히 섬을 다시 보고 싶었고 그동안 얼마나 변했는지 사뭇 기대도 되었다. 이렇게 한번 다녀갔던 미술관을 다시 방문하는 것은 마치 옛 친구 집을 다시 방문할 때와 비슷한 설렘과 호기심을 유발한다.

미술관 근처에 주차를 한 후 카메라를 챙겨 들고 곧바로 매표소 건물로 향했다. 깔끔한 하얀 건물 안을 꾸민 미니멀한 디자인의 빨간색 탁자와 까만 의자들도 예전 그대로다. 독일 출신의 건축가이자 조각가인 올리버 크루제가 디자인한 것들이다. 이 매표소 건물을 통과하면 서부터 특별한 훔브로이히 미술관 기행의 여정이 시작된다. 운이 좋았는지 유난히 쾌청하고 맑은 날씨다. 천천히 자연을 음미하면서 산책하듯이 걷다 보면 저절로 마주치는 작은 건물들이 바로 갤러리들이다. 섬 전체에 걸쳐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며 암전히 서 있는 각각의 독립된 갤러리들은 건축물이라기보다 차라리 그 자체가 미니멀한 조각품 같은 인상을 준다. 실제로 이곳에 있는 총 15개의 건물 중 11동이 독일 조각가 에르빈 헤리히가 건축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조각 작품들을 사람이 걸어 들어갈 수 있는 만큼 크게 확대해서 이곳에 설치

해놓았다고 한다. 그리고 보니 조각품이 커져 사람이 들어갈 수 있으면 건축이 되는 것이 아닌가. 조각가, 건축가로 굳이 분류하는 습관이 오히려 편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 없는 것이 많아 더 좋은 곳

입구에서 출발해 5분쯤 걸으면 '탑'이라는 이름의 갤러리를 제일 먼저 만나게 된다. 투박한 탑처럼 생긴 붉은 벽돌의 외관과 달리 내부는 군더더기 하나 없이 정갈하고 깔끔한 흰색이다. 갤러리 내부엔 아무 것도 없다. 텅 빈 공간 속에 천창으로 들어오는 따뜻한 햇살만이 내부를 조용히 비추고 있을 뿐이다. 이곳은 내 맘대로 정한 '비움의 장소'다. 마음뿐만 아니라 모든 미술사적 지식이나 미술에 대한 편견을 머릿속에서 완전히 비우는 곳이다. 그래야만 이곳에서 진정한 미술 감상을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컬렉션들이 전시되어 있는 다른 건물들에서 자연스레 알 수 있다.

탑 갤러리를 빠져 나와 산책로를 따라 걸으면 나무 울타리에 숨겨진 꽤 큰 규모의 건물이 나온다. 미로처럼 생겨 '미로'라는 이름이 붙은 이 건물은 훔브로이히의 주요 소장품이 전시되어 있는 갤러리다. 밝은 자연 채광으로 채워진 전시장 내부엔 쿠어트 슈비터스, 장 아르프, 그라우브너 등 잘 알려진 유럽 출신 작가들의 현대 회화 작품들이 고대 크메르나 페르시아 또는 중국의 옛 조각품들과 한 공간에 나란히 전시되어 있다. 이곳을 처음 방문한 사람들은 작품 주변의 벽을 이리저리 뒤진다. 미술관이라면 당연히 있어야 할 작품 명제표를 찾기 위



**01**  
훔브로이히 박물관 섬 전경. 조각가 에르빈 헤리히가 디자인한 11개의 갤러리 건물들이 푸른 초원 위에 자리 잡고 있다

**02**  
'미로' 갤러리 내부. 동서양 작품이 한자리에 전시되어 있다



**03**  
일본 작가 타도이츠의 작품이 전시된 '타도이츠 파빌리온' 외관

**04**  
훔브로이히 카페테리아. 지역에서 만든 유기농 음식과 과일을 무료로 맛볼 수 있다

해서다. 누구의 작품이며 제목이 뭔지를 확인해야 하나까. 하지만 이곳엔 어떠한 전시 관련 설명서나 작품 명제표도 없다. 나 역시 처음 이곳을 찾았을 때에는 작품 명제표가 없어서 적잖이 당황했다. 하지만 이젠 그런 것은 불필요하고 알면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저 자유롭게 작품을 감상하고 즐긴다. 그렇다. 이곳은 동양 미술과 서양 미술, 고미술과 현대 미술이 어떠한 설명도 없이 한 공간에 동시에 놓여 있어 시대나 문화적 배경에 대한 편견이나 구분 없이 그저 자연 속에서 작품 자체를 감상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게다가 갤러리를 지키는 안내 요원이나 지킴이가 없어(물론 CCTV도 없다) 아무런 제약 없이 정말 맘 편하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고, 원하면 사진도 싹쓸이할 수 있다. 다른 미술관에서는 결코 상상할 수 없는 관람자의 자유와 권리를 이곳에서는 맘껏 누리고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곳에 전시된 소장품들이 결코 방치해도 좋을 만큼 싸구려이거나 미술관 측이 소장품 관리에 소홀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 이곳에 전시되어 있는 작품들은 고대 크메르 조각부터 중국 한·당·명대의 조각과 도자기, 멕시코, 아프리카의 미술품, 렘브란트, 폴

세잔, 클립트, 이브 클랭, 장 아르프, 엘스위스 켈리 등 서구 근현대 미술 대가들의 작품까지 시대와 국적을 초월하는 중요한 작가들의 작품이 총망라되어 있다. '미로' 갤러리 건물을 빠져나와 다음으로 만나는 곳은 에르빈 헤리히의 미니멀한 조각 작품이 놓여 있는 '호에 갤러리'고, 여기서부터는 여러 갈래 길이 나온다.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라우브너의 아틀리에이자 전시장으로 쓰이는 '그라우브너 파빌리온', 고대 크메르 조각이 모여 있는 '오랑제리', 일본 출신의 예술가 타도이츠의 대형 작품이 걸린 '타도이츠 파빌리온', 달팽이 모양으로 생긴 전시장인 '달팽이' 등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이곳 건물들은 건물의 기능이나 형태, 또는 작가 이름을 따 제멋대로 인상적인 이름들을 가지고 있지만 외관은 한결같이 필요 이상의 꾸밈이나 장식 없이 벽돌로 만들어 매우 단순하고 소박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흰색 회벽으로 정갈하게 마감된 내부 벽과 나무 바닥, 그리고 그 안으로 스며들어오는 맑은 햇빛은 이곳을 찾는 사람의 마음마저도 정갈하게 환기시키는 것 같다. 한 전시장을 보고 나면 또다시 산책로가 나오고, 그 길을 따라 걷다





**05**  
아나톨 헤르츠펠트의 스튜디오인  
'아나톨스 하우스'의 전경

**06**  
산책로를 따라 전시장을  
찾아가는 길. 소박한 나무다리가  
인상적이다



**07**  
물 위에 떠 있는 듯한 랑엔 재단 건물

**08**  
건물 내부에서 바라본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

**09**  
일본 미술품이 전시되어 있는  
상설 전시실

보면 또 다른 전시장이 나오고, 이렇게 몇 번을 반복하면 총 11개의 갤러리 관람을 마치게 된다. 초원 속에 흩어져 있는 전시장을 찾아 산책하며 걷는 것은 대형 미술관 내에서 이 방 저 방을 옮겨 다니느라 다리품을 파는 것과는 분명 다른 경험일 것이다. 독일 환경 건축가 코르테가 설계한 예쁜 정원과 연못, 주변 경관과 잘 어울리는 돌이나 철재, 나무로 만들어진 야외 조각들은 이곳의 또 다른 볼거리다. 흠브로이히 박물관 섬 안엔 또 하나의 명소가 있는데 바로 유기농 카페테리아다. 자연 속을 거닐며 갤러리들과 주변 경관을 천천히 즐기려면 최소한 반나절은 걸린다. 누구나 허기를 느끼기 시작할 즈음 미술관 산책의 마지막 코스에서 만나게 되는 이 카페테리아에서는 이 지역 농촌에서 생산된 무공해의 신선한 과일과 유기농 음식이 제공되는데 잡곡 빵과 잼, 푸딩, 감자 요리, 샐러드, 삶은 달걀 등을 맛볼 수 있다. 뷔페식이며 무료로 제공된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일 게다.

**로켓 기지에서 복합 문화 단지로**

지도에서도 찾기 힘든 이 작은 시골 마을에 흠브로이히와 같은 매력

적이고도 거대한 미술관 섬이 존재한다는 것이 그저 놀랍고 이렇게 아름다운 미술관을 가진 지역 주민들이 한없이 부러울 따름이었다. 그렇다면 흠브로이히 박물관 섬은 언제 어떻게 이곳에 자리를 잡게 된 걸까? 1980년대 후반에 처음으로 문을 연 흠브로이히 박물관 섬은 라인에어포트 강으로 둘러싸인 섬처럼 생긴 천연 생태 공원이었다. 옛 NATO의 로켓 발사 기지와 군용 기지가 인접해 있어서 200년간 개발이 제한되어 있었던 곳이기도 했다. 이 지역의 부동산 개발업자이자 미술품 컬렉터였던 카를 하인리히 뮐러는 개발의 손이 닿지 않은 이 한적한 땅을 매입해 자연과 미술이 어우러진 이상적인 미술관 섬을 설립하고 그가 수십 년 동안 수집했던 미술 작품들로 컬렉션의 토대를 세웠다. 하지만 그는 곧 컬렉션을 포함한 미술관 전체를 노이스 시에 기증했다. 더 나은 미술관을 위해서였다. 그래서 이곳은 한 개인의 노력과 헌신으로 탄생했지만 개인 미술관이 아닌 공공 미술관으로 현재 소유권과 운영은 노이스 시와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의 후원으로 설립된 흠브로이히 재단에서 맡고 있다.

최초 설립자였던 뮐러는 1990년대 중반 기존의 미술관 섬보다 더 크

고 여러 기능을 갖춘 복합 문화 단지 조성을 계획했다. 그는 1994년 흠브로이히 박물관 섬 인근에 있던 옛 NATO의 로켓 기지와 군용 기지를 사들여 더 많은 예술가들의 스튜디오와 주거 공간, 그리고 콘서트 홀 등을 만들었는데 아직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예전에 군수품 창고로 쓰이던 공간은 콘서트 홀로 개조되었고 옛 로켓 발사 기지의 특성 때문인지 과학 연구소도 들어와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곳에서 가장 주목받는 건물은 2004년 개관한 랑엔 재단 미술관으로 일본 출신의 세계적 건축가인 안도 타다오가 설계했다. 유리 와 노출 콘크리트로 된 기다란 직사각형 건물에 같은 재료로 된 입방체 건물이 45도 각도로 박혀 있는 단순하면서도 독특한 외관은 무척이나 매력적이다. 거대한 아치형의 인공 호수로 둘러싸여 있는 미술관 건물은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상자처럼 무척이나 신비롭고 아름답다. 실크처럼 부드러운 콘크리트 건물을 투명한 유리 상자로 덧씌우는 방법으로 마감했기에 건물 안에서도 바깥의 푸른 초원이나 호수를 감상할 수 있다. 외부에서 봤을 때 미술관은 단층으로 보이지만 사실 내부

깊숙이 박혀 있고 지상 3미터만 지상으로 고개를 내밀고 있기 때문에 직접 내부로 들어가보지 않고서는 결코 9미터가 넘는 건물의 높이를 실감할 수가 없다. 건물 내부 역시 경감하면서도 세련된 모습이다. 완만한 경사로로 층계를 대신한 점이나 자연 채광을 최대한 활용한 점 등 보이지 않는 곳까지 섬세한 배려를 한 것이 무척 인상적이다. 이곳의 소장품은 빅토와 마리안 랑엔 부부가 수집한 500여 점의 일본 미술품과 300여 점의 20세기 서구 현대 미술품들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12세기에서 19세기까지 아우르는 방대한 일본 미술품은 유럽에서 보기 드문 독보적인 일본 미술 컬렉션으로 눈여겨볼 만하다. 대자연 속에서 예술 감상뿐 아니라 휴식과 명상, 그리고 웰빙 식사까지 가능한 흠브로이히는 이곳을 찾는 이방인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것이다. **한남**

글을 쓴 이은희는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미술사를 전공하고 런던 소더비 예술대학원에서 현대미술학과 맨체스터 대학원에서 미술사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대표 저서로 『자연미술관을 걷다』 『가고 싶은 유럽의 현대미술관』 『21세기 유럽 현대미술관 기행』 등이 있다.



## 우리는 왜 컬러링북에 열광하는가 트렌드가 된 예술, 그리고 힐링

안티스트레스 컬러링북 『비밀의 정원』 열풍이 거세다. 세계적인 브랜드와의 콜라베이션으로 독창적인 스타일을 인정받은 아티스트 조해너 배스포드의 작품을 수록한 이 책은 이미 세계 각지에서 ‘어른들을 위한 컬러링북’으로 돌풍을 일으킨 바 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매여 있는 현대인의 일상에서 정교한 흑백의 그림에 색을 칠하는 경험은 신선하고 산뜻하게 다가온다. 출간 직후 베스트셀러의 자리에 올라 지금까지도 높은 판매고를 이어가고 있는 『비밀의 정원』은 예술의 대중화와 예술을 통한 치유에 관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글 류동현 미술저널리스트 + 사진 제공 퍼블리싱 컴퍼니 클

### 우리는 왜 색을 칠하는가

『비밀의 정원』 『일러스트레이터의 컬러링북』 『파리시크릿』 『런던 컬러링북』 『시간의 정원』 『나의 소녀』 『네이처』 『ZEN 젠』 『마음의 원을 그리다』 『그림으로 만나는 대방광불화엄경 80 변상도』 『그녀의 빈티지 컬러링북』...

얼마 전 서점에 들렀다 무척 놀랐다. 컬러링북의 인기가 높고, 그 종류도 다양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서점의 매대 하나를 독립적으로 컬러링북이 ‘점령’하고 있는 것은 뜻밖이었기 때문이다(출판사 입장에서는 매대에 책을 올리는 것 자체가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말이다). 과거에 어린이의 지능 개발, 색에 대한 인식과 구분 등 교육적 목적으로 ‘색칠 공부’가 이용되었다면, 이제는 어른들의 ‘안티스트레스’를 표방하는 컬러링북이 출판 시장의 대세가 되었다. 2014년 8월 스코틀랜드의 일러스트레이터 조해너 배스포드가 그린 『비밀의 정원』이 처음 출간된 이래, 수많은 컬러링북이 우후죽순 출간되었다. 텍스트 없이 흰 종지와 검은 선으로만 이루어졌던 컬러링북은 이제는 스토리텔링에 도시 소개, 빈티지 문양, 심지어 색칠을 기다리는 화엄경도 상까지 가미되어 변주에 변주를 거듭하고 있다.

많은 매체에서 최근에 불고 있는 컬러링북 열풍에 대한 진단을 싣고 있다. 현대인이 컬러링북에 열광하는 이유에는 다양한 해석이 있다. 『비밀의 정원』 속 안티스트레스 코드가 시대적 기조에 정확히 ‘먹혀

들었다’는 진단부터 예술 활동을 통한 현대인의 힐링 욕구를 채워준다는 이야기나, ‘복고 스타일’의 인기에 힘입어 색칠 공부에 대한 향수도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까지. 이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해당하는 현상이 아니다. 어른들을 위한 컬러링북은 영국, 프랑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지에서 이미 수십만 부 이상 팔려나갔다.

### 정신과 육체의 균형을 위한 활동

개인적으로 이러한 진단과 함께 몇 가지가 더 떠오른다. ‘직접 색을 칠하는 것’은 정신과 육체의 균형을 찾기 위한 행동이 아닐까? 언젠가 읽었던 무라카미 하루키의 수필에는 이런 대목이 나온다. ‘바흐의 〈인벤션〉은 왼손과 오른손을 완전히 균등하게 움직이도록 설정되어 있다. 그 점에 관한 한 정말이지 신기하리만큼 철저하다. 따라서 글을 쓰기 전까지 나는 이 악곡집이 본질적으로 피아노 기교를 습득하는 예술적인 고급 매뉴얼 같은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것이 인간의 신체, 그리고 그 신체와 연결된 정신의 불균형을 치유하기 위해 바흐라는 희유의 천재가 만들어낸 장절한 소우주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원고를 쓰다가 지치면 피아노 앞에 앉아 악보를 더듬어 연습하며, 숨이 멎을 듯 좌우가 대칭을 이루는 우주에 기본 좋게 몸을 내맡긴다...’ 즉, 이야기의 요지는 워드프로세서를 쓰기 이전에는 왼손으로 원고지를 누르고, 펜을 든 오른손으로 글을 썼는데, 그 노동과 정신의 불균형을 바흐의 〈인벤션〉이 치유해주었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 말에 100% 공감했다. 글을 쓰기 시작한 15년 전부터 정신과 육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활동을 계속해왔기 때문이다. 피아노나 기타는 물론이고 클라리넷을 배우거나, 사회인 야구를 한다거나, 최근에는 가족 공예를 배워서 가방이나 소품을 종종 만들고 있다. 글을 쓰다가 지칠 때 가족과 가족을 연결하는 바느질을 몇 시간쯤 무심히 하다 보면 정신적 스트레스가 어느새 저 멀리 물러나 있는 경우가 많다. 아마 컬러링북의 효과가 이 지점과 교차하는 것은 아닐지. 이는 정신과 육체를 구별할 수 없다는 ‘몸철학’과도,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라는 속담과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한다. 과거에는 이러한 정신과 육체의 조화가 단순히 운동이라는 형태로만 존재했다면, 이제는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수많은 스트레스에, 정보의 홍수에,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정신과 육체적으로 피폐해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치유’와 ‘균형’의 역할을 컬러링북이 해주었기에 이러한 열풍이 가능했다는 생각이(물론 남이 하니까 나도 해야 할 것 같은 심리도 작용했겠지만).

### 예술, 일반인의 영역으로 들어오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예술 활동이라는 점도 매력으로 다가온 듯하다. 예술이라는 장르가 예술가로 대표되는 전문가의 영역에서 일반



01+02+03

어른들을 위한 컬러링북은 아름다운 그림을 직접 완성해가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잊는 물입의 즐거움을 제공한다

인의 영역으로 대중화되었다는 점이 특히 의미심장하다. 단순히 음악을 감상하거나 미술 작품을 보러 다니는 ‘향유의 시대’에서 직접 ‘행하는 시대’로 바뀐 것이다.

오늘날 예술 활동을 하는 데 있어 ‘도구의 제약’은 거의 사라졌다. 사진기나 그림 도구, 악기 등을 과거에는 전문가만이 다룰 수 있었다면, 이제는 정보의 확산과 기술의 평등화 등으로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배울 수 있게 되었다. 최근에는 컬러링북에 색칠을 하는 활동 외에도 필사, 캘리그래피, 악기 연주, 공예 활동 등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 또한 같은 맥락일 것이다.

옛 말에 ‘知之者不如好之者 好之者不如樂之者’ 지지자불여호지자 호지자불여락지자라는 말이 있다. ‘이는 것은 좋아하는 것보다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거워하는 것만 못하다’는 뜻이다. 단순히 예술을 아는 감상 단계를 넘어서 직접 하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를 컬러링북은 대변하고 있다. 갈수록 각박해지는 사회에서 힐링과 균형을 찾는 자신만의 예술 활동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확산될 것이라는 예측은 비단 나만의 생각은 아닐 듯싶다. **한겨레**

글을 쓴 류동현은 미술저널리스트로, 미술전문지 〈아트인컬처〉 〈월간미술〉의 기사를 지냈다. 『London-기억』 『서울 미술산책 가이드』 『인디애나 존스와 고고학』 『매지컬 미스터리 투어』 등 다양한 저술 활동을 통해 미술과 대중의 간격 좁히기, 여행과 예술의 흥미로운 접점을 고민하고 있다.



베르디 <나부코>  
가라, 마음이어,  
황금빛 날개를 타고

<나부코>의 탄생은 어쩌면 오페라 그 자체보다 더욱 극적이었다. 실의와 좌절에 빠져 있던 청년 작곡가 주세페 베르디는 이 한 편을 통해 온 이탈리아와 전 유럽에 그 이름을 알렸고, 작품 속의 애국적인 선율들은 주세페 마치니를 비롯한 수많은 이탈리아 우국지사들의 마음을 크게 울렸다. 이탈리아 낭만주의 예술의 기념비적 성과로 손꼽히는 이 작품은 우리에게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으로 더욱 유명하다.

글 황지원 음악칼럼니스트 + 그림 조성현



2010년 3월 17일, 로마 오페라 극장Teatro dell'Opera di Roma에서는 이탈리아 통일 150주년을 기념하는 콘서트가 열리고 있었다. 남북 이탈리아 간의 지역 갈등이 거의 전쟁 수준까지 치달은 이 나라는 지난 수년간 묘하게도 대통령은 남부에서, 총리는 북부에서 배출되는 경향이 있다. 이날도 남부 나폴리 출신이자 공산당의 거두인 조르지오 나폴리타노 대통령과 북부 밀라노의 재벌 정치인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서로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를 함께하고 있었다. 지휘대에 오른 것은 열혈 마에스트로 리카르도 무티. 그가 손끝을 움직이자 마치 지중해의 북서풍 마에스트랄레처럼 가슴을 적시는 온기를 지닌 선율이 순식간에 극장 안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이탈리아 오페라의 왕'으로

불리는 주세페 베르디Giuseppe Verdi, 1813-1901가 남긴 <나부코Nabucco>의 유명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즉 '가라, 마음이어, 황금빛 날개를 타고Va, pensiero, sull'ali dorate'였다. 그런데 노래를 부르던 합창단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물이 전염되어 곧 온 객석은 눈물바다가 되었다. 그 순간만큼은 해묵은 남북 간의 지역감정도, 서로를 향한 삿대질과 비난도 종적을 감추었다. 베르디의 음악 앞에서 그들은 '하나의 이탈리아'가 되어 통일 150주년을 뜨겁게 자축했다. 바빌론의 압제자 나부코 왕에게 사로잡힌 유대인들은 유프라테스 강가로 끌려와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있다. 그들은 저무는 황혼녘에 고향을 바라보며 입을 모아 망향의 설움을 노래하기 시작한다.

"가라, 마음이어, 황금빛 날개를 타고  
아아, 잃어버린 아름다운 조국이어  
그립고도 애달픈 추억이어  
예언자의 황금 하프여  
너는 왜 말없이 버들가지에 매달려 있는가?"  
- <나부코> 제3막 중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베르디는 하마터면 이 오페라를 쓰기 전에 펜을 꺾을 뻔했다. 이탈리아 중부 레지오에밀리아의 파르마 공국 출신인 그는 장인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밀라노로 일종의 취업 유학을 온다. 지금은 기차로 1시





간도 안 걸리는 거리지만 그때만 해도 거의 외국으로 나가는 기분이었을 것이다. 실제로 파르마와 밀라노는 사람들의 생각도, 먹고 마시고 말하는 방식도 모두 다르다. '시골 남자' 베르디는 천신만고 끝에 밀라노에 자리를 잡고는 그의 첫 오페라 <오베르토>를 발표한다. 결과는 미적지근한 성공. 그러나 당시 스칼라 극장의 지배인 바르톨로메오 메렐리가 이 젊은 작곡가의 재능을 눈여겨본다. 사실 적은 비용으로 오페라를 뽑아낼 수 있는 만만한 존재로 봤던 것일 수도 있다. 메렐리는 얼마간의 계약금을 건네고는 8개월 안에 오페라 세 작품을 쏟아내라는 계약을 강권한다. 게다가 첫 작품은 반드시 희극 오페라로 해달라는 요구와 함께.

### 단 한 구절의 시가 인생을 바꾸다

그 후 베르디의 일신에 커다란 비극이 밀어닥친다. 어린 두 아이가 차례로 세상을 떠나고, 가장 든든한 지지자였던 부인 마르게리타 또한 뇌막염으로 숨을 거뒀다. 게다가 체질에 맞지 않는 희극 오페라 <하루만의 임금님>을 발표했다가 참담한 실패를 맛보게 된다. 그는 커다란 절망 속에서 오페라 작곡가의 길을 포기하기로 한다. 아니, 한때 자살까지도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스칼라 극장 뒤편의 한 카페에서 메렐리와 마주친다. 아마 지금은 밀라노 최고의 명문 카페가 되어 있는 카페 코바<sup>Cova</sup> 정도의 자리였을 것이다. 심한 우울증에 빠져 아예 작곡의 길을 포기하겠다는 젊은이에게 메렐리는 노

련한 신사답게 한편으로는 다독거리고, 또 한편으로는 으름장을 놓는다. 계약금을 받았는데 왜 약속대로 작품을 내놓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대본집 한 편을 베르디에게 툭 던져줬다. 그것은 페라라 태생의 작가 테미스토클레 솔레라가 구약성서의 일화를 바탕으로 쓴 대본이었다. 후일 베르디는 이날을 또렷하게 회고했다.

*귀가를 서두르던 나는 메렐리가 건네주는 원고를*

*건성으로 받아들였다.*

*내 마음은 예리한 슬픔과 숨 막히는 피로움으로*

*터져버릴 것만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대본을 책상 위에 집어던졌다.*

*그 바람에 묶여 있던 원고가 스르륵 펼쳐졌다.*

*우연히 열린 페이지에 쓰인 한 줄의 시구가 내 눈에 들어왔다.*

*'가라, 마음여, 황금빛 날개를 타고! Va, pensiero, sull'ali dorate!'*

*갑자기 가슴속에서 악상이 흘러 넘쳤다.*

단 한 구절의 시가 베르디의 예술 혼을 폭발시켰다. 식음을 전폐하고 거의 광인에 가까운 몰골로 작곡에 몰두한 그는 순식간에 4막짜리 대작 오페라를 완성하고야 만다. 그리고 그 작품은 곧 '이탈리아 오페라의 왕'을 탄생시킨 찬란한 서곡이 되었다.

<나부코>는 구약성서 속 느부갓네살(이탈리아식으로 나부코)의 예

루살렘 정복 사건에 픽션을 가미한 오페라다. 바빌로니아 왕 나부코(바리톤)는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곧바로 유대 왕국을 공략해 수도 예루살렘까지 함락시킨다. 그런데 아버지와 함께 최전선에 나가 피를 흘리며 함께 싸웠던 큰딸 아비가일레 공주(소프라노)는 자신이 노예의 딸로 서출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는 절망과 배신감에 휩싸인다. 힘들여 싸워줘야 왕권은 동생 페네나(메조소프라노)에게 넘어가고 자신은 제거당할 운명인 것이다. 게다가 남몰래 사모하던 유대의 젊은 장군 이스마엘레(테너) 또한 동생과 연인 관계라는 것이 밝혀진다. 이렇게 부녀간의 갈등이 폭발하는 가운데, 유대의 제사장 자카리아(베이스)는 압제에 굴하지 말고 단결하라는 메시지로 좌절과 실의에 빠진 유대인들에게 용기를 불어넣는다. 한편 아버지와 연인의 사랑을 모두 잃은 아비가일레는 나부코의 온건 노선에 반발하는 과격파 제사장들과 규합해 쿠데타를 일으킨 후 나부코를 폐위시킨다.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나부코가 무릎을 꿇고 유대의 신에게 진심 어린 용서를 빌며 자신의 삶을 참회하는데, 하늘의 기적이 일어나 나부코는 권좌를 회복하고 유대인들도 구출된다는 이야기다.

### 그의 음악은 이탈리아를 뜨겁게 한다

<나부코>는 혁신적인 오페라였다. 당시의 유행은 나긋나긋하고 세련미 넘치는 벨칸토 오페라였다. 로시니, 벨리니, 도니체티 등의 대작곡가들로 대변되는 벨칸토 오페라는 다분히 여성적이며 우아하고 정교하다. 이와 달리 광풍과도 같은 거친 열정의 노래와 폭발적인 합창을 전면에 배치한 베르디의 오페라는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의 튜바구니에 기여 좌절과 한탄만을 쏟아내던 당대의 암울한 정치 현실의 응어리를 풀어주는 것이었다. 관객들은 절규와 외침에 가까운 베르디의 야성적인 음악에 커다란 환호성을 보냈고, 뜨거운 휴머니즘과 남성적인 열정이 폭발하는 베르디의 오페라는 기념비적인 흥행 기록을 수립했다.

초연 당시에만 밀라노 전체 인구 숫자와 맞먹는 티켓이 팔렸다는 <나부코>는 지금도 밀라노와 스칼라 극장의 자부심이기도 하다. 2013년 베르디 탄생 200주년이 되던 해에 스칼라 극장에서 <나부코> 공연을 관람했다. 마에스트로 니콜라 루이소티가 첫 번째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을 끝내자마자 객석은 금세 흥분의 도가니로 빠져들었다. 여기 저기서 '비바 베르디(베르디 만세)' '비바 이탈리아' '그라치에(감사합니다)' 등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스칼라 극장의 오랜 관례대로 합창이 다시 한 번 앙코르 연주되었을 때 객석은 눈물바다가 되었다. 그 순간 세계적인 디자이너이자 열렬한 베르디 오페라의 팬으로도 유명한 도메니코 돌체의 말이 떠올랐다. "베르디의 음악은 우리의 심장이요, 그의 음악은 우리의 피를 요동치게 만든다. 우리 이탈리아인 모두는 베르디의 아들이자 딸이다." **한겨레**

### 이 한 장의 나부코



#### 이탈리아 파르마 왕립극장 공연

2009년 10월, 베르디 예술의 본향인 파르마 왕립극장 Teatro Regio di Parma에서 열렸던 공연이다. 이탈리아의 젊은 신성 미켈레 마리오티가 지휘봉을 잡고, 거장 바리톤 레오 누치가 심리적으로 복잡다단한 나부코 역으로 혼신의 열연을 펼치고 있다. 그리스의 드라마틱 소프라노 디미트라 테오도시우의 불꽃 튀는 처절한 가창도 일대 장관을 이룬다. 간결하고 암시적인 무대 위에 고대 바빌론과 현대의 분위기를 버무린 다니엘레 아바도의 연출은 앞서 언급한 2013년 스칼라 '홀로코스트 나부코'의 바탕이 되었다. 전반적으로 이탈리아적인 감성이 진하게 넘쳐흐르는 무대다. *CMAJOR, 한글 자막*

####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공연

베르디 사극 오페라에 일가견이 있는 엘리야 모신스키의 장대한 연출이 돋보이는 공연이다. 나부코 역의 후양 폰스, 아비가일레 역의 마리아 굴레기나, 자카리아를 노래한 사무엘 레이미 등 대가수들의 열연도 감동적이다. 제임스 레바인의 선명한 지휘 아래 <나부코> 특유의 웅장하고 장대한 스케일과 남성적인 열정이 빛을 발하는 공연이다. *Deutsche Grammophon, 한글 자막*

#### 덧붙여...

한글 자막은 없지만 리카르도 무티 지휘의 1986년 스칼라 공연은 이 작품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희대의 명연이다. 무티는 바로 이 공연으로 스칼라 극장 음악감독에 취임했는데, 서곡부터 넘쳐흐르는 처절한 정열과 극단적인 열기는 놀랍기만 하다. 레나토 브룬스(나부코)와 게나 디미트로바(아비가일레) 또한 비할 바 없는 명창을 들려준다. *Warner Classics*

글을 쓴 항지원은 오페라와 이탈리아, 여행과 미식을 사랑하는 경계 없는 자유주의자이자 세계 시민의 삶을 꿈꾼다. 현재 성남아트센터 아카데미에서 '오페라 로열박스' 강의로 우리 시대의 문화 애호가들과 만나고 있으며, 유럽 14개 오페라 도시의 이야기와 작품들을 다룬 『오페라 살롱』의 저자이기도 하다.





이달의 책

# 음악과 학문, 문화를 읽다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역사를 통해 엿보는 음악가의 삶, 타인이 아닌 스스로를 위한 심리학, 인문학으로 읽는 빅데이터 이야기, 음식으로 살펴보는 중국의 근현대사까지. 봄을 기다리는 3월, 흥미로운 정보를 가득 담은 신간 네 권을 소개한다.

글 황희경 연합뉴스문화부 기자

## 길 위의 오케스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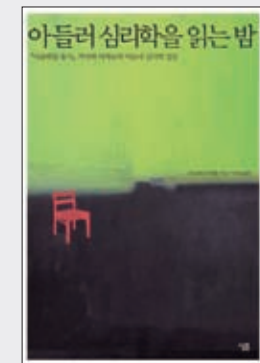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LSO)는 1912년 미국 순회공연을 떠났다. 당시 공연은 영국 오케스트라로서는 처음으로 대서양을 넘는 순회공연으로 화제를 모았다. LSO는 타이타닉 호를 타고 미국에 갈 뻔했지만 (다행히) 무산됐고, 배를 타고 가는 동안 선상에서 여객선 회사와 맺은 계약에 따라 선상 연주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첫 공연지인 보스턴에서 LSO는 뜻밖의 난관에 봉착한다.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에 자부심이 있던 비평가들이 LSO의 연주에 혹평을 쏟아낸 것이다. 순회공연을 거듭할수록 평가는 나아졌지만 공연의 중압감을 이기지 못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숨지는 사건도 발생했다.

LSO의 수석 플루티스트인 가레스 데이비스는 1912년 순회공연 당시 LSO의 팀파니 연주자였던 찰스 터너와 플루티스트 헨리 니스벳이 남긴 일기, LSO 기록 보관소에 남아 있는 자료, 당시 신문 기사들을 이용해 100여 년 전 순회공연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재구성했다. 데이비스는 1912년 순회공연과 100년 후인 2012년 있었던 LSO의 전 세계 순회공연 모습을 교차시키는 방식으로 오케스트라의 연주 여행에 얽힌 뒷이야기를 들려준다. 1912년 당시 LSO의 유일한 여자 단원이었던 하피스트 미리엄 티모시에 얽힌 이야기, 지휘자 아르투르 니키슈가 순회공연으로 받은 돈은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대략 50만 달러에 이른다는 내용 등이 재미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오케스트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아가 세계 정상급 오케스트라에서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음악가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가레스데이비스지음 | 장호연 옮김 | 18,000 | 아트북스



## 아들러 심리학을 읽는 밤

지난해 말 출간돼 베스트셀러 목록 상위권을 지키고 있는 책 『미움받을 용기』의 저자가 새롭게 펴낸 오스트리아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의 심리학 입문서. 일본의 철학자인 저자는 낮은 자존감을 극복하고 칭찬과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법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아들러 심리학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저자는 모든 사람에게서 사랑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미움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미움을 받더라도 자유롭게 살고 싶기 때문에 후자를 선택하겠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서 사랑받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당부한다.

기시미이치로 지음 | 박재현 옮김 | 13,800 | 살림



## 빅데이터 인문학 : 진격의 서막

미국 하버드의 젊은 과학자인 저자들은 책을 디지털화하는 프로젝트인 '구글 북스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새로운 실험을 했다. 이들은 디지털화된 책 800만 권을 데이터베이스 삼아 검색창에 특정 단어를 입력하면 그 단어가 지난 500년간 책에서 사용된 빈도의 추이를 그래프로 보여주는 '구글 엔그램 뷰어'를 만들었다.

책은 엔그램을 이용해 영문법의 변화부터 히틀러가 언제부터 유명해졌는지, 사상의 검열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다양한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빅데이터가 인문학 연구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책이다.

에릭스 에이든·장바티스트 미셸 지음 | 김재중 옮김 | 22,000 | 사계절



## 혁명의 맛

‘책상 다리만 빼놓고는 다 먹는다’는 중국 사람들. 그만큼 다채로운 중국 음식을 소재로 중국의 근현대사를 들여다보는 책이다.

미술품 감정을 위해 문화혁명 당시 중국을 처음 방문한 이래 30년간 중국을 오간 일본인 저자가 베이징과 상하이, 광둥, 쓰촨으로 대표되는 중국 4대 요리의 특징과 기원부터 중국식 사부사부인 ‘취귀’, 양 꼬치구이 같은 대표적 중국 음식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문화혁명이 음식 문화에는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고추를 매끼 먹다시피 할 정도로 매운 음식을 좋아했던 마오쩌둥의 이야기 등이 흥미롭다.

가쓰미요이치 지음 | 임정은 옮김 | 16,000 | 교양인





# 성남미디어센터 2015년 3월 상영회

성남아트센터내 큐브플라자 3층 미디어홀

**독립예술영화관**

●관람료: 4,000원  
●성남미디어센터 경회원, 노인, 청소년, 장애인 50% 할인  
●성남아트센터 유료회원 25% 할인

**3월 20일 (금) | pm19:30**  
**그림자들의 섬** 전

노동자들은 말한다. 자신이 처음 조선소로 흘러 들어왔을 때 품었던 꿈과 첫 월급의 기쁨, 자신이 만들었던 배에 대한 자랑, 노동자라는 지극한 새로운 싸움에 드물었던 기세 그리고 돌풍처럼 하나가 되었던 서로의 마음들까지, 하지만 지금 한진중공업에 예전의 활기는 온데간데 없다.

**3월 27일 (금) | pm19:30**  
**슈퍼 처방전 12**

응급실은 밥 먹듯이, 엑스레이는 셀카 찍듯이, 주사는 미친듯이...?역사상 가장 미친 캐릭터, 슈퍼초울트라 예민남의 등장! 훈훈한 외모, 능력, 유머까지 겸비한 남자 '로망' 하지만 결벽증, 건강염려증, 신경쇠약증까지... 세상 모든 질병을 끌어안은 슈퍼초울트라 예민남 때문에 그의 삶은 외롭기만 하다.

**큐브영화관**

●관람료: 무료  
●성남미디어센터 홈페이지 관람 신청자 우선  
●전여석에 대하여 당일 관람가

**3월 26일 (목) | pm19:00**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18**

응급실은 밥 먹듯이, 엑스레이는 셀카 찍듯이, 주사는 미친듯이...?역사상 가장 미친 캐릭터, 슈퍼초울트라 예민남의 등장! 훈훈한 외모, 능력, 유머까지 겸비한 남자 '로망' 하지만 결벽증, 건강염려증, 신경쇠약증까지... 세상 모든 질병을 끌어안은 슈퍼초울트라 예민남 때문에 그의 삶은 외롭기만 하다.

# INSIDE SEONGNAM

성남문화재단의 문화정책사업과 새로운 소식, 성남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시민 문화의 현장,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기업과의 동행 이야기, 그리고 성남아트센터 가족 여러분을 위한 다양한 생활·문화 정보를 수록합니다.



**CLUB+SARANGBANG**  
성남시 공무원 밴드 '사우스캐슬'

**INSIDE**  
한국지역난방공사

**SKETCH**  
2015 사랑방문화클럽 워크숍

**SNART NEWS**  
성남문화재단 안팎 소식

**ACADEMY**  
성남아트센터 아카데미

**SNART CALENDAR**  
성남아트센터 공연 및 전시 일정

**예매** 성남미디어센터 <http://www.snmedia.or.kr> 성남아트센터 <http://www.snart.or.kr>  
인터파크 티켓 <http://ticket.interpark.com>

**문의** 관람문의 성남미디어센터 031-724-8370, 8356  
예매문의: 031-783-8000



# 성남시 공무원 밴드 '사우스캐슬' 눈빛을 맞추고 사운드가 울릴 때면 기다리던 봄이 온다네



현실의 무거운 짐을 잠시 어깨에서 내려놓는 방법은  
즐거운 모색만으로도 충분하다.  
예컨대, 새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있는 집에  
작은 창문을 새로 하나 만드는 일이다.  
삶을 채우기 위해 꼭 거대한 변화를  
도모해야만 하는 것은 아님을 이들은 알고 있었다.

글 김나리 객원기자 + 사진 신진호 103PhotoStudio

대다수 도시인의 일상이야 대부분 뻘하다. 마냥 일만 할 수도, 마냥  
놀 수만도 없는 일이니 결국엔 '즐겁게 일하고 신나게 노는 것'만큼  
마땅한 답이 있을까. 하지만 그 쉬운 말이 결코 만만치 않다. 변수가  
많은 일상에서 밸런스를 찾고 유지한다는 건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힘을 필요로 한다. 게다가 고단하게도 때론 그것조차 전투적인 일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다. 성남시청 지하 1  
층 밴드 연습실. 화요일 밤이면 그들이 모인다.

## 생기 조금, 활력 조금, 즐거움 많이

성남시 공무원 밴드 사우스캐슬은 2004년 5월, 공무원이 되기 전 음  
악 활동을 했던 성남시 공무원 5명으로 시작되었다. 'South Castle'은  
직역하면 '남쪽의 성'이란 뜻으로, 성남에 위치한 남한산성의 첫 글자  
와 끝 글자를 따서 지었다고 한다. 공무원으로서의 업무와 가족과의  
삶이 인생이란 스케치북에 밑그림을 그리는 일이라면, 사우스캐슬이  
라는 취미 생활은 그 밑그림에 색을 칠하는 것과 같지 않을까.  
"밖에서 볼 때 공무원들은 철밥통에 편하게 근무하고 있다고 생각하  
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공무원들은 대부분 과도한 업무와 민원으로  
개개인의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있는 게 사실입니다. 괜히 공무원들  
이 술을 잘 먹는다고 하겠습니까(웃음)." (장세희, 일렉기타)  
5명이 시작한 밴드가 60명까지 늘어난 적도 있었다. 음악에 목말라하







“사우스캐슬은 ○○○이다”

“사우스캐슬은 힘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음악 들으면 위로를 많이 얻잖아요. 멜로디와 노랫말을 통해서 저도 많은 위로를 얻고 있고. 또 우리의 음악을 듣는 분들께 위로와 힘이 되고 싶습니다.

김차균 색소폰

“사우스캐슬은 탄산수다”

직장인이라면 겪는 문제들로 회의감도 들고 매너리즘에 빠질 찰나에 여길 들어오게 됐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두세 시간 진행되는 잠깐의 연습 시간이 제겐 큰 위안이 되죠. 잠시의 순간이라도 생활에 청량감이 들어요.

김현식 보컬

“사우스캐슬은 빛이다”

한줄기 빛 같아요. 지금 너무 바쁜 때여서 그런가 봐요. 저보다 선배들이 많으니까 말 안 해도 걱정해주시고, 그런 분들이 곁에 있는 것이 참 감사해요. 연습실에 오면 언제나 환해지고 따뜻해지는 느낌이에요.

임현정 보컬

던 사람이 그만큼 많았다는 뜻이다. 다양한 사람이 모여서 밴드 내에 통기타팀과 색소폰팀이 생기기도 했다. 덕분에 다양한 음악을 들려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밴드 결성 당시에는 생각도 못했던 일이지만 2009년 처음으로 성남시민회관에서 단독 공연을 했다. 이날 공연 이후에는 매년 단독 공연을 해보자는 의견이 많아 해마다 정기 공연을 실시하고 있다.

“첫 공연 하던 날은 무대 위에서 왜 그리도 몸이 뻐뻐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날 찾아주신 청중은 대다수가 같은 부서 동료나 멤버 가족들이었는데요, 관중 수는 적었을지 몰라도 분위기는 가장 좋았던 것으로 기억해요.” (원선준, 드럼)

천 마디 말보다 한 곡의 노래

사우스캐슬의 안정적인 동호회 운영에는 성남시의 후원이 컸다. 연습실을 제공해주고 연습과 공연을 위한 장비들의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성남시장님과 모든 직원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사우

스캐슬은 ‘호프데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직원들을 위한 정기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직원들과 함께 놀 수 있는 하루를 만든 것이다. 2010년부터 매년 진행 중인 이 행사는 성남시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지원한 맥주와 맛있는 치킨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처음엔 규모가 작았는데 매년 점점 커지고 있어요. 처음엔 치킨이 없었는데 어느새 100마리가 되더니 지금은 200마리가 됐네요(웃음).”

(원선준, 드럼)

“밴드 멤버 대부분이 외향적인 성격은 아니다 보니 화려한 무대 매너나 쇼맨십은 없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과 의지는 타 음악 동호회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거예요.” (장세희, 일렉기타)

직원들을 위한 무대는 올해 9월에도 진행될 예정이다. 음악적인 색깔이나 정체성 등에 치우치는 대신, 사우스캐슬의 음악을 보고 듣는 청중의 눈높이에 음악적 색깔을 맞춰 선보일 예정이라고 한다.

“저희는 음악에 고집부리고 이런 건 없어요(웃음). 매년 진행되는 정기 공연이 자리를 잡고 좀 더 확대되어서 직원들이 항상 그 공연을 기

다리고, 그날 하루만큼은 그간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영원히 지속되길 희망합니다.” (장세희, 일렉기타)

연습실에서 발견한 빛나는 순간들

“성남시는 소속 공무원이 200~300명에 이르는 큰 조직입니다. 같이 일하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가는 분이 훨씬 많죠. 밴드 들어오기 전엔 한 분 빼고는 다 처음 뵈 분들이었어요. 밴드 활동이 아니었다면 뵈지 못했을 분들이죠.” (김현식, 보컬)

같은 직장 동료들로 이루어진 밴드이다 보니 음악 외적인 부분에서 서로에게 의지하고 도움을 주고받기도 하고,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애로사항을 이해하고 감싸줄 수 있다는 점은 가장 큰 장점이다.

“야근 마친 뒤에 잠깐이라도 연습실에 들러서 얘기도 하고 동료들과 연습도 하다 보면 많은 도움도 되고, 그 순간이 기다려지곤 하더라고요.” (임현정, 보컬)

밴드 활동 속에서 소중한 사람을 얻는 것은 덤이다. 흠뻑 일하는 사

람들이 음악이란 공통점을 매개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일상이 빠듯하다, 혹은 날이 갈수록 체력이 떨어진다. 몸이 사려다면 얻지 못했을 것들이다.

열심히 일하고 즐겁게 생활하자. 사우스캐슬의 마인드는 어찌 보면 평범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이들이 생활을 가꾸어 빛을 내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큰 변화보다는 작은 화단을 가꾸듯 조금씩 섬세하게

매만져 삶의 결을 바꾸는 일, 돌아보면 우리 곁엔 줄곧 동료들이 있었고 음악이 있었다. **매년**

고 음악이 있었다. **매년**





## 한국지역난방공사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동행

1985년 설립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30여 년간 전국 곳곳을 때로는 따뜻하게, 때로는 시원하게 해준 고마운 기업이다. 각지의 소외된 이웃에 다가가고, 성남문화재단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의 문화예술을 꽃피우는 데 일조해온 착한 기업이기도 하다. 성남문화재단과 오랜 기간 상생해온 기업, 주목할 만한 행보를 보여주는 기업을 찾아가는 'Inside'. 그 시작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진정성 있는 메세나' 이야기와 함께한다.

글 조이라 객원기자 + 사진 제공 한국지역난방공사

### 행복한 에너지 세상을 만드는 에너지 크리에이터

사명 때문일까, 한국지역난방공사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바로 '온기'다. 절반은 맞는 이야기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따뜻한 기업'인 동시에 '시원한 기업'이다. 지역 냉난방 시스템을 통해 추운 겨울날을 포근하게 데우고, 한여름의 무더위를 해소해주기 때문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지역 난방은 주거용·상업용 건물에 개별 열 생산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열병합발전소 등 첨단오염방지설비가 완비된 대규모 시설에서 생산된 열을 넓은 지역에 공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마찬가지로 지역 냉방은 대규모 열 생산 시설에서 생산된 온수 또는 냉수를 일정 구역에 일괄적으로 공급해 냉방하는 방식으로, 지역 냉난방 시스템은 친환경적일 뿐 아니라 경제성도 탁월한 선진형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1985년 '에너지 절약과 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 편의 증진'을 기치로 설립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30여 년간 전국 곳곳에 편리하고 쾌적한 지역 난방을 공급해왔고, 이를 토대로 세계 최대 규모의 지역 난방 전문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현재 전국 18개 사업장에서 125만 가구와 2,020개 건물의 냉난방을 책임지고 있으며, 1997년 전력 생산을 시작으로 신재생에너지사업, 해외사업 등 사업 다각화를 모색함으로써 국익 창출과 지역 경제 성장에도 큰 기여를 해왔다.

사업 확장과 더불어 투명 경영, 동반 성장을 위한 상생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는데, 그 결과 '2014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 평가' 공기업 부문 1위 선정, '제12회 한국윤리경영대상' 공기업 대상을 수상하는 등 뜻깊은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무엇보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임직원들에게는 공기업으로서 영리를 추구하기보다는 사회적 책임을 먼저 다하는 깨끗하고 따뜻한 기업이라는 자부심이 있다. '도전'과 '열정', 그리고 '상생'을 핵심 가치로 품고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술, 소외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더 많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공통의 꿈을 갖고 있다.

### 나누는 기쁨, 따뜻한 세상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사업뿐 아니라 다방면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서도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바로 사내 봉사 조직인 행복나눔단. 행복나눔단은 '나누는 기쁨, 따뜻한 세상'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민과 소통하며 체계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전 임직원이 뜻을 모아 2004년 12월 창단했다. 행복나눔단에는 임직원의 90%가 소속되어 있는데, 이들은 각각 구좌를 개설해 소정의 금액을 모금한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기부해서 매년 모이는 행복기금이 무려 1억 원 이상. 이를 기반으로 지사별, 지역사회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친다.

2006년부터 이어진 사랑의 난방비 캠페인도 빼놓을 수 없다. 굿네이버스, 해피빈, MBC 라디오 <여성시대>와 함께하는 사랑의 난방비 캠페인은 난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난방비를 지원하는 모금 행사다. 처음 5천만 원 정도였던 모금액이 이제는 6억 원에 육박할 정도로 큰 성원을 얻었다.

아울러 1사1촌 자매결연 및 마을 소득 증대 방안 모색 등의 농촌지원 사업, 장애아동 재활병원 건립비 모금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은총이와 함께하는 철인 3중경기대회', 강원도 폐광촌 예미초등학교 학습 환경

성남시 분당동에 소재한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전경



매년 여름 분당구 중앙공원을 찾아오는 파크 콘서트







**01**  
저소득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는  
'사랑의 연탄 배달'



**02**  
한국지역난방공사가  
후원한 성남문화재단 파크  
콘서트의 모습. 대한민국  
대표 록밴드 들국화의 공연  
장면

**03**  
성남시 중원구에 위치한  
홀몸노인 복지주택 아리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성남시, 금호아시아나가  
함께 건립에 참여했다



개선 등으로 전국 각지에 나눔을 전하고 피해대 아동 지원, 독거노인  
을 위한 점심 배식 봉사활동, 김장 김치·연탄·동지 팔죽 나눔 행사 등  
을 통해 지역 이웃들에게 살뜰하게 다가오고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지원도 눈에 띈다.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정착 및 사회 진출을 위해 한국어 교재를 전달하고, 성남시지역사회  
복지협의체와 '한국어교육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또한  
성남 지역에 노인 전용 주거 시설 '아리움'을 짓고, 매달 물품 지원 및  
찾아가는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노년층  
을 고려해 지은 아리움 1층에는 카페테리아를 만들어 운영함으로써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임직원들은 '따뜻한 마음이 켜켜이 쌓이면 그것  
이 곧 세상을 변화시키는 밑거름이 된다'고 믿는다. 따라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앞장서고 '행복한 에너지 세상'을 만들어나가겠다는 뜻  
을 품고 있다.

**문화예술을 통한 아름다운 어울림**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의미 있는 행보는 지역사회 발전, 이웃과의 나  
눔을 넘어 문화예술을 키우는 뜻으로 이어진다. '기업의 책임'과 '메  
세나'가 화두로 떠오르며 많은 기업이 메세나 활동에 뛰어들어 가운데  
한국지역난방공사 또한 성남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지원 활동을 폭  
넓게 진행하고 있는 것.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남문화재단이 진행하는 파크 콘서트와 마티네

콘서트 후원이다. 널따란 잔디 위에 몸을 누이고 음악과 함께하는 여  
름밤의 야외 음악회, 중앙공원 파크 콘서트를 찾은 시민의 반응은 열  
광적이었다. 클래식과 대중가요를 넘나드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한  
몫했지만 무엇보다도 열린 공간에서 진행되는 만큼 누구나 쉽게, 가  
벼운 마음으로 다가올 수 있었다.

아침 나절의 음악회, 마티네 콘서트도 마찬가지였다. 주부, 실버 세대  
등 다양한 관객층을 깊이 있는 음악의 세계로 끌어들이고, 간단한 브  
런치와 함께 즐기는 음악회, 관객과 관객이 만나 자연스럽게 이야기꽃  
을 피우는 새로운 문화가 자리 잡았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성남 시민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음악회를 후원  
함으로써 지역 주민과의 어울림을 실천하고자 했다. 성남 시민에게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을 통해 더욱 풍성  
한 삶을 선물하고자 했다. 문화예술을 누리는 시민에게도, 성남문화  
재단에도, 한국지역난방공사에도 참 고마운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성남문화재단과의 인연을 더욱 공고히 다져 지속적으로 문  
화예술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 성남문화재단과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윈윈하는 파트너라는 말도 덧붙인다.

사회에서 그 역할과 권위를 인정받은 기업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문  
화예술을 가꾸는 데 기여하는 것이 메세나라면, 언제나 나눔을 생각  
하고, 실천하며, 소통하고자 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행보는 그 본  
질과 맞닿아 있다. 문화도시 성남을 만들어가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값진 도전과 열정에 진심 어린 응원을 보낸다. **하태우**

2015 시리즈 | 연극 만원滿員 농치기 아까운 화제작을 만나다

**미안**  
늘근도둑이야기  
9.18금-20일  
부조리한 사회에 날리는  
통쾌한 웃음

**취미인생**  
4.17금-19일  
수상한 네 남자  
비밀의 방에 모이다

**유도소년**  
5.29금-31일  
1997년의 아날로그  
감성을 무대로!

**작업의 정석**  
12.11금-13일  
실전연애코미디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  
전석 10,000원

금 4:00&8:00pm 토/일 2:00&5:00pm  
031-783-8000 www.snart.or.kr  
1544-8117 www.interpark.com







## 2015 사랑방문화클럽 워크숍 사랑방문화클럽, 2015년 새로운 길을 찾다

2013년 문화기본법 제정에 이어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전국 곳곳에서는 생활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과 동호회 활동이 활발하게 확대, 진행되고 있다. 성남문화재단은 이미 2006년 성남지역 생활예술실태조사를 토대로 2007년부터 본격적인 생활예술동호회 네트워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중 사랑방문화클럽은 생활예술의 전국적 대표 브랜드이자 민관협력의 성공사례로 꼽힌다. 올해로 9년째를 맞이한 사랑방문화클럽은 그동안 지역전통문화브랜드로 국무총리상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돋보이는 성과와 성장으로 '생활예술의 도시 성남'을 표방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글 박지훈 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 차장 + 사진 최재우·이학현

2015년 사랑방문화클럽은 중요한 전기를 맞고 있기도 하다. 전국 생활예술동호회 네트워크 활동과 지원정책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가장 앞장선 롤모델이었던 사랑방문화클럽의 향후 과제와 역할에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는 중이다.

사랑방문화클럽 운영위원회는 그동안 총 3차례에 걸친 준비회의와 임시위원회를 통해 올해의 주요 방향을 선정했다. 장르별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회원 클럽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조직의 토대를 강화하고, 사랑방문화클럽마다 사랑방축제에 생활예술 창작 내용을 반영해 생활예술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방안이 그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정관개정안과 운영위원회 구성안, 2015년 사업계획이 정리되었고, 대의원총회를 겸한 1박2일의 워크숍 준비가 마무리됐다. 2월 7일과 8일에 1박2일로 진행된 2015년 사랑방문화클럽 워크숍은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클럽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내용을 심도 깊게 논의하고 결정하는 자리였다. 이번 워크숍은 역대 최대인 204명의 클럽지기와 운영위원들이 모여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 워크숍 첫째 날,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생각하다

2월 7일 토요일, 분당구 율동공원 인근에 자리한 새마을운동중앙연구원 제4강의실. 워크숍 시작인 2시를 앞두고, 운영위원들과 재단 문화기획부 직원들은 일찌감치 행사 준비로 바빠 움직이고 있다. 행사 진행 장소로 안내하는 표지판 붙이기, 참가자 ID카드와 서명부 확인, 회원들에게 나눠줄 자료집과 프로젝트북, 경품 등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다. 한쪽에서는 오늘 기증할 도서를 수거하기 위한 박스 작업이 한창이다.

하나 둘씩 부푼 기대와 반가운 미소를 띠고 회원들이 모여들었고, 운영진들과 함께 손잡고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뒤 자리를 잡았다. 올해는 각 클럽의 장르별로 배정된 자리에 앉아 장르 대표로 운영위원을 추천하고 선정하도록 진행했는데, 공통의 관심사가 많아서인지 곳곳에서 이야기꽃이 넘쳐났다. 행사 장소인 176석 규모의 강의실은 거의 자리가 꽉 찼는데 아직도 접수대는 붐볐다.

화면 가득 펼쳐지는 2014년 사랑방문화클럽 활동영상, 그동안의 성과를 담아낸 프로젝트북을 보며 회원들의 얼굴에는 아련한 감회가 넘쳐났다. 중간중간 등장하는 자신들의 모습에 즐거운 미소를 머금기도 하고, 회원들과의 추억 속에서 보다 나은 올 한 해를 다짐하는 표정이었다.

### 모두의 정성으로 아름다운 씨앗을

정길선 사랑방문화클럽 운영위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워크숍에서는 정은숙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기용 명예운영위원장의 인사말과 격려가 이어졌고, 회원들은 뜨거운 환영의 박수로 화답했다. 특히



성남문화재단 정은숙 대표이사.  
회원들의 정성이  
사랑방을 풍성하게 만드는  
주인공이라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사랑방워크숍에 대표이사가 참석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사랑방문화클럽에 대한 재단의 관심도를 알 수 있었다.

“취임한 지 이제 두 달 남짓이지만, 전국적인 부러움과 벤치마킹 대상이 된 사랑방문화클럽의 명성은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2015 사랑방의 사업계획을 결정짓는 자리입니다. 한 해의 농사를 위해 씨도 잘 뿌려줘야 하겠지만, 온갖 정성으로 잘 가꾸는 것이 더욱 중요하겠지요. 회원 한 분 한 분의 정성이 사랑방을 풍성하게 만드는 주인공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고 화합해서 더 발전하는 사랑방이 되고, 이로 인해 모두가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정은숙 대표이사)

이어 해피유 작은 도서관에 회원들이 정성껏 모은 기증도서를 전달했고, 성남 지역의 문화협동조합인 '문화숨' 류정에 강사가 진행되는 퀴즈와 게임이 시작됐다. 옆자리, 혹은 뒷자리 사랑방 회원들과 하나 되는 유쾌한 퀴즈 타임이 열기와 웃음 속에 정신없이 흘러가고 주제 강의가 이어졌다.

'지역문화 3.0시대 성남 사랑방문화클럽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첫 강의는 지난해 문화기획인력양성아카데미를 진행한 윤성진 한국





01+02+03

'문화 숨' 류정에 강사가 진행한 퀴즈와 게임 순서. 열자리, 혹은 뒷자리 사랑방 회원들과 하나 되는 유쾌한 퀴즈 타임이 열기와 웃음 속에 진행되었다



문화기획학교 상임이사가 진행했다. 생활예술 관련 법과 제도 정비 현황, 전국 생활예술동호회 활동과 지원 정책 현황에 이어 그간 생활예술의 선도적 역할을 해온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 활동의 의미와 역할 평가가 뒤따랐다. 현재에 만족하거나 자만하지 말고 더 많은 클럽으로 새로운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윤성진 이사의 메시지였다. 성남문화재단의 김보성 문화진흥국장이 진행한 두 번째 강의 '사랑방문화클럽과 문예운동'은 일본, 영국, 미국 등 생활예술 선진국의 사례 및 이를 통해 본 사랑방문화클럽의 의의와 과제를 풀어나갔다. 일본 우타고에 팀과의 교류를 예로 들며 철저한 생활문화의 모델로서 본받을 점과 일본의 생활문화상을 들려주었고, 예술가소득지원법을 통해 아마추어 예술을 강조한 네덜란드의 문화정책보고서 등 세계 각국의 문화정책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수 있는 사례들을 이야기했다. 긴 세월 문화정책 전문가로 활동해온 김보성 국장의 생생한 경험과 직설적 화법이 어우러져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달한 순서였다. 저녁식사 이후 진행된 대의원총회에서는 정관 개정과 운영위원 선임이 있었다.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 운영위원장 임기는 별개 산정으로 하고, 운영위원의 자격은 1년 이상 사랑방문화클럽 회원으로 활동한 클럽의 대원으로 결정했다. 열면 논의와 공방 속에서 진행된 신입운영위원회 구성은 장르와 상관없이 운영위원장을 선임하고 전시분야와 공연 분야에서 각각 1명의 부위원장, 15개 장르로 나눠 운영위원을 선임했다. 2015년을 이끌어갈 새로운 운영위원장으로 한국다문화연구소의 정천석 소장, 부위원장에 분당해드로잉의 박봉덕 회원, 동네사람들의 장계석 회원이 선임되었다.

**지역에 문화를 더하다**

이어 정천석 신임 운영위원장의 진행으로 올해 사랑방문화클럽 사업 계획이 발표되고, 심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확정했다. 올해는 사랑방문화클럽한마당과 함께 문화공헌프로젝트사업을 확대해 지역의 문화나눔을 더욱 활발하게 실천하고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를 더 확장시키는 한 해가 될 것을 결의했다. '사랑방 클럽데이'를 통해 개별 클럽과 회원들의 다양한 발표의 장을 마련하고 공통의 관심사에 대한 문화예술교육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가을에 진행될 제9회 사랑방문화클럽축제는 전국시민문화클럽한마당을 확대 진행해 전국생활예술을 선도하는 사랑방문화클럽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사랑방퍼레이드>를 더욱 확대·보완해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한다는 구상이다. 또 각 동 주민자치협의회와 연계해 권역별 <테마가 있는 마을축제>를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주민자치센터 문화강좌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사랑방문화클럽 회원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열어주고, 클럽 확대를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의 축제는 시민이 만든다**

이어진 사랑방문화클럽한마당과 문화공헌프로젝트 사업별 팀 구성을 위한 분과토론은 올해 사업의 씨앗을 뿌리는 자리인 만큼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참신한 기획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마을축제형, 전시체험형, 클럽데이, 문화공헌프로젝트 등 유형별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 생활 속의 우리 이야기를 소재로 사업을 만들고 창작하는 창작기획워크숍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이어진 장기자랑과 친교 프로그램은 그야말로 '불타는 밤'의 연술이었다. <여섯줄 사랑>의 신용배 회원, <분당요들클럽> 신성봉 회원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는 통기타부터 색소폰, 국악까지 말 그대로 버라이어티쇼가 펼쳐졌다. 밤 12시에 '반강제로' 정리된 자리는 숙소로 이어져 새벽까지 곳곳에서 못 다한 토론과 장기자랑이 이어졌다. 이렇게 끈끈한 관계가 사랑방을 묶어주는 또 다른 요소가 아닐까 싶다. 다음날 아침에 진행된 기류 체조에 대한 호응도 뜨거웠다. 또 올해도 워크숍에 참여하는 회원들이 책을 모으고 출판사의 후원도 얻어, 작은 도서관연합회에서 추천한 <해피유 중증장애인 도서관>에 800여 권에 달하는 도서 기증식을 진행함으로써 사랑이 넘치는 사랑방워크숍이 되었다. '생활예술로 하나 된 도시, 성남' 건설을 위한 2015년 한 해가 희망차게 시작되었다. '지역문화대표브랜드'로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사랑방문화클럽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한다. 사랑방문화클럽, 파이팅! **하도**



04 사랑방문화클럽 회원들이 정성으로 모은 도서 800여 권이 <해피유 중증장애인 도서관>에 기증되었다

05 윤성진 한국문화기획학교 상임이사, 김보성 성남문화재단 문화진흥국장의 강의. 지역문화 3.0시대 성남 사랑방문화클럽의 과제, 사랑방문화클럽과 문예운동을 주제로 다양한 사례를 살펴볼 수 있는 자리였다

**MINI INTERVIEW**

**정천석** 사랑방문화클럽 신임 운영위원장



**사랑방문화클럽의 새로운 운영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랑방문화클럽은 '예술의 생활화, 생활 속의 예술'의 브랜드가 되었으며, '생활문화예술 도시 1번지 성남'을 떠오르게 하는 생활문화예술동호회입니다. 2015년 2월 현재 205개 클럽이 가입해 성남시 전역을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헌나눔을 실천해나가고 있습니다. 훌륭한 역대 명예운영위원단과 신임 운영위원단의 소통과 화합을 통해 '시민이 주인공이 되고, 시민과 함께하는 사랑방문화클럽'이 되도록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 사랑방문화클럽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변화나 사업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2년 동안 운영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되살려, 문화클럽 활동의 역량을 강화하고 성남 시민이면 누구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본도심과 신도심의 문화격차를 해소해나갈 계획입니다. 문화소외계층과 지역을 찾아가는 문화공헌 활동도 더욱 활성화시켜나겠습니다. 이를 위해 클럽 간의 교류와 친목을 강화하고 더욱 발전적인 사랑방운영위원회로 많은 시민들과 함께하는 사랑방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 사랑방문화클럽 운영위원회 명단**

직위	장르	성명	소속클럽
위원장	공연	정천석	한국다문화가족연구소
부위원장	전시(회화)	박봉덕	다사랑회
	공연(국악)	장계석	동네사람들
운영위원	공연(오케스트라)	김진숙	분당 챔버 오케스트라
	공연(서양 음악)	김형미	보네르플루트오케스트라
	공연(국악)	최희서	청실홍실
	공연(합창)	안예환	비전콤파이어
	공연(색소폰)	이영숙	MJ 색소폰
	공연(밴드)	양석관	메아리뮤직밴드
	공연(포크기타)	신용배	여섯줄사랑
	종합(문인)	김민서	해동문인협회
	공연(클래식기타)	이희일	세실기타
	공연(악기 연합)	최윤혁	점핑플리즈
	전시(회화)	김해수	늘미랑
	전시(회화)	조현숙	도화지애
	전시(사진)	선순남	포토저널성남
	전시(공예)	박미해	토향
	공연(무용)	하미영	이매우리춤



## 성남문화재단, 새 비전 '품격 있는 예술, 참여하는 생활문화' 선포

성남문화재단이 제2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비전으로 '품격 있는 예술, 참여하는 생활문화'를 선포했다. 지난해 12월 재단 창립 10주년과 제4대 정은숙 대표이사 취임에 이어 올해 성남아트센터 개관 10주년을 맞은 만큼, 그동안의 성과를 정리하고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비전과 미션을 수립한 것이다.

재단은 이를 위해 지난 1월 12일 대표이사과 전 부서장이 참여한 경영전략회의를 개최, 새로운 10년을 향한 비전을 선정했다. 또 '역동적 기획과 문화 콘텐츠 다양화' '시민의 지혜로 여는 성남형 생활예술' 두 가지를 비전 달성을 위한 미션으로 정해, 품격과 다양성을 아우르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고, 시민의 집단지성을 활용해 그 지혜로 생활문화도시 성남을 만드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어 1월 26일~27일 열린 전 직원 워크숍에서 새 비전과 미션을 선포했다. 이 자리에서 정은숙 대표이사는 "품격 있는 예술은 순수 예술과 대중 예술의 구분도 아니고 유명한 작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고민과 노력, 지혜와 열정이 담긴 역동적 기획으로 관객과 소통해 감동을 줄 수 있는 예술이다"며 작품의 완성도를 위한 노력을 전 직원에게 당부했다. 또 "앞으로는 시민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일상 속에서 주체적으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정책을 연구하고, 사업을 실행해나가야 하는 시대다"라며 재단의 역할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성남문화재단은 앞으로 새 비전 달성을 위해 전 직원이 소통과 참여로 화합해 감동 주는 행복문화재단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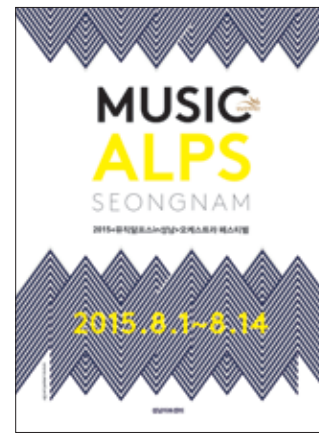


## 2015년 성남시 야외공연장 수시대관 안내

성남문화재단이 2015년도 성남시 야외공연장 수시대관 신청 접수를 실시한다. 분당구 중앙공원 내에 위치한 성남시 야외공연장은 매년 여름 <파크 콘서트> 등 다양한 야외무대로 시민과 호흡해온 공간으로, 비가 와도 자리에 앉아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480석 규모 스탠드, 무대 앞 스탠드 뒤편에 펼쳐진 넓고 푸른 잔디밭,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소화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시설이 특징이다. 올해 야외공연장 대관 심사에서는 예술성, 작품성 및 전문성을 갖춘 작품과 성남 시민에게 유익한 문화예술 공연 작품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며, 본 공연이 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대관이 불허된다.

- **현황** 객석 480석(잔디객석 포함 수용가능인원 11,000명), 음향장비 30kW(85종 293점), 조명 178kW(25종 301점)
- **대관 기간** 4월 20일~11월 7일(총 106일, 상세 대관 가능일은 성남아트센터 홈페이지 참조)
- **접수 기간** 2월 16일~10월 30일(평일 9시~18시,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제출 서류**  
대관 신청서(소정 양식) 1부(성남아트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공연 계획서(공연 참고 자료, 홍보 영상물, 혹은 사진 등) 1부 | 출연자(단체) 계약서 또는 증빙 자료 사본 1부 | 출연자(단체) 및 공연 주최사 약력 1부 | 사업자등록증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접수방법** 팩스·방문·우편·이메일(전화 및 구두 접수·예약 불가)
- **승인 통보** 접수 후 3일 이내
- **문의 및 접수처**  
주소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50  
성남시 야외공연장 대관 담당자 앞  
전화 031-711-7762, 031-729-4252  
팩스 031-719-3737  
e-mail 7710youngtea@snart.or.kr
- **관객을 위한 문화예술 공연물이 아닌 단체 자체 행사는 대관하지 않으며, 정기 무대 점검 및 내부 사정에 따라 대관 가능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뮤직 알프스 in 성남> 오케스트라 단원 오디션 실시



성남문화재단이 <뮤직 알프스 in 성남> 프로젝트를 위한 오케스트라 단원 모집을 실시한다. 오는 8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2주간 진행되는 <뮤직 알프스 in 성남>은 그동안 <장한나의 앰슬루트 클래식>으로 청소년 음악 교육 프로젝트의 모델을 제시해온 성남문화재단이 새롭게 선보이는 프로젝트로 오케스트라 워크숍·공연·마스터클래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세계적 명성의 스위스 툰할레 오케스트라 단원, 취리히 음악원 교수진이 함께 참가하는 이번 국제 교류 프로젝트는 성남시와 취리히 두 도시의 청소년들이 오케스트라 연주를 통해 상호 소통하는 문화예술 교류 사업이기도 하다.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한국 단원들은 2주간의 연습 기간에 스위스 측 참가자들과 함께 집중적으로 교류하고 새로운 경험을 쌓게 되며, 프로젝트에 참가한 성남시 청소년 중 일부는 2016년에 취리히 현지를 교차 방문해 다양한 현지 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할 예정이다. 성남문화재단은 <뮤직 알프스 in 성남> 프로젝트 오케스트라 단원 모집을 위해 2월 24일부터 4월 24일까지 2개월에 걸쳐 오디션 신청을 받는다. 우편 접수만 가능하며 심사는 제출된 응시 원서와 연주 음원 및 동영상으로 이루어진다.

- **오디션 신청 기간** 2015. 2. 24(화)~4. 24(금)
- **지원 자격**  
만 25세 미만 성남시 거주 초·중·고생, 대학생 등  
전기간(8.1~14) 참여가능해야 하며, 대학생 이상은 타 지역 거주자 신청 가능
- **모집분야**  
Kids Strings(현악기 약 30명, 초등학생)  
String Orchestra(하프 포함 현악기 약 30명, 중고생)  
Youth Symphony Orchestra(오케스트라 전 파트 약 60명, 대학생 이상)
- **참가혜택**  
뮤직 알프스 오케스트라 단원 활동(연주 2회), 마스터클래스 및 오케스트라 협연(신청자 중 심사로 선정), 기타 교육 프로그램 참가, 수료증 수여(전 기간 참가자에 한함), 2016년 스위스 방문 교환 프로그램 참가 신청 자격 부여(수료자에 한함)
- **제출 서류 및 자료**  
응시 원서 성남아트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동영상(avi, m4v, mp4, mpeg, mpg, wmv), 음원(mp3)  
시대·장르가 다른 2곡으로 곡당 5~7분 분량 | 최근 1년 내 자료 | 작곡가, 작품 및 지원자 이름 반드시 명시 | 휴대전화 녹음·녹화 자료 제출 불가
- **신청 방법(등기우편 접수) 및 문의**  
접수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08 성남아트센터 공연기획부  
봉투 겹면에 '뮤직 알프스 지원 신청서' 반드시 명기(4월 24일 도착분까지 유효)  
이메일, 킷서비스 접수 불가  
문의 031-783-8055(평일 10시~18시)
- **결과 발표** 5월 21일(홈페이지 및 개별 공지)

## 성남아트센터 후원회, 2015년 제1차 운영위원회 개최

성남아트센터 후원회는 2015년도 제1차 운영위원회를 지난 2월 3일 서현동 고가한정식에서 개최했다. 후원회장인 장형환(주)네 패스하이테크 대표를 비롯, 후원회 고문인 여영동 前 씨너스(주) 회장, 자문위원인 이완근 신성솔라에너지 대표이사 회장, 서양화가 전명자, 정용석 성남FM방송 대표, 부회장 강효주 필립강갤러리 대표, 상임이사 백중훈(주)태영건설 상무, 안봉혁 유씨티코리아(주) 대표이사 회장, 황광석 KCO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연태 제일치과 원장이 참석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2014년 후원회 결산 및 주요 사업 보고와 2015년 정기 총회 일정 및 안건에 대한 협의, 후원회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성남아트센터 아카데미

2015년 아카데미 봄 감상 강좌 안내



**황지원** 클래식·오페라 평론가, 문화여행 칼럼니스트, 법무연수원·이화여대 등 특강, 미디어에이트 대표

### 오페라 로열박스

화 10:30~12:30 | 16회 230,000원 | 40명 | 미디어 홀 | 3/3 개강

인류의 지혜가 만들어낸 최고의 예술! 매혹적인 오페라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세계적인 오페라하우스에서 펼쳐지는 최고의 공연을 작품 안팎을 넘나드는 유려하고 현장감 넘치는 해설과 함께 감상합니다.



**윤우학** 충북대 미술과 교수, 한국미술평론가협회 고문, 국립현대미술관 자문위원,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위원장)·국제미술평론가협회 위원·월간미술대상 심사위원장 역임

### 철학과 미학으로 해석해가는 서양미술사

수 10:30~12:30 | 15회 230,000원 | 35명 | 음악실 | 3/11 개강, 3/4 오픈 특강

단순히 작품을 감상하는 기계적인 감상 시간이 아닌 심도 깊고 밀도 높은 강좌인 동시에 재미있고 흥미로운 교양으로 가득 찬 강좌. 중간 과정부터 참여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김상현** 작곡가, 영화음악가, 서울대 작곡과·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졸업, 예술의전당·문예진흥원 등 음악 강좌 진행, <내 이름은 김삼순> <케세라세라> <연애소설> 등 영화·드라마 음악감독

### 즐거운 클래식 음악 감상

금 10:30~12:30 | 15회 230,000원 | 40명 | 미디어 홀 | 3/13 개강

모차르트, 헨델, 하이든에서 바흐까지 즐거운 클래식 음악을 감상해봅시다.



**황장원** 클래식 음악 칼럼니스트, 현재 SBS <섹션 라디오> 고정 게스트 출연 중(매주 일요일 오전 8시), 클래식 음악 교양강좌 전문 강사, 무지크바움 실장 역임, 한국바그너 협회 사무간사 역임

### 교향악의 거인들 1

목 10:30~12:30 | 16회 230,000원 | 40명 | 미디어 홀 | 3/12 개강, 3/5 오픈 특강

베토벤에서 말러에 이르는 정통 '독일-오스트리아' 계열의 작곡가들을 위시해, 그 주된 흐름에서는 조금 비껴나 있지만 역시 '교향악'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파악할 수 있는 작곡가들까지 두루 살펴봅니다. 먼저 베토벤의 작품들을 비교적 자세히 짚어본 다음 그 뒤를 이은 거인들의 광대한 교향악 세계를 간략하면서도 심도 있게 조망해보고자 합니다.



**서남준** 음악평론가, 아리랑국제방송 프로듀서, '월간 음악' '월간 스테레오' 편집장, KBS 1, 2·MBC·CBS FM, DBS 라디오 등에서 크로스오버, 영화음악, 월드뮤직 등 다양한 음악 장르의 방송 및 집필 활동

### 세계 음악 문화 오디세이

목 14:00~16:00 | 16회 230,000원 | 40명 | 미디어 홀 | 3/5 개강

신대륙을 발견하고 세계를 변화시킨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 가톨릭과 이슬람, 유대교의 문화가 서로 공존했던 '알 안달루스'의 나라, '돈 키호테'와 '카르멘', 집시와 열정의 예술 '플라멩코'의 나라, 그리고 프란체스코 타레가와 안드레스 세고비아의 나라... 남유럽의 강렬한 태양처럼 뜨거운 열정으로 삶과 예술을 채색해온 스페인 문화와 음악을 살펴봅시다.

음악과 문학, 영화를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숨 가쁘게 변화하는 세상을 바라보는 문화적 안목을 폭넓고 새롭게 다듬어가는 지적 오디세이 <서남준의 세계 음악 문화 오디세이>. 2015년 봄 학기부터는 '스페인 문화와 예술의 매혹'이라는 주제로 중세 스페인 황금시대의 배경을 구성하는 남부의 고도 세비야와 안달루시아, 그라나다에서 마드리드까지, 스페인의 전역을 아우르면서 스페인 문화와 예술의 어제와 오늘을 살펴봅니다.

강좌	강사	요일	시간	횟수	강좌료	장소	정원
즐거운 클래식 음악 감상(3/6 개강)	김상현	금	10:30~12:30	15	230,000	미디어홀	40
세계 음악 문화 오디세이(3/5 개강)	서남준	목	14:00~16:00	16	230,000	미디어홀	40
철학과 미학으로 해석해가는 서양 미술사(3/11 개강)(3/4 오픈 특강)	윤우학	수	10:30~12:30	16	230,000	음악실	35
교향악의 거인들 1(3/12 개강)(3/5 오픈 특강)	황장원	목	10:30~12:30	16	230,000	미디어홀	40
오페라 로열박스(3/3 개강)	황지원	화	10:30~12:30	16	230,000	미디어홀	40

강좌	강사	요일	시간	횟수	강좌료	장소	정원
신범으로 푸는 고급 샴플이춤	신미경	금	10:20~11:50	18	250,000	무용실	12
신범으로 배우는 승무	신미경	금	12:50~14:20	18	250,000	무용실	12
신범으로 푸는 기초 샴플이춤	신미경	금	14:30~16:00	18	250,000	무용실	12
한국 전통춤 배우기(초급)	채리희	월	9:30~11:00	18	250,000	무용실	12
한국 전통춤 배우기(중급)	채리희	월	11:00~12:30	18	250,000	무용실	12
한국 전통춤 배우기(고급)	채리희	월	13:00~14:30	18	250,000	무용실	12
한국 전통춤 배우기(연구반)	채리희	월	14:40~16:10	18	250,000	무용실	12
체형보정 발레(성인 초급)	최아라마	화	11:40~12:40	15	150,000	무용실	10
체형보정 발레(성인 중급)	최아라마	화	10:30~11:30	15	150,000	무용실	10

강좌	강사	요일	시간	횟수	강좌료	장소	정원
수채화 A	김영선	금	10:00~13:00	18	200,000	미술실	20
서양화 B(서양화 기초)	서인천	수	19:00~21:00	18	200,000	미술실	20
수채화 B	서인천	화	19:00~21:00	18	200,000	미술실	20
문인화/사군자 A	손외자	월	10:00~13:00	18	280,000	미술실	12
문인화/사군자 B	손외자	월	14:00~17:00	18	280,000	미술실	12
인체크로키 A(직장인)	이중희	목	19:00~21:00	18	200,000	미술실	20
인체크로키 B	이중희	목	14:00~17:00	18	200,000	미술실	20
현대미술 A	장동문	화	10:00~13:00	18	200,000	미술실	20
현대미술 B	장동문	화	14:00~17:00	18	200,000	미술실	20
서양화 A(소묘/드로잉/수채화)	조동균	수	10:00~13:00	18	200,000	미술실	20
유화와 아크릴	조인희	목	10:00~13:00	18	200,000	미술실	20

강좌	강사	요일	시간	횟수	강좌료	장소	정원
디지털 카메라와 사진	이광용	수	10:00~12:30	18	280,000	세미나실	15
디지털 사진창작 A	이광용	월	14:00~16:30	18	300,000	세미나실	15
디지털 사진창작 B(직장인)	이광용	월	19:00~21:30	18	300,000	세미나실	15

강좌	강사	요일	시간	횟수	강좌료	장소	정원
재즈랑 반주랑	김수현	화	19:40~20:50	18	280,000	피아노실	8
해금	김현하	수	19:40~21:10	15	280,000	뮤직홀	10
플루트 A	노현주	화	19:00~20:00	18	200,000	뮤직홀	12
플루트 B	노현주	화	20:00~21:00	18	200,000	뮤직홀	12
클라리넷 A	류혁	월	18:30~19:30	18	200,000	뮤직홀	10
클라리넷 B	류혁	월	19:30~20:30	18	200,000	뮤직홀	10
하모니양상블(혼성)	박윤희	목	15:30~16:50	16	250,000	뮤직홀	25
예술가곡과 오페라의 기초	박윤희	목	11:00~13:00	16	250,000	음악실	25
성악연주 클래스	박윤희	화	15:30~17:00	16	380,000	음악실	7
대금	봉용식	목	19:00~20:30	18	250,000	뮤직홀	8
클래식기타 타레가클래스(초중급)	심지석	금	19:00~20:00	18	220,000	음악실	15
알함브라기타양상블(중고급)	심지석	금	20:00~21:00	18	230,000	음악실	18
첼로 D(고급)	안성은	월	18:30~19:30	18	200,000	무용실	10
첼로 A(초급)	안성은	월	19:40~20:40	18	200,000	무용실	10
첼로 B(중급)	안성은	수	18:30~19:30	18	200,000	무용실	10
첼로 C(상급)	안성은	수	19:40~20:40	18	200,000	무용실	10
합창교실	이은실	수	11:00~13:00	18	280,000	뮤직홀	25

성악마스터클래스 A	이은실	목	11:00~12:30	18	430,000	뮤직홀	7
즐거운 가곡 교실	이은실	금	14:00~15:20	18	280,000	뮤직홀	25
성악마스터클래스 B	이은실	금	15:30~17:00	18	430,000	뮤직홀	7
웹빙피아노 A	채보연	목	10:00~11:00	18	220,000	피아노실	8
웹빙피아노 B	채보연	목	11:00~12:00	18	220,000	피아노실	8
웹빙피아노 C	채보연	목	14:00~15:00	18	220,000	피아노실	8
웹빙피아노 D	채보연	목	19:00~20:00	18	220,000	피아노실	8
웹빙피아노 E	채보연	토	11:00~12:00	18	220,000	피아노실	8

강좌	강사	요일	시간	횟수	강좌료	장소	정원
연극놀이 A(6~7세)(3/12 개강)	도희경	목	15:30~16:30	15	280,000	무용실	10
연극놀이 B(8~9세)(3/12 개강)	도희경	목	16:50~17:50	15	280,000	무용실	10
기초 조형표현 미술교실(초1~6) A	박명희	토	11:20~12:40	18	200,000	미술실	10
기초 조형표현 미술교실(초1~6) B	박명희	토	14:00~15:20	18	200,000	미술실	10
엄마와 함께하는 어린이 미술 교실(5~7세)	박명희	토	12:50~13:50	18	200,000	미술실	10
초등학생 미술 A(초3~6)	박운용	금	17:30~19:00	18	200,000	미술실	12
초등학생 미술 B(초3~6)	박운용	토	15:30~17:00	18	200,000	미술실	12
어린이 첼로	안성은	월	16:30~17:30	18	200,000	무용실	10
어린이발레 실퍼드 A(6~7세 초급)	이명은	금	16:10~17:10	18	200,000	무용실	10
어린이발레 실퍼드 B(7~8세 중급)	이명은	금	17:20~18:20	18	200,000	무용실	10
어린이발레 실퍼드 C(6~7세 초급)	이명은	토	10:30~11:30	18	200,000	무용실	10
어린이발레 실퍼드 D(7~8세 중급)	이명은	토	11:40~12:40	18	200,000	무용실	10
어린이발레 실퍼드 E(초1~6 고급)	이명은	토	12:50~13:50	18	200,000	무용실	10
어린이발레 실퍼드 F(6~7세 초급)	이명은	토	14:00~15:00	18	200,000	무용실	10
어린이 동요 기초탄탄(5~7세)	이연정	금	15:30~16:30	18	280,000	음악실	7
초등학생 성악 A(초1~2)	이연정	수	16:00~17:10	18	220,000	음악실	10
초등학생 성악 B(초3~6)	이연정	수	17:20~18:30	18	220,000	음악실	10
초등학생 성악 콩쿠르 대비(초1~6)	이연정	수	18:40~19:50	18	320,000	음악실	7
내 친구 바이올린 A(5~7세)	전기홍	토	11:00~12:10	18	250,000	뮤직홀	10
초등학생 바이올린 B(초1~3)	전기홍	토	13:10~14:20	18	250,000	뮤직홀	12
초등학생 바이올린 C(초4~6)	전기홍	토	14:20~15:30	18	250,000	뮤직홀	12
어린이 피아노 교실(5~8세)	채보연	목	16:20~17:30	18	450,000	피아노실	8
초등학생 피아노 교실(7세~초6)	채보연	토	14:00~14:50	18	300,000	피아노실	8
우리 가족은 피아니스트	채보연	토	15:00~16:00	20	700,000	피아노실	27가족
리틀 발레리나 A(5~7세)	최아라마	화	15:20~16:20	18	200,000	무용실	10
리틀 발레리나 B(5~7세)	최아라마	화	16:30~17:30	18	200,000	무용실	10
어린이 발레 팀커벨(초1~4)	최아라마	화	17:50~18:50	18	200,000	무용실	10

강좌	강사	요일	시간	횟수	강좌료	장소	정원
통 - 킨더(피아노+바이올린)(6세 초급)	신소영	화	16:20~17:20	44회	480,000	세미나실	6명
	김맑음	수	15:30~16:30			피아노실	
통 - 킨더(플루트)(7~8세 초급)	김인성	수	15:30~16:30	44회	480,000	무용실	6명
	김인성	수	17:10~18:10			뮤직홀	
통 - 플루트(초1~3)	김인성	수	16:30~18:10	22회	480,000	무용실	6명
통 - 피아노 뮤직솔레 1(7세 초급)	김맑음	화/금	15:15~16:15	44회	480,000	뮤직홀/피아노실	6명
통 - 피아노 뮤직솔레 2(7~8세 중급)	김맑음	화/금	16:20~17:20	44회	480,000	뮤직홀/피아노실	6명
통 - 피아노 뮤직솔레 3(초등 중급)	김맑음	화/금	17:30~18:30	44회	480,000	뮤직홀/피아노실	6명
통 - 바이올린 1 가보트(7세 초급)	신소영	화/목	17:30~18:30	44회	480,000	뮤직홀/세미나실	6명
통 - 바이올린 2 미뉴에트(7~8세 중급)	신소영	수/금	16:40~17:40	44회	480,000	뮤직홀/세미나실	6명
통 - 바이올린 3 제트(초등 중급)	신소영	수/금	15:30~16:30	44회	480,000	뮤직홀/세미나실	6명
통 - 바이올린 4 왈츠(초등 고급)	신소영	수	17:50~19:30	22회	480,000	뮤직홀	8명
통 - 모차르트(Moz-Art) 오케스트라(초4~고등학생)	차평은	토	10:00~13:00	22회	480,000	음악실	20명





# 03

2015 March

성남아트센터의  
3월 일정을  
소개합니다

오페라하우스

콘서트홀

앙상블시어터

성남시민회관

성남미디어센터

미술관 본관

큐브미술관

Sun	Mon	Tue
<b>1</b>	<b>2</b>	<b>3</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㉔ 올 청소년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7:00)</li> <li>㉕ 양태근 개인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㉔ 내츨리 세븐 내한공연 (20:00)</li> <li>㉕ 양태근 개인전</li> <li>㉖ &lt;더블아이&gt; 전</li> </ul>

<b>8</b>	<b>9</b>	<b>10</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㉔ &lt;더블아이&gt; 전</li> <li>㉕ &lt;표현21&gt;·캘리그래피 전시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㉔ &lt;더블아이&gt; 전</li> <li>㉕ &lt;표현21&gt;·캘리그래피 전시회</li> </ul>

<b>15</b>	<b>16</b>	<b>17</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㉔ 디어필드 챔버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19:00)</li> <li>㉕ 뮤지컬 &lt;피터팬&gt; (11:00, 14:00, 16:0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㉔ 재능나눔 콘서트 (19:30)</li> <li>㉕ &lt;LAMBS&gt;·김식 개인전</li> <li>㉖ &lt;모던아트&gt; 전</li> </ul>

<b>22</b>	<b>23</b>	<b>24</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㉔ 뮤지컬 &lt;그날들&gt; (14:00, 18:00)</li> <li>㉕ &lt;LAMBS&gt;·김식 개인전</li> <li>㉖ &lt;모던아트&gt; 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㉕ &lt;LAMBS&gt;·김식 개인전</li> <li>㉖ &lt;모던아트&gt; 전</li> </ul>

<b>29</b>	<b>30</b>	<b>31</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㉔ 김혜영, 윤미 듀오 콘서트 (19:00)</li> <li>㉕ &lt;야곱의 사닥다리 - Indigo&gt;·이혜임 개인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㉔ Close Encounter (20:00)</li> <li>㉕ &lt;야곱의 사닥다리 - Indigo&gt;·이혜임 개인전</li> </ul>

Wed	Thu	Fri	Sat
<b>4</b>	<b>5</b>	<b>6</b>	<b>7</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㉕ 양태근 개인전</li> <li>㉖ &lt;더블아이&gt; 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㉔ &lt;더블아이&gt; 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㉔ 아리에따와 함께하는 클라리넷 음악회 (19:30)</li> <li>㉕ &lt;더블아이&gt; 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㉔ NFA 프로젝트 오케스트라 (18:00)</li> <li>㉕ 송실 동문 오케스트라 연주회 (19:00)</li> <li>㉖ &lt;더블아이&gt; 전</li> <li>㉗ &lt;표현21&gt;·캘리그래피 전시회</li> </ul>

<b>11</b>	<b>12</b>	<b>13</b>	<b>14</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㉕ &lt;표현21&gt;·캘리그래피 전시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㉔ 성남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20:00)</li> <li>㉕ &lt;표현21&gt;·캘리그래피 전시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㉕ &lt;표현21&gt;·캘리그래피 전시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㉔ 2015 세시봉 친구들 (15:00, 19:00)</li> <li>㉕ 유망주를 위한 협연음악회 (19:00)</li> <li>㉖ 뮤지컬 &lt;피터팬&gt; (11:00, 14:00, 16:00)</li> <li>㉗ &lt;표현21&gt;·캘리그래피 전시회</li> </ul>

<b>18</b>	<b>19</b>	<b>20</b>	<b>21</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㉕ &lt;LAMBS&gt;·김식 개인전</li> <li>㉖ &lt;모던아트&gt; 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㉔ 마티네 콘서트 (11:00)</li> <li>㉕ 성남시립국악단 사랑방음악회 (19:30)</li> <li>㉖ &lt;LAMBS&gt;·김식 개인전</li> <li>㉗ &lt;모던아트&gt; 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㉕ &lt;LAMBS&gt;·김식 개인전</li> <li>㉖ &lt;모던아트&gt; 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㉔ 뮤지컬 &lt;그날들&gt; (15:00, 19:00)</li> <li>㉕ 신춘음악회 (19:30)</li> <li>㉖ 칸타빌레 스트링 콰르텟 (19:00)</li> <li>㉗ &lt;LAMBS&gt;·김식 개인전</li> <li>㉘ &lt;모던아트&gt; 전</li> </ul>

<b>25</b>	<b>26</b>	<b>27</b>	<b>28</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㉔ 성남시향 '여자가 행복해지는 공연' (11:0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㉕ 큐브영화관 &lt;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gt; (19:0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㉔ 전국연극제 경기도예선대회 (20:00)</li> <li>㉕ &lt;야곱의 사닥다리 - Indigo&gt;·이혜임 개인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㉔ 엔셈코랄 정기연주회 (17:00)</li> <li>㉕ 앙상블 브리제 콘서트 (19:30)</li> <li>㉖ &lt;야곱의 사닥다리 - Indigo&gt;·이혜임 개인전</li> </ul>



## 성남아트센터 밖 주요 공연장들의 볼 만한 공연들을 소개합니다

글+정리 **김주연**

## Music

### 2015 코리아 오페라 스타스 앙상블 정기연주회

① 3.2 20: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프로그램** 푸치니\_〈투란도트〉중 공주는 잠 못 이루고, 클래식 메들리 및 세계 민요 | **사회** 장일범 | **지휘** 윤의중 | 코리아 오페라 스타스 앙상블 외 | ☎02-581-5404

### 2015년 뉴코리아 예약음악회 - 제1회 신년음악회

① 3.3 20: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프로그램** 모차르트\_피아노 협주곡 21번 KV467, 슈베르트\_교향곡 9번 외 | **지휘** 김정양 | **피아노** 마샤 디미트리예바 | 뉴코리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02-6404-3569

### 경기필하모닉 - 멘델스존, 엘리아

① 3.4 20: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프로그램** 멘델스존\_오라토리오 〈엘리아〉 | **지휘** 성시연 | **출연** 사무엘 윤, 김재형, 장유리, 김선정 외 | 서울시합창단, 서울모테트합창단,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 ☎031-230-3322

### 2015 금호아트홀 라이징 스타5 - 정예창

① 3.5 20:00 금호아트홀 | **프로그램** 요한 벤젤 칼리보다\_오보에와 피아노를 위한 샬롱풍의 소품 Op. 228, 폴랑크\_오보에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FP 185, 갈 닐슨\_오보에와 피아노를 위한 두 개의 판타지 Op. 2 외 | **오보에** 정예창 | ☎02-6303-1977

### 베를린 필하모닉 수석 연주자 더블 콘체르토

① 3.7 14: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프로그램** 모차르트\_오페라 〈코지 판 투테〉 서곡;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협주곡 K364, 브람스\_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협주곡 A단조 Op. 102 | **지휘** 장윤성 | **바이올린** 다니엘 스타브라바, 크리스티안 스타델만 | **비올라** 나이하르트 레자 | **첼로** 디트마르 슈발케 | 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 | ☎02-6292-9370

### 스티브 바라캇 콘서트

① 3.8 17: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피아노** 스티브 바라캇 | **지휘** 김봉미 | 연주 헤럴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070-8248-6085

### 베를린 필하모닉 스트링 콰르텟 내한공연

① 3.10 20: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프로그램** 베토벤\_현악 4중주 12번 E♭장조 Op. 127, 최영섭\_그리운 금강산, 브람스\_피아노 5중주 F단조 Op. 34 | **피아노** 조재혁 | 연주 베를린 필하모닉 스트링 콰르텟 | ☎02-6292-9370

### KBS교향악단 화이트데이 콘체르토

① 3.11 20: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프로그램** 차이콥스키\_꽃의 왈츠, 웨버\_〈오페라의 유령〉중 밤의 음악, 라흐마니노프\_보칼리제, 라벨\_볼레로 외 | **지휘** 박상현 | **바이올린** 벤지 | **첼로** 광희성 | **유지컬** 배우 브래드 리틀, 한지상 외 | ☎02-6099-7400

### 금호아트홀 명교수 시리즈 - 존 오키너

① 3.12 20:00 금호아트홀 | **프로그램** 베토벤\_폴로네이즈 C장조 Op. 89; 디아벨리 왈츠에 의한 33개의 변주곡 C장조 '디아벨리 변주곡' Op. 120; 7개의 비가텔 Op. 33 외 | **피아노** 존 오키너 | ☎02-6303-1977

### 더 식스틴 내한 공연

① 3.13 20:00 LG아트센터 | **프로그램** 팔레스트리나\_ "미사 레지나 첼리" 중 '키리에'; 스타바트 마테르 외 | **지휘** 해리 크리스토퍼스 | ☎02-2005-0114



### 한화생명과 함께하는 11시 콘서트

① 3.12 11: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프로그램** 모차르트\_〈마술피리〉 서곡, 피아졸라\_오블리비온, 차이콥스키\_이탈리아 기상곡 외 | **해설** 박종훈 | **지휘** 류성규 | **바이올린** 김정아 | **군포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 ☎02-580-1300

### 국립오페라단 오페라 〈안드레아 세니에〉

① 3.12~15 목~금 19:30/주말 15:00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 **작곡** 조르다노 | **대본** 루이지 알리카 | **지휘** 다니엘레 칼레가리 | **연출** 무대 스테파노 포다 | **출연** 박성규, 윤병길, 고현아, 김라희, 루치오 갈로, 한명원, 양송미, 양계화 외 국립오페라단 | ☎02-586-5282

### 베를린 방송교향악단

① 3.13 20: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프로그램** 베버\_〈오베론〉 서곡, 시벨리우스\_바이올린 협주곡, 브람스\_교향곡 2번 | **지휘** 마렉 야노프스키 | **바이올린** 프랑크 페터 치머만 | 연주 베를린 방송교향악단 | ☎02-599-5743



###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과 드보르자크 신세계

① 3.14 20: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프로그램** 브람스\_피아노 협주곡 1번 D단조 Op. 15, 드보르자크\_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 | **지휘** 라하브 사니 | **피아노** 보리스 길트버그 | 연주 서울시향 | ☎1588-1210

### 2015 CBS갈라콘서트 아름다운 열정

① 3.16 20: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프로그램** 모차르트\_〈피가로의 결혼〉, 로시니\_〈세비아의 이발사〉중 주요 아리아 | **지휘** 임현정 | **출연** 사무엘 윤, 임신혜, 한영훈, 고태영 | **사회** 장일범 | 연주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 ☎02-2650-7481

### 바흐술리ستن서울 창단10주년 기념음악회 I - 메시아

① 3.17 20: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프로그램** 헨델\_〈메시아〉 런던 초연판 | **음악감독** 박승희 | **지휘** 김선아 | ☎02-541-3150

### 금호 인터내셔널 피아니스트 시리즈3 - 리즈 드 라 살

① 3.19 20:00 금호아트홀 | **프로그램** 브람스\_피아노를 위한 주제와 변주 D단조 Op. 18, 라벨\_밤의 가스파르 M.55, 드뷔시\_전주곡 | **피아노** 리즈 드 라 살 | ☎02-6303-1977

### 2015 예술의전당 토요 콘서트

① 3.21 11: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프로그램** 드뷔시\_판타지, 슈만\_교향곡 3번 '라인' | **지휘** 김대진 | **피아노** 박혜연 | 예술의전당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 ☎02-580-1300

### 발렌티나 리시차 피아노 리사이틀

① 3.21 17: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프로그램** 베토벤\_피아노 소나타 31번 '템페스트, 리스트\_소나타 8단조, 쇼팽\_에튀드 외 | ☎1544-5142

### 안토니 비트의 베토벤 '영웅'

① 3.24 20: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프로그램** 엘스너\_백공 레퀴엠 서곡(편곡: 피델베르크), 차이콥스키\_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베토벤\_교향곡 3번 '영웅' | **지휘** 안토니 비트 | **바이올린** 발레리 소콜로프 | 연주 서울시향 | ☎1588-1210

### 구스타보 두다멜 & LA 필하모닉

① 3.25~26 20: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프로그램** 말러\_교향곡 6번(25일), 존 애덤스\_시티 누아르, 드보르자크\_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26일) | **지휘** 구스타보 두다멜 | ☎02-6303-1977

### KBS교향악단 제692회 정기연주회

3.27 20: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프로그램** 힌데미트\_베버 주제에 의한 교향적 변용, 베토벤\_피아노 협주곡 3번, 슈트라우스\_영웅의 생애 외 | **지휘** 요엘 레비 | **피아노** 이고르 카멘스 | ☎02-6099-7404

## Theater

### <라이온 보이>

① 3.5~7 목~금 20:00/토 15:00, 19:00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 **원작** 지주 코더 | **연출** 애너벨 아덴, 클라이브 멘더스 | **제작**·**출연** 컴플리시테 극단 | ☎02-2280-4114

### <코카서스의 백묵원>

① 3.21~28 평일 20:00/주말 15:00 (월 심)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 **원작** 브레히트 | **각색**·**연출** 정의신 | **예술감독** 김성녀 | **출연** 국립창극단 | ☎02-2280-4114

### <3월의 눈>

① 3.13~29 평일 20:00/주말 15:00 (월 심)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 **작** 배상식 | **연출** 손진책 | **출연** 손숙, 신구 외 | ☎1688-5966

### <우리동물원>

① ~3.10 평일 19:30/주말 15:00 (화 심) 명동예술극장 | **작** 테네시 윌리엄스 | **연출** 한태숙 | **출연** 김성녀, 정운선, 이승주, 심완준 | ☎1644-2003

### <슬픈 인연>

① 3.20~4.5 화~금 20:00/토~일 15:00 (화 심) 명동예술극장 | **작**·**연출** 김광림 | **출연** 강신일, 방은진, 남기애, 최용민, 이정은 외 | ☎1688-5966

### <소벨자르고주인오기전에도망가선생>

① 3.12~29 평일 20:00/주말 15:00 (월 심) 남산예술센터 | **작** 최치연 | **연출** 김승철 | **출연** 박완규, 김수현, 민병욱, 신현중, 이준혁, 이형주, 김성일, 박시내, 한보람 외 창작극단 아르케 단원 | ☎02-758-2150

### <얼녀춘향>

① 3.6~22 화~금 20:00/토 15:00, 18:00/일 15:00 (월 심) 두산아트센터 스페이스 111 | **각색**·**연출** 김현탁 | **출연** 김미옥, 김명섭, 최우성, 신현진, 김성혁 외 극단 성북동비둘기 | ☎02-708-5001



### <경숙이, 경숙 아버지>

① 3.6~4.26 화~금 20:00/토 15:00, 18:00/일 15:00 (월 심) 수현재씨어터 | **작**·**연출** 박근형 | **출연** 김영필, 고수희, 권지숙, 주인영, 황영희, 김남진, 김상규, 서동갑 외 극단 골목길 | ☎02-766-6506

### <시애나, 안녕 시애나>

① 3.4~27 화~금 20:00/토~일 16:00, 19:00 (월 심) 국립극장 별오름극장 | **작** 임빛나 | **연출** 진용석 | **출연** 이강희, 한송이, 이보미, 강연정 외 | ☎010-2961-2722

### <유도소년>

① ~5.3 화~금 20:00/토 15:00, 18:30/일 14:00, 17:30 (월 심) 대학로 아트원씨어터 3관 | **작** 박경찬 | **연출** 이재준 | **출연** 홍우진, 박훈, 박해수, 차용학, 박성훈, 김호진, 정연, 박민정, 임철수 외 | ☎02-744-4331



## Musical

### 뮤지컬 <드림걸즈>

① ~5.25 화~금 20:00/토 15:00, 19:30/일 14:00, 18:30 (월 심) 사롯데씨어터 | **작곡** 헨리 크리거 | **작사** 탐 이언 | **연출** 안무 데이비드 스완 | **음악감독** 원미술 | **출연** 차지연, 박혜나, 최현선, 윤공주, 박은미, 유지, 김도현 외 | ☎1588-5212

### 뮤지컬 <난쟁이들>

① ~4.26 화~금 20:00/토~일 15:00, 18:30 (월 심) 충무아트홀 중극장 블랙 | **작** 이지현 | **작곡** 황미나 | **연출** 김동연 | **출연** 정동화, 조형균, 진선규, 최호중, 최유하, 백은혜, 전역산(전야민), 우찬(이경욱) 외 | ☎1666-8662

### 뮤지컬 <마마 돈 크라이>

① 3.10~5.31 평일 20:00/토 15:00, 19:00/일 14:00, 18:00 (월 심) 뿌디헬씨어터 | **작** 이희준 | **작곡** 박정아 | **출연** 송용진, 김호영, 서경수, 고영빈, 이동하, 이충주 외 | ☎1577-3363

### 뮤지컬 <쓰루 더 도어>

① 3.13~6.7 화~금 20:00/토 15:00, 19:00/일 14:00, 18:00 (월 심) 대학로 유니플렉스 1관 | **원작** 주디 프리드 | **작곡** 로렌스 마크 와이드 | **각색** 이정미 | **연출** 김현은정 | **출연** 최수진, 유리아, 최수형, 김경수, 전재홍, 민우혁, 백형훈, 김호섭 외 | ☎070-7519-9734

### 뮤지컬 <군, 더 버스커>

① 2.20~3.22 화~금 20:00/토~일 15:00 (월 심)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 **작사**·**작곡**·**연출** 박용진 | **출연** 김신희, 허규, 김보강, 김효정, 정운, 윤성선, 권세정, 데빈, 김성규 외 | ☎02-391-8226

### 뮤지컬 <아가사>

① ~5.10 화~금 20:00/토 15:00, 19:00/일 및 공휴일 14:00, 18:00 (월 심)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대극장 | **프로듀서** 김수로 | **연출** 김지호 | **출연** 최정원, 이혜경, 강필석, 김재범, 윤형렬, 박한근, 주종혁(라이언), 정원영 외 | ☎02-548-0597

### 뮤지컬 <라카지>

① ~3.8 화~금 20:00/토 15:00, 19:30/일 14:00, 18:30 (월 심) LG아트센터 | **대본** 장 푸아레 | **작곡** 제리 허먼 | **연출** 이지나 | **출연** 정성화, 김다현, 이지훈, 남경주, 고영빈, 송승환, 김태환, 이경미 외 | ☎1666-8662

### 뮤지컬 <원스>

① ~3.29 평일 20:00/토 15:00, 19:30/일·공휴일 14:00, 18:30 (월 심)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 | **대본** 엔다 윌시 | **작곡** 글렌 헨서드, 마르케타 이글로바 | **협력연출** 김태훈 | **출연** 윤도현, 이창희, 전미도, 박지연, 강윤석, 임진웅, 이정수, 배현성 외 | ☎02-577-1987

### 뮤지컬 <로빈훅>

① ~3.29 평일 16:00, 20:00/주말 15:00, 19:00 디큐브아트센터 | **대본**·**원작연출** 한스 홀츠베커 | **작곡** 미턴 톱커 | **국내연출** 왕용범 | **음악감독** 이성준 | **출연** 유준상, 이건명, 엄기준, 박성환, 규현, 양요섭, 서지영, 김아선 외 | ☎1577-3363

###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① ~4.5 화·목·금 20:00/수 15:00, 20:00/토 15:00, 19:30/일 14:00, 18:30 (월 심) 블루스퀘어 삼성전자홀 | **작곡** 프랭크 와일드혼 | **연출** 데이비드 스완 | **음악감독** 원미술 | **출연** 류정환, 조승우, 박은태, 소나, 리사, 린아, 조정은 외

## Dance

### 국립발레단 <지젤>

① 3.25~29 평일 19:30/토 15:00, 19:30/일 15:00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 **예술감독** 강수진 | **음악** 아돌프 아당 | **안무** 파트리스 바르 | ☎02-587-6181

### 유니버설발레단 <멀티플리시티>

① 3.19~22 평일 20:00/토 15:00, 19:00/일 15:00 LG아트센터 | **안무** 나초 두아토 | **음악** 바흐 | **의상** 나초 두아토 | ☎070-7124-1737





# 문화예술의 성찬(盛饌)

성남아트센터에서 누리세요

유 | 료 | 회 | 원 | 혜 | 택



## VIP

연회비 10만원  
 기획 및 대관공연 10~50% 할인 (8매) (일부 대관공연 제외)  
 기획전시 50% 할인 (8매)  
 아카데미 10% 할인  
 무료주차권 10장 제공  
 기획공연 프로그램북 제공 (1회 1권)  
 오페라글라스 무상 대여 (1회 1개)



## Gold

연회비 5만원  
 기획 및 대관공연 10~40% 할인 (6매) (일부 대관공연 제외)  
 기획전시 30% 할인 (6매)  
 아카데미 5% 할인  
 무료주차권 5장 제공  
 기획공연 프로그램북 제공 (1회 1권)  
 오페라글라스 무상 대여 (1회 1개)



## Silver

연회비 3만원  
 기획 및 대관공연 10~40% 할인 (4매) (일부 대관공연 제외)  
 기획전시 20% 할인 (4매)  
 무료주차권 3장 제공

### 유료회원 공통 예우

좋은 좌석 우선예매 (기획공연에 한함)  
 주요 대관 공연 할인 및 초청 이벤트  
 뉴스레터 및 SMS 서비스  
 문화예술 정보지 월간 <아트뷰> 우송

### 가입절차

인터넷 가입 (신용카드 및 무통장입금)  
 - 성남아트센터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결제  
 - www.snart.or.kr  
 방문 가입 (신용카드 및 현금)  
 - 오페라하우스 광장 옆 종합안내소 아이플라자

### 문의

T : 031-783-8000/8114  
 F : 031-783-8241  
 E-mail : member@snart.or.kr



성남아트센터 유료회원을 위한 특별한 예우를 소개합니다

### 유료회원 가입 안내

031-783-8000, 8114

member@snart.or.kr

- 타 제휴 할인과 중복 할인 불가
- 할인 혜택을 위해서는 회원카드 제시가 필요합니다.

#### 마리에트



신선한 채소와 허브, 싱싱한 해산물로 조리하는 양식당  
 성남아트센터 큐브플라자 1층  
 031-701-2681

#### 카페 바람소리



호텔 출신 주방장의 요리,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레스토랑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지하 1층  
 031-707-7585

#### 아프리카나



브런치와 함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분당구 서현동 188-1번지  
 031-708-8115

#### 카페 랄로



직접 로스팅한 세계의 유명 원두를 맛볼 수 있는 카페  
 분당구 운중동 552번지  
 031-709-5711

#### 비블즈



최상의 음질로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라이브&뮤직 카페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14-11  
 031-781-0770

#### 와인365



수도권 남부 지역 최대 규모의 와인 아울렛  
 분당구 금곡동 365번지 와인365빌딩  
 031-715-0365

#### 카페 마벨



와인, 스카치 등 다양한 주류를 음미할 수 있는 레스토랑  
 분당구 아탑1동 366-7  
 031-707-5850

#### 데일리킹스 다이너



홈메이드 스타일 요리가 있는 미국 정통 패밀리 레스토랑  
 분당구 수내동 16-6 SH에너지빌딩 1층  
 031-711-5341

#### 국순당



국순당의 이름을 걸고 수입하는 프리미엄 와인 전문 매장  
 분당구 수내동 롯데백화점 지하식품매장 내  
 010-8979-0037

#### 판교우리치과의원



환자의 치아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치과  
 분당구 운중동 964 스타식스메트로빌딩 4층 | 031-8016-2875 |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20207-증-3498호

#### VIPS 아탑점



100여 가지 메뉴가 제공되는 국내 대표 패밀리 레스토랑  
 분당구 아탑동 367-1 BYC빌딩 2층 | 031-783-8897 | 주문 시 생맥주 2잔 또는 에이드 2잔 무료(2인 이상 주문 시, 테이블당 최대 2잔 제공)

#### 뉴욕스테이크하우스Eric's 정자점



뉴요커가 만든 국내 유일의 스테이크하우스 프랜차이즈 식당  
 분당구 정자동 두산위브빌리온 B동 110호  
 031-784-9930

#### 하늘안과의원 강남점



체계적인 라식·라섹 검사 체계를 보유한 안과의원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18 (역삼동) 3F~6F | 02-573-9779 |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140220-증-54309호

#### 취영루 이매점



탁 트인 전망과 품격 있는 메뉴를 자랑하는 중식당  
 분당구 이매동 113 성남 상공회의소 5층 | 031-707-6613 | 공연 티켓 제시 시 10% 할인(관람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 미스터피자 아탑점



건강한 수타 피자와 샐러드바를 즐길 수 있는 피자 전문점  
 분당구 아탑동 353-5 2층 | 031-703-7676(아탑이매점) | 유료회원 5% 할인, 공연 티켓 소지 시 15% 할인(1개월 이내/1회에 한함/매달 포함)

#### 호자촌 이지 한의원



최상급 청정한약재로 원내에서 직접 탕전하는 한의원  
 분당구 서현동 298-2 상록프라자 2층  
 031-707-6363  
 의료광고심의필 제130503-증-15761호





문화예술 애호가와 성남아트센터의 아름다운 동행. 성남아트센터 후원회는 성남아트센터에 대한 다양한 후원 활동을 통해 성남아트센터가 세계 유수의 복합문화공간과 어깨를 겨루며 성장하게 돕고, 더 많은 사람이 성남아트센터를 통해 문화예술을 향유하도록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는 취지로 2006년 10월 발족했습니다. 이를 위해 후원회는 성남아트센터의 목적 사업을 지원하는 중장기 발전 기금을 조성하고, 성남아트센터 성장의 저변을 확대하는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 투어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인회원

은하수회원

최충열/박지향 (주)유엔젤 대표이사  
(재)유엔젤보이스 이사장

달무리회원

신현규/김복선

탄천회원

강영귀/김연경 (주)인피콘 대표이사  
김진명/심정자 분당 예치과병원 원장  
손경호/이동순 (주)경동 대표이사 회장  
이완근/홍은희 (주)신성솔라에너지 대표이사 회장  
이재환/한정의 (주)위즈코리아 설립자 / 명예CEO

철쭉회원

변봉덕/이매연 (주)코맥스 대표이사 회장,  
성남상공회의소 회장  
안봉혁/어윤경 유세티코리아(주) 대표이사 회장  
정대혁/김대원 나무(주) 대표이사  
탄천문화포럼

무지개회원

김경자/박성희 꼬모아트웍션 이사

탄천회원

박 철/하정진 아이파트너(주) 대표이사  
여영동/이옥자 (주)세너스 회장  
최계순/김순자 (주)반포산업 대표이사

철쭉회원

강정완/정병태 서양화가, 프랑스 작가협회 회화분과위원  
(사)한국미술협회 상임고문

강효주/이동연 필립강갤러리 대표,  
한국문화재단연구소 소장

김길복/이상숙 한국수도경명연구소장, 공인회계사,  
분당 마음상담연구소 소장

김동술/민인선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담 대표이사  
(주)예장디앤씨 이사

김명자/이승오 산후조리원 워크래프 대표  
김연태/이주숙 제일치과원장, 前 성남시치과의사협회장

김영수/원종순 (사)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이사장,  
前 문화체육부 장관

김중현/정승희 (주)특수건설 대표이사  
김진환/이화용 법무법인 충정 대표 변호사,  
前 서울지검장

김태호/김경자 前 농협중앙회 이매지점장  
남궁원/김순미 남송미술관 관장 / 예원유치원원장,  
갤러리 SOON 대표

남선우/정정섭 국제로타리 3600지구 前 총재  
마희자/조득환 서진공방 대표 / (주)조영실업 대표이사

박미경/강대식 중원구 보건소 약사 / (주)평화기업 이사  
백종훈/지용애 (주)태영건설 상무 / 송파중학교 교사

손의명/손희자 손의명치과원장 / 문인화가  
송 자/탁순희 (주)대교 이사장

신동화/정수진 경기일보 상무  
오종영/이승희 신명엔지니어링(주) 회장

윤영상/박인영 (주)이글프로세스 콘트롤스 대표이사  
이성무/김복기 한국역사문화연구원장, 前 국사편찬위원회장

이은화/정인희 (주)언어문화원 대표이사  
이임수/이화자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예가

성남아트센터 후원회는 문화예술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분께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후원회 사무국

전화 031-783-8033  
팩스 031-783-8190  
이메일 mecenat@snart.or.kr

개인회원

이정식/고옥주 (주)뉴스1 사장  
이종덕/김영주 충무아트홀 사장  
이지은/김순건 음악인 / 하림상사 대표  
이호순/김명순 세일종합기술공사 대표이사  
임삼규/정효정 (주)대일소재 상무 / 약사  
장형환/임경희 (주)네패스하이테크 대표 / N갤러리 대표  
전명자/김정길 서양화가 / JKKIM & Co. INC 대표  
정성조/심운경 (주)패션아일랜드 대표 / D&M Space 대표  
정승림/한정복 세일기공(주) 대표  
정은경/박민걸 모란새로운약국 대표 / 명당한의원 한의사  
정은기/박은숙 前 국립서울병원원장 / 서양화가  
조남주/이규철 미술단체 <線과 色> 명예회장  
최병주/박인수 세무사 최병주 사무소 대표,  
분당지역세무사회 회장

한병무/최정자 (주)삼화 F&F 회장  
허용무/구은희 (주)가람산업 대표이사  
허 참/홍애자 前 상아제약 회장  
황광석/조영순 (주)케이씨피 대표

이매회원

김문기 (주)금화 대표이사  
이근우 (주)서울사프중공업 대표이사  
신선희 前 (재)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정용석 성남FM방송 대표

회원 구분	가입 기준	평생회비
은하수		1억 원 이상
달무리	법인 (단체 포함)	5,000만 원 이상
무지개		3,000만 원 이상
탄천	개인	1,000만 원 이상
철쭉		500만 원 이상
이매	개인	300만 원 이상(5년)

\* 500만 원 이상은 평생회원, 부부회원



슈베르트와 거닐다  
matinee CONCERT

2015 마티네 콘서트

배우 김석훈의 해설과 최수열 지휘자가 함께하는 클래식 이야기

국내 최초 슈베르트 교향곡 전곡 사이클



2015년 3월 - 12월 (총10회)

매월 셋째주 목요일 오전 11시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문의 031-783-8000  
예매 1544-8177  
www.snart.or.kr  
전석 25,000원